

소사별

년간 · 소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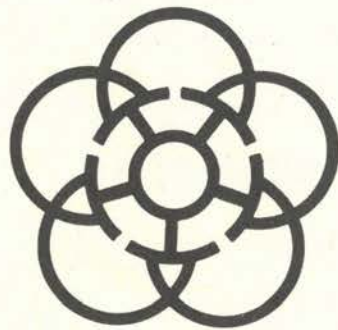
1985. 제 2호 비매품



社團平沢文化院
法人

4246

소사별



사단
법인 **평택문화원**

군민헌장

백리 소사벌의 풍요한 오곡은 우리 평택국민의 자랑이며 온 민족의 젖줄이다.

이제 인정이 다사로운 이 삶의 터전에 숭고한 조상의 얼을 되살리고 알뜰한 문화인의 생활 개선을 추구하며 무궁한 번영을 다짐하자.

1. 알뜰하며 따뜻하고 명랑한 생활 풍토를 이룩하자.
2. 연구하며 협동하여 부지런히 건설하자.
3.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와 이웃과 내고장을 아끼고 가꾸자.
4. 우리의 참된 기상과 조상의 정기를 되살려 민족 번영에 이바지 하자.
5. 온 국민이 자조·자주·자립으로 합리적 생활을 이룩하자.

평택애국가

작사 유달영
작곡 이홍열

민요풍으로

1. 바 라 보 면 가 이 없 는 천 리 평 야 에
2. 충 언 더 마 다 탈 이 되 어 싸 운 의 용 들
3. 조 상 들 의 터 를 닦 은 포 도 의 향 기 수
4. 비 단 위 의 무 뇌 처 럼 고 운 솔 뫼 들
2. 호 적 에 도 굴 히 참 은 운 채 한 기 이
3. 소 사 벌 엔 학 이 날 아 장 물 결 이
4. 개 척 하 자 학 데 뭉 처 지 와 섰 로

1. 진 위 안 성 두 강 물 이 하 나 로 흠 러
2. 바 위 조 차 영 웅 으 로 승 리 거 났 네
3. 닳 을 주 는 어 선 들 은 풍 어 의 노 래
4. 새 역 사 의 깃 ~ 발 도 우 름 부 른 다

1. 서 해 물 결 굽 이 치 는 평 택 내 고 향
2. 정 ~ 의 의 굽 피 가 살 아 한 결 같 고 나
3. 그 어 디 나 캐 어 가 면 무 진 한 자 원
4. 이 생 명 에 불 을 달 려 밝 게 타 보 자

후렴
아 름 다 운 산 과 바 다 야 정 든 고 향 아
하 느 님 이 내 려 주 신 만 세 의 나 토

권 두 언	김 창 복	
'85 평택군 군정방향		8
평 택 치 안	최 영 균	12
평택교육의 오늘과 내일	박 한 동	14
평택의 향맥	차 관 영	18
지방문화의 좌표	봉 명 근	22
세계청소년해에 드리는 말씀	이 신 상	24
선진조국의 창조	조 영 행	33
정암·조광조 선생의 생애와 정치사상	강 주 진	37
민세·안세홍 선생		42
경로효친과 청소년의 선도	김 종 화	46
별 전		50
내 고 장 전 설		52
확 충 사		70
백중날과 백중놀이		73
향토학교순례 (한광학원편)		74
'85 문화행사경연		82
문 화 동 정		93
향 우 회 소 식		96

문예 중흥 선언문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문화창조의 사명을 절감한다. 한 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 힘은 그 민족의 예술적 문화적 창의력이다. 예술이 창조력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문화가 자주성을 찾았을때 나라는 흥한다. 신라통일의 위대한 업적과 세종시대의 문화 창조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유산을 개발하고 민족적 전통성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문화를 창조한다. 맹목적인 복고경향을 경계하고 분별없는 모방행위를 배척하며 천박한 퇴폐풍조를 일소하여 우리 예술을 확고한 전통속에 꽃 피우고 우리 문화를 튼튼한 주체성에 뿌리 박게 한다. 우리는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영광된 겨레의 내일을 위하여 가치의식과 사관을 바로잡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의 자주성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문화의 전당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예술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자신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세계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문화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인류 문화에 이바지 할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예술가 모든 문화인들은 온 국민과 동참하는 대열에 서서 예술과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정성을 다해 문예중흥을 이룩할 것을 선언한다.

권 두 언

우리는 해방이후 西歐의 문화충격과 전통문화의 갈등, 혹은 일본문화와 서구문화의 복합화, 그리고 중국의 유교적문화나 종교문화의 중첩적인 諸要因내지는 産業化나 경제변동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와의 문화적 불균형 等…… 現存하는 문화의식이야말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우리가 「선진조국의 창조」라는 과업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종의 戰略樹立과 實踐이 뒤따라야 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물량적用具문화와 가치, 정신문화의 不調和에서 생기는 욕구불만의 갈등 等이 해결되어야 할 時點에 處해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제중에는 향락주의·소비지향적성향·금전만능적 배금주의 思潮나 이기주의·물량제 1주의·윤리의식의 퇴조 等등이 없지 않다.

이와 같은 諸般 과제는 정책적 차원에서 전통문화와 비전통문화의 調和를 위해서 각별히 연구·추진



社団法人 平澤文化院長
金昌福

되고 있는 셈이지만 우리는 이 時點에 서서 「세계사적」 우리문화의 創造를 위해서 더욱 全力을 경주하여야 될 환경일 따름이다.

이제 잠시 과거의 문화발전의 역사를 회고할 때 이른바 문화발전은 반드시 문화유산의 계승만을 가지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萬代의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전대문화의 「권위」나 「구속」 등에서 벗어나서 이를테면 전대문화의 과감한 부정이 새로

운·새시대의 문화를 창조하는 大前提가 된바 없지 않았다는 事實을 우리의 역사속에서 읽어 볼 수 있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않된다.

어쨌든 선진조국 창조의 문화적 환경下에서 다시 「소사별」 제 2호를 펴내게 됨을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창간호와는 달리 增面續刊하게 된것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및 군행정당국 그리고 애향유지 諸位의 각별하신 物·心兩面의 支援에 힘입었다는것을 여기에 밝히면서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謝意를 표해 마지 않는다.

끝으로 「소사별」 제 2호로 하여금 「八無地」가 아닌 「八有地」의 향토문화의 창조에 더욱 기여하게 되기를 希願할 따름이며 아울러 多忙하신중에도 玉稿를 보내주신 각 기관 및 諸位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여 마지 않는다.



(평택군 청사 전경)

1985년 평택군·군정방향(발췌)

평택군은 경기 남부의 관문으로 쌀의 주산지이다 K-6기지가 있는 전략 요충지이고, 서부의 해안선에는 L, N, G기지 및 화력발전소가 자리잡고 있다. 또한 근래에는 아산만의 관광지 개발로 내·외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으며, '86, '88의 관광·휴양지로도 더욱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터이다. 다음에 '85년도의 군정방향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3대 군정 방향으로는

- ① 군민의식의 선진화
- ② 지역발전 잠재력의 선진화
- ③ 행정행태를 민주화에 두고, 이에 소요되는 총예산규모는 18,598 백만원 (일반회계 11,040 백만원<59.4%>, 특별회계 7,558 백만원<40.6%>)이고 그 재정자립도는 58.2%이다.

한편 **3대 군정방향에 따른 6대역점 시책으로**

- (1) 신뢰받는 봉사행정의 구현
- (2) 내실있는 새마을 운동의 전개
- (3) 서민생활안정과 복지증진
- (4) 식량증산과 소득기반 조성
- (5) 활기찬 지역의 균형개발
- (6) 지역사회 방위역량의 강화 등에 두고 있다.

다음에 상기 6대 시책을 중점적으로 摘記하여 본다.

(1) 「신뢰받는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 1) 선진공직자상의 정립
- 2) 대민 홍보능력의 배양
- 3) 조직의 활성화
- 4) 읍면행정력 보강에 그 역점을 두고, 특히 주민본위 봉사행정의 구현에 있어서는 「친절·봉사행정」, 「능률행정」, 「대화여론행정」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종합책임제」, 「사회정화운동의 지속적 추진」, 「반상회의 발전적 운영」, 「교직자 우대풍조 조성」을 이루며,

「군민 화합풍토 조성」을 위하여

- 1) 민간조직의 육성강화
- 2) 애향정신의 고취(내 고장 자랑 찾고 가꾸기, 내 고장 인재기르기, 유명업소 만들기, 향토문화육성 애향수 가

꾸기 등)를 기하기로 한다.

(2) 내실있는 새마을운동의 전개를 위하여

1) 먼저 「새마을 운동의 체질화」(새마을 민간조직 활성화 8개회, 교육 확대 20,480명,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39명, 새마을금고 확충 2,017백만원)를 기하고

2) 「쾌적한 문화복지 농촌건설」에는 특히 문화복지 기반확충에 934백만원, 농촌주거 환경개선에 124백만원, 계 1,315백만원의 투자를 계상하고 있다. 한편 새마을 소득 특화작목개발(3개작목), 및 유아원, 농번기 탁아소를 각각 15~18개소씩 운영토록 추진한다.

3) 「도시 새마을 운동의 내실화」의 실천 항목으로 3대 질서운동의 전개, 친절·근검의 생활화, 도시환경정비(426백만원), 부녀 새마을 운동전개를 활성화 하도록 한다.

4) 「자연보호운동의 생활화」의 확산을 위하여 18,800명에게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388마을에 1마을 1보호물 지정 보호를 지도토록 한다. 그리고 「민간주도 자율추진의 강화」로서 자연보호 시범학교 6개교, 명예 감시원 33명에서 388명으로 확

대하며, 수시로 우수기관, 개인, 단체 등에 표창을 실시한다.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 확충에 700 만원의 투자를 계상하고 있다.

(3) 「서민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는

1) 영세민 생활보호를 위하여 생계구호(385 백만원), 자활능력배양(6,744 백만원), 취약지 영세민 없는 마을육성(5 마을/47 백만원), 대도시 지방이주 영세민 지원(105 가구/447 명), 부랑인 보호(12 회/150 명) 등 제반시책을 추진한다.

2) 「사회복지증진」시책으로서는 의료시혜증진, 전염병 예방, 직업여성관리, 노인건강진단, 아동복지시설관리에 역점을 둔다.

3) 「환경위생관리」로는 생활환경 시설확충(792 백만원), 청소행정(17 백만원)의 강화 및接客업소 시설 개선을 기한다.

(4) 「식량증산과 소득기반조성」에는

1) 「식량증산중 쌀 생산목표」를 57 만석에 두고, 한해 사전대책(조기 논물 가두기<496 ha>, 관정개발<182 孔>), 우량종자갱신(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31 개소>), 농토배양(262 백만원), 조기 못자리, 조기이앙(10

일 앞당기기)을 실시한다. 그리고 주당주수확보(평당 80 주) 및 영농취약지 중점개선, 수도병충해 방제의 철저를 기하며,

2) 「소득기반조성」에는 복합영농의 확대(395 백만원), 축산기반확충, 원예생산의 확충에 역점을 둔다.

(5) 「활기찬 지역의 균형개발」에 있어서

1) 생활기반 시설의 확충에 총 3,329 백만의 투자로서, 상수도 시설확충, 하수도 정비, 공설운동장 조성,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도시계획 재정비를 시행한다.

2) 치산녹화 시책으로 37 ha/42,800 본의 경제림(밤, 잣나무 및 낙엽송)을 조성한다.

그리고 소득수종식재(포플러, 은행나무, 관상수, 유실수) 및 과학적 육림관리를 강화한다.

3) 치수방제 시책으로 기성제 정비(108.5 km), 방조제 정비(1,000 m)에 101 백만원의 투자를 하며,

4) 관광개발 및 문화예술진흥에 '85 민자 투자 1,764 백만원으로 숙박, 휴게시설 및 판매장 시설의 설치, 조경을 시행한다. 그리고 문화재의 보수에 58 백만원, 평택농악 계승발전에

어린이농악대 육성 60명, 문예진흥
기금 조성에는 4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다.

(6) 「지역자위 방위역량의 강화」에
있어서

1) 민방위 역량의 제고에는, 민방위 조
직운영의 정예화, 민방위 교육훈련(160
회/47,173명), 주민신고태세 확립을
기한다.

2) 소방태세의 확립으로는, 소방행정
기반확충(장비보강/차량 2대), 화재
예방활동 강화, 자율예방체제 확립(38
개대), 경계출동태세 확립(소방순찰강
화/1일 2회)등을 중점적으로 실시
한다.

3) 지역방위 능력향상 시책으로서,
방위협의회 운영의 강화 및 비상대
비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동원태
세 확립(예비군 자원관리/18,019명)과
아울러 취약지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계획·실시중에 있다.

이밖에 「특수시책」으로는

첫째, 어린이농악대 육성, 둘째, 자율
시범마을 육성(영농지도, 세금자진납부
3마을→9마을), 셋째, 都·農 자매
결연(평택읍 유천리의 9개리와 광명
시 하안동 21통외 9개통), 넷째, 새
마을소득 특화작목개발 : 영지버섯재배

(팽성읍 송화 4리), 논마늘 시범단지조성
(현덕면 복합영농단지 4부락), 관광농원
조성(현덕면 지산, 장수, 권관리)을 기한다.

끝으로 본군은 「국민정신 및 경제교육」
을 위해서 '84년에 180천명의 교육실적
을 보았고, '85년에는 160천명의 교육
(정부시책, 업적, 국가현실, 경제실상 및 애
향심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예산절
약」에 있어서 본군은 인건비 절약으로 52
백만원, 경상비절약 45백만원, 사업비절약
39백만원을 그리고 「에너지 절약」으로
1,56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다. 「저축증대
추진계획」으로는 저축성예금(8,470백만
원), 비은행저축(11,040백만원), 계19,510
백만원을 목표로 1인 1통장 갖기운동, 전
공무원 가계종합예금 가입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림픽 대비사업」으로 1등국민
의식화 운동전개(질서의식정착등)를 위하
여 올림픽 식재를 비롯해서 외국인 홍보
마을육성, 공원조성, 관광지 개발을 적극
시행한다. 아울러 「제도개선 작업추진」
에 있어서는 '85년 계획으로 성병관리소
와 안정보건지소의 통합운영, 일시 보호소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본군의 「현안사항」으로는 공
설운동장 조성에 '85년 계획으로 용
지매수, 본부석 설치, 토성스탠드 설치
등에 1,48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향후 소요액으로 1,438백만원이 계상
되나 이것은 국·도비의 지원이 요망되
는 형편이다.

平澤治安



平澤警察署長
崔永均

平澤은 京畿道の 最南端으로 忠南과 境界를 이루고 있으며 백리 소사벌은 畿湖地方의 唯一한 穀倉地帶로 옛부터 人心 좋고 살기 좋은 쌀 主產地였으나 6.25 事變后 松炭의 K-55 美空軍基地와 彭城 K-6 美함프리스 衛戍司令部가 駐屯하면서 兩基地村은 準 國際化 地域으로 變하자 各處에서 兇犯者와 家出女들이 雲集 各種 犯罪事件이 增加하였고 最近 急激한 經濟發展과 國民生活 向上等 社會變動에 따라 傳統的인 秩序가 紊亂해 졌으며 個人主義的 利己心이 澎湃하여 消費性과 性道德이 解弛돼 가는 實情입니다.

交通은 京釜鐵道 1番國道 38 國道を 連하는 高速道路 西海産業道路 等으로 서울과는 1日 生活圈으로 4通8達로 되어 있고 牙山灣의 海岸線을 끼고 恒常 敵의 浸透가 豫想되며 車嶺山脈과 連繫하여 山岳루-투化한 武裝共匪의 迂廻

浸透間諜의 基地村 潛入 暗躍이 憂慮되고 牙山 및 南陽防湖堤, 等 重要施設과 首都圈 地域으로 金星VTR, 東亞自動車, 洪元製紙, 韓國야쿠르트等 큰 工場이 誘致되어 많은 일자리를 얻었으나 이에 따른 公害問題 丘陵地帶 野山開發로 酪農과 果樹園의 擴張으로 知能化, 스피트화된 犯罪問題가 擡頭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平澤은 地政學的으로 보거나 産業 文化的 側面에서 보거나 重要하지 않은 要素가 하나도 없어 治安과 安保를 맡고 있는 2百餘 平澤警察은 不變의 信念과 굳은 意志로 한데 뭉쳐 住民의 安寧과 便宜를 爲하여

- (1) 最善을 다하고
- (2) 親切한 對民奉仕와
- (3) 業務의 能率向上을 期하며
- (4) 模範的인 規律을 지킬것을 服務 指針

으로 내 걸고 各種 不法行爲를 果敢히 除去하여 國民生活의 安全保護에 注力하겠습니다.

또한 今年의 重點 事業으로는 첫째가 安保治安態勢強化입니다. 鐵桶같은 對共態勢의 確立을 爲하여 汎 國民反共意識高揚으로 各界 各層의 意見을 모아 申告責任者를 定하여 脆弱地 特殊性에 맞는 體制를 確立하고 出動態勢를 갖추어 浸透間諜의 拔本 塞源에 萬全을 期하겠습니다.

둘째로는 社會紀綱의 確立입니다. 自律秩序의 體質化 運動을 展開하여 痼疾의인 秩序紊亂行爲를 集中團束 交通, 公衆 行樂秩序를 確立하고 豫防警察活動의 強化를 爲하여 防犯意識鼓吹와 被害回復에 注力하고 全 警察을 搜查 要員化하여 社會惡 掃蕩은 勿論 住民怨聲 犯罪를 重點 剔抉하며 安全事故豫防 靑少年 善導等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세째는 親切한 對民奉仕입니다. 親切 奉仕 基本守則에서 明示한바와

같이

- (1) 人事는 웃으며 정다웁게
- (2) 對話는 부드럽고 자상하게
- (3) 態度는 공손하고 다정하게
- (4) 業務는 바르고 신속하게
- (5) 結果는 명쾌하고 만족하게

親切을 生活化하며 民願室에 찾아오는 住民의 隘路 建議事項을 수렴 이를 解決하는데 力點을 두고 國民爲主의 業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卽決審判의 豫審制 實施로 억울한 사람을 保護하고 24 時間 刑事民願을 接受하여 迅速處理는 勿論 被害品 回收에 不斷한 努力과 請託 排擊으로 合理化 原則에 立却한 業務를 處理하고 實績爲主나 過剩 團束으로 庶民層이 被害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結論的으로 모든 警察業務를 遂行하는데 國民의 協助 없이는 아무리 뛰어도 平澤管内 治安의 所望을 이룩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이고장 治安을 爲하여 아낌없는 指導鞭達을 바랍니다.

平澤教育의

오늘과 來日

-主人精神 기르는

다듬는 平澤教育 -



平澤郡教育長 朴 漢 東

1. 序 言

高度 先進國家로서 地球村 時代를 先導하고 韓民族의 世紀를 創造하려는 '80年代 우리 祖國의 大望은 教育革新과 文化暢達로 이룩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7.30 教育革新의 持續化를 通하여 2000年代에 對備하는 教育으로 만이 先進祖國 創造와 平和統一의 새로운 當國을 建設하는데 積極 기여하는 偉대한 韓國人의 育成을 期待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平澤教育의 課題

우리 平澤郡은 西海의 긴 海岸線을 끼고 있는 京畿南部의 關門으로서 教育, 社會, 文化의 諸 分野에서 他道와의 比較가 두드러질 뿐 아니라 全天候 農業地帶이면서도 軍事的으로 重要な 地域이고 間諜侵透 취약지이기 때문에 主人精神을 갖고 先進 京畿人으로서의 自負와 矜持를 높이며 새마을 教育 및 反共 安保 教育에 力點을 두어야 할 課題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만 開發과 火力發電所 建設 및 LNG 저장고의 建設等 새로

은 觀光地로, 또한 産業地도 변모하고 있는 까닭에 科學技術教育의 振興에도 努力해야 하겠고 多層的인 地域住民 構成에 따른 價値意識의 多樣化, 傳統文化의 貧困, 基地村 生活의 特殊性 等은 主人精神과 愛鄉心の 鼓吹, 敬老孝親思想 高揚을 根幹으로 하는 傳統文化 繼承 啓發 教育의 強力한 推進이 要求되고 있으며 아울러 學力の 不均衡과 基礎技能低調 等の 問題點은 教育課程運營의 正常化를 通하여 學力的 上向 平準化를 기하여야 할 必要가 있습니다.

이러한 地域的 여건은 새로운 教育氣風을 造成함으로써 教育의 全 領域을 通하여 創意와 精誠으로 內實을 다져 나갈것이 要請되는 것 입니다.

3. 平澤教育의 力點事業

教育改革을 爲한 教員의 資質向上과 基礎學力을 다지는 學生의 自律探究學習의 指向, 그리고 教育의 여건改善 등으로 教育의 諸 分野에서 마음과 생각과 行動을 調和롭게 다듬어 가는 가운데 教育發展을 기하기 爲하여 平澤教育은 무엇보다도 確固한 主人精神의 基盤위에서 이룩된다는 確信으로 “主人精神을 기르는 그리고 다듬는 平澤教育”을 教育의 指標로 정했습니다.

첫째, 郷土에 꿈을 심은 내고장 主人의 育成으로, 總 40,843 名으로 構

成된 900 隊의 平澤郡 學徒愛鄉隊는 主人精神, 愛鄉精神, 奉仕精神, 自律精神을 바탕으로 正直, 親切, 秩序, 禮節, 清潔, 근면등의 實踐德目을 生活化하기 爲하여 學校에서 배운 基本生活習慣을 家庭과 마을에서 바르게 實踐함으로써 내집 내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品位있는 先進文化 國民으로서의 資質을 스스로 높여 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爲해서 今年度에는 特히 修練會를 通한 學徒愛鄉隊長의 資質을 함양하는 한편 1,000 부의 學徒愛鄉隊活動教本을 發刊하여 配布함으로써 愛鄉活動이 더욱 內實化하도록 하고 1 隊 1 郷土 特色 課題를 選定하여 解決하도록 함으로써 自律 創意의 學徒愛鄉隊活動이 展開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教師示範授業制運營으로 教育의 質은 教師의 質을 능가하지는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教員들의 資質이 向上되었을때 質높은 教育을 期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라나는 오늘의 靑少年들은 15 年後의 21 世紀를 主導할 主人公들입니다. 急變하는 社會속에서 質높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創意力과 적응력이 必要한 것이기에 오늘의 教育은 未來를 展望하면서 未來에 對處하는 教育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本郡에서는 未來社會에 有能

하게 적응할 수 있는 學生을 育成하기 위하여 모든 教師가 多角的으로 教授-學習指導方法을 研究하는 風土를 助成하는 한편 學習指導우수教師의 授業을 公開하고 좋은 授業場面을 錄畫하여 VTR資料를 보급함으로서 一般化에 努力하고 있으며 平素에 땀 흘리며 研究하며 學生들의 學力을 높이기 위해 努力한 教師를 發掘하여 표창하는 施策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세째는 生育史活用을 통한 生活指導입니다.

자라나는 靑少年은 未來의 꿈이며 希望이기 때문에 東西 古今을 막론하고 至大한 관심을 쏟아온 것이 事實입니다.

특히 21世紀의 祖國을 짊어지고 나아갈 오늘의 靑少年에게 거는 國家的 社會的 期待는 그 어느때 보다도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靑少年들의 各種 非行事件과 脫線등은 심각한 教育的, 社會的 問題가 되고 있어 이에 對한 合理的 對策이 切實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人間 尊重의 生活指導가 必要한바, 本郡에서는 심층적 學生理解, 指導資料를 作成 活用하는 한편 生育史에 바탕한 學校級別 連繫指導와 指導記錄을 통한 教師間의 連繫指導로 바른 心性을 계발하여 참되고 슬기로운 學生像을 定立하는데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째는 多得點 꿈나무 가꾸기 입니다. 體力은 國力이라 했습니다. 다가오는 '86년에는 아시안 게임을, '88년에는 世界人類의 最大 祭典인 올림픽이 서울에서 開催됩니다. 이러한 높은 긍지를 갖고 사는 오늘의 우리 靑少年들이 體育分野에 있어서도 各者가 갖고 있는 素質을 마음껏 키우도록 하는 일도 重要하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本郡에서는 '86, '88의 主役 育成을 위하여 體育英才를 早期에 發掘하여 科學的으로 指導하고, 多得點이 가능한 競技種目을 選定하여 集中的으로 育成하는 한편 年中無休로 強化訓練을 實施하고 地域別로 特色있는 育成種目이 定着될 수 있도록 學校級別로 連繫 育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施策은 '85年度 京畿道 學徒體育大會에서 市를 除外한 郡單位에서는 當當 1位の 成績을 거두어 앞으로의 많은 꿈나무들이 배출되리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國際化時代에 적응하는 教育입니다.

오늘날을 일컬어 地球村時代라 하듯이 그만큼 世界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더우기 21世紀는 韓民族의 世紀로 世界文化를 主導하려는 意慾에 차있는데 未來를 準備하는 오늘의 學生들에게 國際理解와 國際的 경쟁력에서

이겨나갈 힘을 기르게 하는 外國語의 習得은 重要한 教育의 要求이기도 한 것입니다.

本郡에서는 이러한 國際化時代에 적응할 수 있는 有能한 人間을 育成하는 方案으로 英語 會話力을 伸張시키기 위하여 國民學校에 英語特別活動을 확대 實施하고 學校에서는 英文版 鄉土讀本인 Ma Comtry를 암송하게 하는 한편 外國人과의 日常生活을 通하여 會話할 수 있는 機會를 넓혀 英語 驅使力을 增進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地域社會學校 運營입니다.

學校는 地域社會에 바탕을 둔 社會的 機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教育의 社會化와 社會의 教育化가 切實히 要求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地域社會學校 建設을 여러면에서 意義가 있습니다.

특히 平生教育의 차원에서 본다면 現代人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全 생애를 通하여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平生教育의 部分으로서 成人教育은 대단히 重要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本郡에서는 建全한 家庭을 育

成하고 地域社會 發展과 學校發展에 女性人力을 能動的으로 참여케 하는 68 개교 4,193 名의 어머니로 새마을 어머니회를 조직 運營하는 한편, 老人福祉를 增進하고 敬老 孝親의 源泉으로서 老人의 役割을 增大시키기 위하여 37 個校 國民學校에 設置되어 있는 學區單位 老人會의 運營과 建全한 青少年像을 定立하여 未來의 希望찬 設計를 通하여 보람있는 生活을 영위케 하기 爲한 學區單位 青少年 教室運營등을 強化하고 있습니다.



4. 結 語

위와 같은 平澤郡의 主要施策은 全 敎職員과 學生들이 合心하여 精誠어린 指導와 꾸준한 努力으로 平澤教育의 現場은 나날이 그 모습을 달리하여 先進 平澤教育을 이룩하고 있으며 이러한 教育的 努力은 기필코 21世紀에는 世界文化를 主導하는 偉大한 祖國建設의 礎石이 될 것이라는 確信으로 오늘도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平澤의 鄉脈

平澤郡誌編纂委員會 常任委員 車寬榮



여기에 掲載한 “平澤의 鄉脈”은 1985年 急患으로 故人이 되신 故 車寬榮 先生 遺稿中에서 選定한 것입니다.

이분은 平澤郡誌 編纂委員會 常任委員 兼 執筆委員을 歷任한 바 있습니다. 이분에게 깊은 哀悼의 뜻을 表하는 바 입니다.

平澤地形은 마치 삼태기 모양 같다고 한다. 東으로는 安城郡과 接境하고 멀리는 車嶺山脈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이며 陽城의 千德山과 松炭의 德岩山 및 八龍山이 連峰을 이루고 있고 東北方으로는 舞鳳山과 이어지는 丘陵地帶로 龍仁方面에서 二東貯水池를 통하여 흐르는 振威川을 낀 振威 長好들, 西炭 海정이 들을 있는 平野地帶를 이루고 있으며 西方으로는 西海岸線 牙山灣과 南陽灣 一部地帶를 연결한 바다이며 靑北面의 五峰山 西南方으로는 浦升面의 崇拜山과 솔개바위가 웅립하고 있다. 龍仁郡 新曷貯水池를 통하여 흐르는 烏山川과 華城郡方面에서 흐르는 黃口池川이 合流하여 西海로 들어가는 여울에는 準平原 平野를 이루고 있다. 南方으로는 百濟 이었던 能川 또는 安城口로 불리우던 安城川을 끼고 忠淸南道와 接境하고 牙山灣이 가로 놓여 있으며 彭城面 芙蓉山을 비롯한 山地들이 덮여 있다. 또한 陽城方面에서 古三池를 거쳐 흘러오는 漢川과 安城方面에서 흘러오는 安

城川이 合流하여 素砂벌과 平澤平野를 貫流하여 低谷 平坦平野를 이루고 있다.

北으로는 華城郡과 接境하고 烏山邑 如鶴山峰의 精脈으로 군데군데 이어지는 山地가 西炭面一帶에 丘陵을 이루고 있으며 한편 烏山川과 振威川이 合流하여 黃口池川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振威面 一部와 西炭面에 平野地帶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地理的으로 三面이 바다와 河川이며 큰 山岳은 없다하나 162m 부터 100m 以下에 고운 솔매와 옥어진 曲線을 띤 丘陵과 山地로 形成되었다.

西海 물결이 구비치며 四個河川은 기름진 平野의 젖줄로 沃土를 이루니 이곳이야 말로 先祖들이 定着하여 이어 온 樂土가 아닐 수 없으며 祝福의 땅임을 알 수 있다.

東國輿地勝覽 山川條에 平澤을 가르켜 <水緩山低沃野平>이라 했고 朴瑞生의 詩句에 “물은 천천히 흐르고 山은 낮으며 沃野는 평평한데 주민들은 곳곳마다 밭갈이를 일삼는다”하였다. 또 盧叔同의 詩句에는 <風宗陽花如海>라 하였으니 기름진 들 멀리 손바닥 모양 편편한데 農夫들 도롱이 사갓 쓴 채 구름 헤치며 밭을 간다. 봄바람 질펀한 들엔 꽃바다 이루었고 밭머리선 찌꼬리가 아래 위로 나르며 운다.

또 徐居正의 詩句에는 <地曾近海饒

魚蟹>라 했으니”한 언덕 약간 높게 四面이 편편한데 날 저물어 돌아와서 외로운 정자에 올라보니, 이 지역은 본래 바다와 가까워서 물고기 게가 풍성하고, 들에는 이미 가을 깊어벼 농사로 가득 찼고나, 구름 한점 없는 긴 창공에는 기러기 그림자를 머금고 조수가 밀려온 옛 나루터선 龍비린내가 풍긴다. 내집에 數頃 황무한 밭이 있으니 어느날 찾아와서 白鳥와 맹약할꼬”하였다.

地形과 地勢가 알맞은 地理的 背景을 가진 이 고장은 각마을 由來속에 그 片鱗에서 짐작이 가듯이 어딜가나 浦口와 나루터와 들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魚業이 活發하였고 土產品으로 붕어, 게, 숭어 地黃이 有名하였으며 農耕地가 散在해서 生活하기에 安樂한 舞臺임을 말해주고 있다.

年輪이 흐르면서 山地의 底谷平野와 河川兩岸의 積平野가 形成하면서 泥土成沖으로 肥沃한 農土를 갖게 되었고 四個河川의 惠澤으로 灌溉水利用이 원활하여 豐饒로운 穀倉地帶로 또는 園藝 主產地로서 特히 배(梨)의 各產地로 發達되어 왔다.

더욱이 1952年度부터 施設한 現畿湖農地改良組合 傘下 安城郡 所在의 金光, 古三 大貯水池와 龍仁郡에 있는 二東, 新曷貯水池와 1973年度 完

成된 牙山灣防潮堤로 多目的 用水開發은 全郡域을 全天候 農耕地化로 綠色革命을 일으켰고 따라서 水系 및 水源이 豊富하여 1960年代부터 烏山川 振威川 流域을 利用하는 振威面 一帶에는 크고 작은 產業體들이 들어서면서 工場 굴뚝에서는 검은 煙氣를 내뿜고 있으니, 우렁찬 近代產業의 搖籃地로 변해가고 있다.

옛 做事에 의하면 이 고장은 三國時代는 지금의 松炭邑 以北은 高句麗 땅이었고 彭城邑 以南은 百濟 땅으로 分界線을 이루고 있었으며 高句麗의 南侵으로 百濟와 攻防戰이 자못 熾烈했었다고 하며, 壬辰倭亂 때는 勿論하고 特히 淸日戰爭 때는 平澤邑 軍門里에는 淸國軍이 布陣을 했던 곳이며 素砂벌의 大會戰은 有名하게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淸日戰爭에 시달리던 우리 祖上들은 啞然과 絶望 속에서 푸념하기를 “牙山이 깨지나 平澤이 무너지나”라고 내 뱉었다는 民談이 오늘도 우리 귓전에 맴돌고 있다. 그후 日帝時代는 所謂 大東亞戰爭을 爲하여 지금의 彭城邑 安亭里一帶에는 日本海軍 施設部隊가 안간힘을 다하여 가며 자리잡고 있었으며 現在는 K-6, 松炭邑의 K-55 美空軍部隊가 駐屯하고 있어 예나 오늘이나 軍事戰略地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基地村이 생겨 오늘날 小邑都市로 發展을 促進하는 데 바탕이 되었다.

本郡의 地理的 交通網은 近世 李朝時代만 해도 現在의 松炭 七院里를 通하여 振威面 見山里 고개를 넘어 漢陽으로 가는 三南大路와 其外 牙山方面에서 彭城邑 客舍里를 거쳐 芝制里와 長安里로 이어지는 大路가 있었으며 한편 忠淸南道 唐津郡 方面에서 海上을 通하여 晚湖里, 靑北面 新浦를 거쳐 漢陽으로 向하는 大路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特히 振威縣은 過客이 많기로 有名했다. 李朝初期 河崙이 지은 客館 重修記에는 “振威는 한길 옆이어서 勞力과 費用이 만 고을보다 갑절이나” 된다고 하였다. 이는 얼마나 客館을 거쳐가는 儒林士族과 길손들이 많았던가를 단편으로 말해주고 있다. 開化期 이후 京釜線의 鐵道가 敷設되면서 驛이 생기고 交通路는 四方五通八達로 뻗어 交通中心의 交叉路가 되었으며 京釜高速道路 開通으로 서울間 한時間 生活圈으로 바뀌었다.

本郡은 教育的 側面으로 볼 때 옛 祖上들은 學文을 履修할 環境이 어려웠다고 본다. 그것은 高麗時代는 이 地域은 北으로 淵達部曲(振威) 中間部에는 松庄部曲(松炭) 南으로 白郎部戟(彭城)의 鄉所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部曲이란 賤民集團 行政區域이다. 즉 이르기를 農耕, 牧畜, 草木細工集, 솟

굽는 일을 하며 生活하는 階層들의 特殊行政地域임을 말한다. 이로 因하여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環境으로 배울 길이 멀었고 學文과 接하게 된 것은 李朝初期에 高麗 遺臣들이 이곳 山谷과 間村으로 隱居하면서 또는 士禍나 四色黨爭으로 밀려났거나 벼슬을 떠나 落鄉한 선비들이 그 子孫들을 위한 書堂을 開設한데서부터 學文을 接하게 되었다고 보며, 그 후 李朝 때 教育制度에 의한 鄉校나 書堂이 普及되었고 書院(彭城 咸井里 褒義祠)이 있게 되었다. 나아가 開化期以後 이 地方은 教育熱이 높기로 이름이 났다. 그리고 일찍이 李朝末期부터 天主教 및 基督教이 들어와 開化의 물결이 成熟한 곳이었다.

이 고장의 人脈을 살펴보면 高官大爵은 나오지 않았지만 權慾에 급급하지 않고 自高하거나 오만하지 않은 義氣와 節介를 가진 名賢들과 忠勇한 名將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들 중에 代表的 人物로는 玄德面에 隱居하였던 高麗朝 遺臣(杜門洞七十二賢) 孔魚村先生과 松炭 彭城에서 出生했거나 자라온 李朝(中宗) 巨卯士禍 때 禍를 當한 當대의 大政治家이며 性理學者인 趙先祖와 丙子胡亂 때 斥和臣으로 瀋陽에서 殉節한 三學士中 洪翼漢, 吳達濟와 名御使로 술한 逸話を 남긴 振威面 外家에서 出生한 朴文秀며, 松都

三節인 花潭 徐敬德과 깊은 交友를 맺고 벼슬을 싫다하여 고독하게 살다간 儒家의 奇人으로 指稱했던 禹南陽等 諸賢을 文脈으로 손 꼽을 수 있다.

한편 古代 武將으로서는 李朝代에 節度使를 지낸 崔有臨, 同 蘇翁, 名將 林慶業, 壬辰倭亂 때 一等功臣이었던 元均 將軍과 李大源 將軍, 乙卯倭亂 때 長興府使로 있으면서 達梁浦에서 싸우다 戰沒한 西炭面出身 韓蘊等 諸將들이 있었다. 綺羅星 같은 이들은 武脈으로서 고장의 清雅한 별들임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平澤은 開化期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地理的 環境에 힘입어 教育熱은 濃渡가 깊어 다른 고장의 추적을 不許할 程度다. 이 고장은 中高等學校가 他地方보다 많음을 立證하고 있으며 더욱이 私學이 發展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하여 教育熱이 넘치는 가운데 近代와 現代를 이어가면서 人材들이 많이 輩出되고 있어 博士級만도 30名에 가깝다. 이 얼마나 國家社會나 民族을 위하여 多幸스러운 고장이라 하겠다.

지방문화의 좌표

奉 明 根

(前 大學教授)

I. 머리말

우리 사회에 있어서 지방문화의 關心인즉, 문화적 相對性이란 이론적 문제를 도외시하더라도 문화적 격차(首都와 地方間, 都農의 계층間, 세대격차 그리고 문화요소<기술, 조직, 가치>間의 격차, 정치, 경제, 사회등 각 제도적 領域의 문화 類型間의 격차)로 표시되는 현실적 문제를 表出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문화의 首都集中과 이에 따른 지방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이나 각성은 지방문화운동의 主要動因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먼저 지방문화의 계수적 斷片을 훑어보고, 그 실태를 略記한 다음 結言에 가름해서 지방문화의 당면과제를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II. 지방문화의 계수적 현실

우리는 흔히들 한국적 산업사회에서 지방문화의 낙후와 소외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지방문화의 낙후, 소외의 斷片으로 다음과 같은 계수를 제시하기도 한다. 즉, 첫째로 삶의 기회나 자원의 首都集中도에서 '83의 경우 G.N.P의 30% 제조업체

수의 43%, 금융기관전포의 37%, 은행예금의 40%, 대학의 45%, 전국공무원의 40%, 전국통화량의 70~80%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남한면적의 0.6%와 인구의 25%만을 차지하는 首都의 문화집중도는 '82기준으로 문화예술인구의 집중도가 58%, 주요문화시설집중도가 55%, 예술행사집중도가 72%로 되어 있다고 한다.

셋째로 문화활동의 주요지표가 되는 출판의 경우, 출판물발간건수비중이 서울에 95%이고, 한편, 방송매체의 집중화인즉 거개가 首都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 등이다.

III. 지방문화의 실태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에 대한 인식 및 참여도 조사」('85년 3월/한국일보사)에 따르면 전체응답자의 38.4%가 1년간에 1권도 책을 읽지 않았다고 체크하고 있는바, 이것은 해석컨대 한국국민이 지난 1년간 1인이 평균 7.2권이 책을 읽는 것으로 되는 셈인바 일본에 비하면 $\frac{1}{5}$, 미국에 비하면 $\frac{1}{4}$ 에 해당한다.

또 응답자의 67%가 지난 1년간 한번도 영화구경을 간 적이 없고, 93%가 음악회를 가보지 못했으며, 92%가 연극을 관람한 적이 없다는 바, 이것은 이를테면 「말하는 공연예술」인즉 일부층의 전유물화되어 있음을 뜻하는 셈이다. 그러나 응답자의 49%가 휴일이면 대중문화의 총아인 T.V시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上述한바 數個의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所謂 「문화적 . 후진」을 지적하기엔 성급할 것이긴 하지만, 다만 우리 국민이 보다 수준높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없지 않은 우리의 현실일 따름이다.

IV. 맺는 말

이상에서 지방문화의 실상 및 실태의 斷片을 살펴 보았거니와 「지방문화운동」에는 端的으로 민속극 운동, 전통문화운동, 노래부르기운동, 출판운동 등으로 類型化해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런데 근자에 특히 민중문화운동의 一環으로 대학등이 중심이 된 탈춤, 농악, 판소리, 마당극, 마당굿 등으로 지난날 이른바 억압받

은 민중의 사회적 저항성등을 表現하는 사례에 接한바 없지 않다. 여기에는 한마디로 문화의 生産(=일)과 문화의 消費(=놀이)로 合致되는 말하자면 문화매체의 공유화를 통해서 지난날의 삶의 공동체성 추구의 實演, 現場을 본바 있는 셈이다.

어쨌든 「지방문화운동」의 궁극적 목적이 지방민생활의 향상, 삶의 質의 향상에 있을진대 이 운동에는 모름지기 지방민 모두에 의해서 지방의 문화, 예술을 생활의 一部로 수렴내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물, 심 兩面의 投資가 소망스러운 우리의 현실일 뿐이다. 이와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으로 당해 지역의 교육, 문화기관 혹은 향토문화예술인 또는 지방민 모두가 「非君臨的」이고 「초월적」인 자세로 「문화의 생활화」나 「생활의 문화화」를 위해서 지방 특유의 발전모형을 설정 실행하여야 될 것이다. 아울러 諸般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적」 문화발전책의 강구이거나 혹은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및 미래문화의 考究에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우리의 情勢일 뿐이다.

世界靑少年의 해에 드리는 말씀



平澤郡靑少年善導委員長

李 信 相

청탁한 원고의 제목이 너무 광범위해서 폭을 줄이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들에 문제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기술하고자 한다.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하면서 부터 인간사회에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비행과 범죄가 있었을 것이다. 인간도 원천적으로 따져보면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적인 욕구(食欲, 眠欲, 性欲)와, 인간적인 욕구(名譽欲, 財欲)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도덕적, 반윤리적인 행동이 가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서로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문율인 윤리와 도덕이 싹트기 시작했고 인간을 해치고자 하는 자를 응징하기 위하여 벌칙이 생기고 이를 예방하고 순화시키기 위하여 교육과 종교가 생겼는지도 모른다. 어린이들이라 해서 무조건 천사가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어린이도 성장하다보면 과오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문제는 비단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옛날에도 불효자가 있는가 하면 불량아, 패륜아가 있었다. 오늘의 청소년 문제가 옛날과 다른점이 있다면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행의 건수가 많아졌다는 것과 과학과 문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되어 비행과 범죄의 수법이 지능적이고 잔인하고 대형화 되었다는 것을 들수 있다.

人間의 비교육적 環境

인간을 교육시킴에 있어 교육의 장이 되는 가정·학교·사회등 삼자가

일체가 되어 교육을 이루어야 하는데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가정은 핵가족이니, 부부 맞벌이니 하여 방문 열쇠를 각자가 가지고 직장과 학교로 가고 집에 돌아오는것도 예컨대 시차를 두고 국민학생은 오후 3시, 중학생은 5시 어머니는 밤 9시, 아버지는 밤 12시에 돌아오니 가정교육이 이루어질수가 없다.

따라서, 사회구조가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부터 교육도 분업화 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내세워 인간의 모든 교육을 학교에서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교육은 지정된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에 다양한 과목을 많은 학생에게 일괄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회 역시 기계문명으로 사람이 기계의 노예가 되고 물질만능주의가 팽만 되어서 이해타산에 민감하여졌다. 사람이 길가에서 죽어 가도 눈길조차 돌리지 않는 냉동인간이 되어가고 있으니 이런 현실속에서 사회교육은 기대하기 곤란하다.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표현한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일면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몰락된 인간성과 붕괴된 도덕심을 부흥 시키기 위하여 도덕재무장운동을 전개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청소년 문제가 아직은 그다지 많다고 하지는 않지만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 해야만 한다.

靑少年을 理解해야 한다

어느 가정이고 청소년을 갖게 된다. 현재는 없다하더라도 몇해후면 어린이가

자라 청소년이 되기 때문이다. 속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청소년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려면 청소년에게 밀착되어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왜 공부를 안하느냐, 장래 무엇이 될거냐”고 마구 몰아치면 그 아이는 갈 곳을 잃고 고민과 방황을 하게 된다. 마침내 극기(克己)하지 못하면 가출이나 심하면 자학까지도 불사하게 된다. 사람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출생으로부터 12세까지는 생물학적인 원리로 먹고, 잠자고, 뛰어 놀면서 성장하게 된다. 이때는 사고력과 판단력이 없이 인간 속에 섞이어 모방생활을 하게 된다. 13세 전후가 되면 일반적으로 육체의 변화와 아울러 정신원리가 작용하게 된다. 이때가 중학교 시기에 해당되며 사춘기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성과 가까이 하려하고 추상적인 이론을 내세워 부모나 선생님을 당황하게 한다. 동물적인 상태에서 인간적인 정신세계로 접어드는 초기이므로 이때 부모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자주 접촉하고 대화를 해서 심적불안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성인 중심으로 나무라고 꾸짖기만하면 갈등을 못이겨 집을 나가게 된다. 집을 한번 나가게 되면 이것이 죄의식화되어 원상으로 복귀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중학생의 가출학생중에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것은 이와같은 원리에서 기인된 것도 있다고 들린다. 고등학생이면 전형적인 청소년기

의 특징을 나타낸다. 지적개념이 뚜렷하고 주관적 이상에 충실하고 현실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이 가해진다. 아울러 장래에 대한 정신적 번뇌가 작열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정치인이 될 것인가? 경제인이 될 것인가? 예술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학자가 될 것인가? 하고 번뇌를 거듭한다. 장래에 대한 고민을 대개는 친구들과 상의한다. 친구들도 또한 같은 고민의 소유자이며 인생의 초년생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미흡하다. 이때 인생을 체험한 부모나 교사가 「어드바이스」가 되어야 한다. 상의는 본인의 의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의 학업성과 적성을 무시한채 부모의 일방적인 욕심으로 의사가 되라, 또는 법관이 되야 한다고 고집하면 그 아이는 부모의 기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좌절하여 고민하게 되고 내향적인 성격일 경우는 예기치 않은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청소년 후기에 접어들므로(靑少年 前期: 13~15세, 中期: 16~18세, 後期: 19~22세) 부모로서는 어느정도 안심할수 있다. 이때의 특징은 심신의 성장이 안정되게 시작하여 행동이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 것으로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현실을 무시하는 일도 없어지고 사물을 종합적으로 판단할수 있게 된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적응도가 높아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청소년의 특징은 육체적 성장과 아울러 정신적 발달이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짐으로 부모는 이 시기에 관찰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것이다.

靑少年은 環境에 敏感하다.

옛말에 “썩이 삼발에 나면 삼따라 곧게 자란다.”(生麻中不扶而直)라는 말이 있다. 썩은 원래 옆으로 퍼지면서 낮게 자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것이 삼발에서 자라면 삼과 같이 곧게 자라고 있다. 이렇듯 환경은 사물의 속성까지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도 인간속에 살아야 사람이 된다. 사람이 인간사회를 떠나 동물세계로 가면 동물이 되는 것이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린 아이가 장글속에서 늑대와 같이 사는 기이한 사실을 발견했다. 연유는 늑대가 마을에 내려와 잠자는 어린 아이를 물고 늑대가 사는 숲속으로 들어가 늑대의 젖을 먹여 키운 것이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두발로 걷지 않고 네발로 기어 다니고 늑대 우는 소리를 내고 먹이도 손을 이용해 먹지 않고 늑대 같이 입으로 직접 먹이를 먹는다. 형태는 사람이지만 행동은 늑대와 꼭 같다. 이 아이를 데려다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훈련을 시켰지만 끝내는 적응이 되지 않아 죽고 말았다. 인간도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는 동물적 원리로서 모방생활을 하게 된다. 부모가 사랑을 하면 사랑을 모방하고 부모가 자주 싸우면 싸움을 모방하게 된다. 그래서 「선한 가정에서 성장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가정에서 성장하면 악한 사람이 된다.」는 이치와 같다. 옛날에 나라에서 인재를 등용할 때나 개인간의 혼인을 할때는 가정과 부모를 보고 결정하였다. 학식이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좋지 않으면 실격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가정환경이

인간교육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가정교육은 말로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것이 효과적이다. 서양의 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니까 아내가 남편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아이들 교육에 왜 그렇게 무관심하냐”고 따지니까 남편 하는 말이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소”하고 대답했다. 이해가 안간 아내는 더욱 양갈진 소리로 “입다물고 무슨 교육을 시킨다는 거요.”하고 화를 냈다.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아이들 교육을 어찌 말로만 시키려 하오.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지”하고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열마디의 말 보다는 하나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청소년의 문제를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가정 결함으로 발생한 사건이 70%에 해당된다고 한다. 가정 결함의 내용은 가정불화, 편부, 편모, 계부, 계모, 아버지의 무능, 어머니의 불건전한 생활, 빈곤등이며 이모두는 예외일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만한 가정이 못된다. 부모의 잦은 싸움에서 포악함을 배우고, 편부에서는 모정이 결핍되고, 편모에서는 기강이 험하고, 계부나 계모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싹트기 어렵고 아버지가 무능하여 생활능력이 없으면 가정으로서 권위가 없어 아이들이 존경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불건전한 생활은 아이들에게 멸시를 받게되고, 가난이 깊어지면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게 된다. 이런 환경은 아이들의 정서를 메마르게 하고 비굴해지고 질서가 없어서 버릇없는 아이가 되기 쉽다. 요즘 기현상으로 나타난 부유층 자녀의 탈선과 비행은 풍요속에 절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격에 맞지 않게 많은 용돈을

써가며 친구들과 어울리어 이런일 저런일에 자주 참여 하다보니 공부할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공부를 적게 하니 자연히 학업 성적이 부진하여 공부는 아예 포기상태에 이르게 된다. 청소년 시절에 주임무는 학습인데 이를 포기 했으니 할일이 없게 된다. 할일 없다고 두문불출 하는것이 아니고 매일 밖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어 더 큰돈을 쓰게 된다. 빚나간 자식에게 계속 큰돈을 대줄 부모는 없는 것이다. 부모의 애정으로부터 이탈되면 부모에 대한 증오감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면 어쩔수 없이 탈선과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불우한 가정은 이쉬운 것이 많기 때문에 욕구불만에서 문제가 있고, 부유한 가정은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자제력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 불우하건 부유하건 어른이 수범적인 생활을 하게되면 어린이의 문제는 감소될수 있다.

自立能力을 길러주어야 한다

모든 자연은 독자적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여 존재한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외 될수는 없다. 그런데 인간은 문명의 이기 때문에 도리어 자연에 역행하는 일이 많다. 문명은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지나치게 문명에 의존하다 보면 인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립과 자주성을 상실하게 된다. 어렸을 때는 발에 흙도 묻어 보아야 하고 손에 가벼운 상처도 입어 보아야 한다. 발에 흙이 묻었다고 질겁을 한다든가 가시에 손

을 조금 꺾었다고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는것은 하나의 사치요 어린아이를 인형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해방후 우리나라엔 미국 사람이 많이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을 엿볼수 있었다. 주택가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미국 부인이 시장을 봐 갖고 돌아오는 길에 앞세우고 가던 어린아이가 한눈을 팔고 걸다가 헛디더 넘어졌다. 부인은 두손에 물건을 든채 아이를 일으킬줄 생각은 않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곁을 지나던 우리나라 사람이 잽싸게 그 아이를 일으켜 주고 손도 털어주고 무릎도 쓰다듬어 주었다. 그런데 미국 부인의 눈치는 고마워 하는 빛이 아니다. 계면쩍어 뒤로 물러서니 그 부인이 하는말이 “고맙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 일어날수 있습니다.”라고 한다. 생각해보니 옳은 말이다. 도움은 도움이 필요할때 도와 주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불필요한 간섭이 되는 것이다. 그 부인은 아마 그 어린이가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하는것을 보고 싶은것 같았다. 우리 어린이들의 노는것을 잘 관찰 해보면 자기가 저지른 일을 자기가 처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른의 도움부터 받으려고 생각한다. 그 중 한 예로 어린이가 뛰어 가다가 돌뿌리에 채여 넘어질 경우 잠깐 엎드려있다가 그냥 일어나긴 창피해서 그럼인지 작은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한다. 울어도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더 큰 소리로 울어 멀리까지 신호를 보낸다. 그래도 구조해주지 않으면 고개를 들어 주위를 확인한다. 보이는 사람이 없으면 울음을 멈추고 혼자서 일어나 손도 털고 옷

도 깨끗이 털면서 안넘어진척 하고 태연스럽게 간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할일이지 왜 피를 부렸을까? 두말할것 없이 과잉보호의 습성이 젖어 있기 때문이다. 어릴때는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다가 학교에 들어가면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교우관계도 있고 해서 용돈이 필요하게 된다. 어떤 부모의 경우는 자식의 귀한것만 생각하고 필요 이상의 돈을 후하게 준다. 어린이는 많이 줄수록 좋아하고 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낭비한다. 낭비가 습성화 되면 평생을 고생하게 된다. 이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장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용돈은 적정선을 마련해야 하고 무조건 주는것이 아니고 노력의 댓가로 주는것이 바람직하다. 아빠의 구두를 매일 닦는다든가 딸의 청소를 담당 한다든가 하는것 등으로 지불되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더욱 성숙하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었을 경우 집안일을 돕는다든가 아니면 인근에서 신문돌리거나 휴일같은 날은 농장에서 일손 돕기 또는 건축장에 나가 페인팅이나 청소하는것 등으로 용돈을 벌어서면 자립정신을 키워주는것은 물론이고 교육상으로도 바람직하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중, 고등학교 시절에 돈을 벌어서 농막 다섯채를 사놓고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갔다고 한다. 카터의 집안은 원래 땅콩 농장을 경영했기 때문에 어린시절의 카터는 그 농장에서 땅콩이삭을 주워 그것을 소금물에 삶아가지고 집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도시에 나가 길가에서 팔아 가지

고 돈을 모았다고 한다. 농부의 아들이
요 촌뜨기가 일약 연방정부의 대통령이
된것은 그 사람의 자조정신, 절약정신,
근면성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평하였다.
요즘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
은이들이 뻘뻘이 놀면서 부모한테 용돈
을 타다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향
락까지 하는것을 보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찍부터 자립정신을 키워주고 검
소한 생활풍토를 조성해 주었던들 이런
현상은 없었을 것이다. 사회 풍토면도
잘못 되었다. 노동은 신성한것이요, 일하
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풍습이 있더라
면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사람은 적
어졌을 것이다. 오랜 유교사상이 아직도
젖어 있어 노동을 천시하고 양반이 굶
어 죽어도 개떡은 안 먹는다는 격으로
부모는 자식들이 남의 일터에 나가 천
한 일 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것도
문제인것이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겠금 계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생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자
기의 적성을 찾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
니다. 성인도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할
최적의 일거리라고 단정 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이것·저것 하다보면 그중에서 어
느 하나가 마음에 드는것이 있어 그것
을 계속 하다보면 평생의 직업이 되는
수가 많다. 설사 어느 직업이 나의 적
성이다라고 판정해도 그것을 자기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이 그 수준에
따라야 하고 돈이 필요할 경우는 그 돈
이 준비 되어야 한다. 이것이 누구에게
나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시절에 가벼운 노동을 경험해보아야
어느것이 쉽다는것을 알게되고 또한
보람도 느끼고 자기의 적성 여부도
가늠하게 된다. 농촌의 한 소년이 중
학교 다닐때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집에 돌아가 소먹이 풀을 베게 되
었다. 질 좋은 풀을 베기 위해선
약간의 언덕을 넘어야 했다. 풀을
한질 잔뜩 베어지고 언덕의 가파른
길을 올라 오려면 힘에 겨워 발이
떨리고 숨이 턱에까지 차고 고개마
루까지 올라오면 지쳐서 땀이 온몸
을 적신다. 이 소년은 고개 마루에
서 쉬면서 생각한다. “다른 아이들
은 힘이 세어서 그런지 나처럼 힘
들어 보이지 않는데 나만은 안색이
창백할정도니 노동으로는 도저히 남
을 따를수가 없다. 나는 체질상 정
신노동이라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로부터 그 소년은 굳게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장학금을 받아 가
면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사회의 지
도자가 된 실예가 있다. 또 한 예
로는 유형이 다른 계기로서 성공한
일본의 아베 교수를 소개해 보겠다.
아베 교수가 고등학교 시절에 전차
간에서 자기가 그리던 이상의 여학
생이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는것을
발견하고 매혹되어 그 여학생의 이
모 저모를 살피기 시작했다. 봉숭아
빛 같은 얼굴색, 샷별같은 눈동자,
오뎅 솜은 코, 앵두같은 입술, 학같
이 쭉 빠진 목, 균형 잡힌 몸매등
어느 하나 흠 잡을데 없는 미인이
다. 저 여학생을 내 소유로 할 수
없을까 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여학생은 아베의 들뜬 심정을 눈치도

채지 못하고 다음 역에서 조용히 내린다. 아베 학생도 따라 내려 여학생의 뒤를 밟는다. 여학생은 아베 학생을 의식하지 못한채 자기집 대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열어준 대문 안으로 모습을 감춘다. 아베 학생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대문만 쳐다 보다가 생각한바 있어 대문 가까이 가서 문패를 보았다. 주소와 성명이 함께 쓰여져 있었다. 아베는 수첩을 꺼내어 주소와 호주의 성명을 기록하고 뒤로 돌아서 바로 자기 집으로 갔다. 집에 돌아온 아베는 모든 실력을 총동원 하여 미사여구로 사랑을 호소하는 편지를 썼다. 그리고 ○○씨 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여학생 케하(机下)라고 써서 붙이었다. 편지는 여학생의 아버지인 일본 와세다 대학교(早稻田 大學校)교수가 받았다. 표지의 내용이 모호해서 그 편지를 뜯어 보니 딸에게 사랑을 호소하는 남학생의 편지였다. 교수는 즉시 펜을 들어 답장을 썼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네가 그토록 내 딸을 사랑하니 한번 집으로 와 달라”고 하였다. 아베는 답장을 받아들고 기뻐서 어쩔줄을 몰랐다. “나에게 행운이 돌아왔다.” 그 미인은 나의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서둘러 여학생의 집을 찾아갔다. 큼직한 대문앞에 이르러서 당당하게 초인종을 눌렀다. 조금 있다가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풍신 좋은 노신사(老神士)가 실내복 차림으로 나와 대문을 열어 주었다. 아베는 허리 굽혀 인사하며 아베 학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다. 교수는 느직한 말투로 “네가 편지 보낸 학생인가?” 하고 물으

면서 응접실로 안내 하였다. 교수는 학생의 아래위를 훑터 보더니 “그래 공부는 잘하는가?” 하고 첫 마디를 건넨다. 아베는 주춤하면서 속으로 하필이면 내가 제일 못하는 공부를 먼저 묻는가 하고 당황한 나머지 엉겁결에 “네, 반에서 일등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래! 답임은 누구신가?” 라고 교수는 물었다. 아베는 어색한 표정을 짓다가 약간 풀이 죽은 목소리로 ○○선생님 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교수는 전화번호부에서 답임의 전화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아베 학생의 답임이십니까?” 하고 물으니 맞는다고 대답하였다. “아베의 학업 성적이 반에서 일등이라는데 사실입니까?” 하고 물으니 “정 반대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교수는 힘이 수화기를 놓으면서 약간 불쾌한 빛으로 아베를 바라보며 “너 공부는 안하고 쓸데없는 장난만 하느냐”고 나무라면서 “1등 하지 않는한 내딸을 만날수 없다.”고 못박아 말한뒤 나가라고 명하였다. 아베 학생은 복도위에 서들은 풀잎처럼 고개를 숙이고 힘없이 뒷걸음질을 쳐서 방문을 나왔다. 등에는 진땀이 흐르고 발은 후들 후들 떨리어 비틀 걸음으로 정신없이 대문을 나와 크게 한숨을 쉬었다. 허황된 꿈과 만용으로 수모만 당한 자신을 꾸짖으며 발길을 집으로 돌리었다. 한걸음 한걸음 발을 옮기면서 이 수모를 만회할 길은 없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방법은 단 하나 1등을 하는 것이다. 라고 결심하였다. 아베는 집으로 돌아와 굶고 긴 못을 한개 구해다가 책상 한 복판에 굳게

박아 놓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책 상머리를 뜨지 않고 공부만 하였다. 깊은 밤에 졸음이 와서 고개가 떨어지면 못에 이마가 부딪혀 별이 번쩍이고 잠이 깨달아난다. 이렇게 1년을 계속하니 성적이 올라 전학년에서 1등이 되었다. 아베는 자신을 갓었다. 당당한 걸음으로 여학생의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울리니 역시 교수가 문을 열어준다. 아베를 본 교수는 짐짓 놀라는 표정으로, “작년에 왔던 그 학생 잊지도 않고 또 왔네.” 하며 자못 빈정대는 투로 인사겸 말을 하고 안으로 안내한다. 교수는 속으로 “이 녀석이 무슨짓을 할려고 또 왔나.” 하며 아베를 살피었다. 그러나 아베는 당당한 모습이었다. 교수는 아베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왔느냐고”고……. 아베는 “1등을 했습니다.”라고 담담하게 대답하였다. 교수는 속으로 “그럴 수가 있나”라고 의아해 하면서 “담임한테 확인해도 괜찮으냐.”고 물었다. 아베는 자신있게 “네”하고 대답했다. 전화를 걸어 확인하니 담임이 하는말이 “반에서 1등이 아니라 전학년에서 1등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교수는 안색을 밝은색으로 바꾸며 1등 하게된 경위를 물었다. 교수는 그 굳은 의지에 감동되었는지 흐뭇해 하면서 “내 딸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즉석에서 허락 하였다. 아베는 교수의 문하생이 되기 위하여 와세다 대학을 입학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그럴듯한 사연이지만 그리 쉬운일은 아니다. 누구나 할수 있겠지만 아무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와신상담(臥薪嘗膽)할수 있는 굳은 의지를 소유한자만이 가능한 것이다. 젊었을 때는

어떠한 일에 한번쯤은 용기를 내어 의지를 시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속담에 “초년 고생은 돈을 주고 사렸다.”는 말이 있다. 초년 고생 그것이 바로 계기가 될수 있는 것이다.

이혼가정은 문제아의 산실이다.

옛날에 우리나라 가정은 대가족 제도이라서 노인과 젊은이의 아이들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노인은 경륜을 가지고 가족을 다스리고 교육을 시켰으며, 젊은이는 부지런히 일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어린이들은 어른을 본받아 학문과 예절을 배우고 익히었다. 특히 근세에 와서 유교적 관념에서 효(孝)에 대한 사상이 교육의 근본이 되어 가정에서의 화합과 질서는 철저히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부터 세계가 한 집안이 되어 문물이 교환되고 생활방식이 서양의 것과 절충되어서 순수한 우리의 것은 찾아 보기 힘들다. 외래문명 중에서 청소년 문제를 가장 많이 야기 시키는 요인은 이혼이다. 이혼은 한 가정의 파탄을 의미한다. 부모의 철저한 개인주의 때문에 무고한 어린이가 고아가 된다. 부모 어느 한쪽이 양육한다. 해도 그 어린이는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만다. 선진국일수록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혼 부모의 자녀와 미혼모의 아이들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초보 단계에 있고 미혼모는 표면상으로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다고 하나 이것도 몇해 안가서 보편화 될것이 분명하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하였다. 사랑이 없으면 메마르고 포악해지기 쉽다. 엄마의 사랑이 다르고 아버지의 사랑이 다르다. 어느 한쪽의 사랑만 받으면 정신적 기형아가 된다. 떳떳치 못한 부모를 가지면 심리적인 열등감을 갖게 된다. 심리적 열등감은 변태적인 행동을 자아 내기 쉽다. 변태적인 행동은 바로 문제인 것이다. 선진 문명이 다 훌륭한 것은 아니다. 체질에 맞는 것이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있다. 선별없이 무턱대고 선구자인양 모방하는 것은 역작용이 일어나기 쉽다. 역작용이 일어나는것 그것이 바로 문제인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참고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더냐는듯이 깨끗이 지워진다. 그 순간을 못

참고 감정이 격화되어 아이들 보는 앞에서 서슴없이 이혼이라는 말이 튀어나오고 잘하면 도장들고 가정 법원으로 달려가니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어린이는 무엇을 생각 했겠는가? 이혼 이전에 자식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죄없는 아이에게 죄를 만들어 주어서는 안된다.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몇가지 살펴 보았지만 청소년의 문제는 문제에 앞서 성인들이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성인들이 청소년의 문제를 만들어 놓고 청소년만 나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이다. 윗물을 깨끗이 해서 아랫물을 맑게 해 주어야 한다. 세계 청소년의 해를 맞이하여 모든 성인은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危氣를 克服하는 七氣

七氣라고 하면 勇氣, 霸氣, 生氣, 聽氣, 傲氣, 義氣, 靈氣이다.

이 일곱가지 氣란 말을 서양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래서 서양사람들은 氣는 東洋것이어서 무엇으로 說明이 不可能하여 氣의 힘 (Power of Kie)으로 說明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Kie”로 쓴다는 것이다.

氣와 運은 언제나 함께 다닌다. 氣가 살아야 運도 산다. 그래서 氣運이란 말이 생겨난 것이다.

【事務局】

先進祖國의 創造

우리로 하여금 오랜동안 “나”
만을 알고 나만의 영예를 追求하
면서도 부끄러워 할 줄 몰랐던 지
난날의 改替分化現象을 씻어내고
協力과 和合融和 그리고 相扶相助
하는 共同体意識의 소중함을 깨우
치게 하는 데에도 새마을 運動은
큰 몫을 해 왔다.



새마을運動 中央本部 平澤郡支會
事務局長 趙 榮 行

先進祖國 創造를 기하기 爲한 새마
을 運動은 잘살아 보자는 本質的인
生存慾求를 次元變化的으로 이룩해 가
자는 우리의 다짐이며, 一時的인 運動
도 아니요 또한 우리 當代만의 運動
도 아니다.

다시말해서 새마을 運動은 온 國民
이 主體가 되어 어디에서나 지속적으
로 펴나가는 잘살기 運動이고 우리 國
民 모두가 目標指向的으로 前進해가는
發展運動이라고 할 수 있다.

發展指向的인 運動대열에서 列外人의
立場에 설 理由가 없고 또한 다함께
잘 살아 가자는데 同意를 거부할 理
由도 없다. 왜냐하면 그 어느 種類의
運動이 되었던간에 國民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보다 나은 國民生活의 여건
을 이룩해 가자는 慾求가 담겨져 있
기 때문이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目的으로 시
작한 새마을運動은 오늘날 民主主義의
定着化, 福祉社會의 實現, 그리고 正義
社會의 具現等 近代化의 理念을 追求
하기 爲하여 새사람, 새家庭, 새社會, 새
나라 그리고 새 歷史를 創造하는 綜

합적인 社會開發 모형으로 深化發展 시켜왔다. 過去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얻은 새마을運動의 本質을 보면 첫째는 勤勉, 自助, 協同을 기반으로 하는 精神開發이고 둘째는 가난을 극복하기 爲한 近代化의 實踐的 行動哲學이며, 세째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국난의 타개를 爲한 온 國民의 대약진運動이고, 네째는 先進化 歷史의 단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새마을運動의 本質을 설정한다면 새마을運動의 理念은 近代化의 理想으로서 福祉・平等의 理念과 正義社會具現이며 安保의 理念과 韓民族의 主體的 理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오랜동안 「나」만을 알고 나만의 영예를 追求하면서도 부끄러워 할 줄 몰랐던 지난날의 改替 分化現象을 씻어 내고 協力과 和合融和 그리고 相扶相助하는 共同體意識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하는 데에도 새마을運動은 큰 몫을 해왔다.

이와같은 자각의 힘을 온 國民들이 저나름대로 生産活動 現場에서 生活하게 함으로써 地域社會 單位의 自立度 向上에도 놀라운 기여를 해왔다.

그래서 우리의 傳來的인 都富村貧의 不均衡과 農工格差에서 오는 各種 社會問題를 解決하는데 주역을 맡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같이 새마을運動 지속화의 結果로부터 얻어낸 수확은 우리나라 農漁村이 住民主體型의 自力開發形式에 의하여 發展 礎石을 다지게 되었다는 점과 모든 住民들이 내손으로 建設한다는 이른바 可能國民象을 스스로 定立하였고 한때는 農村家計 收入이 都市 勤勞者의 收入水準을 앞지르는 結果를 창출해냄으로써 農村住民들 가슴속에 高水準의 可能性이 하나의 自信感形態로 정착하게 되었다는 事實을 손꼽을 수 있다.

생각컨대, 앞으로 새마을運動의 重點課題는 農漁村을 비롯하여 相對的인 낙후지역을 振興시켜 地域의 文化的 對等化條件을 形成한다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새마을運動의 基本哲學은 理論이 뒷바침되는 事實의 創造와 知識이 미치는데까지 行動이 뒤따른다는 적극적인 生活자세로 일관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 運動은 經驗을 통한 先進意識의 形成이 되어야하나 돌이켜 보면 住民大衆의 理解不足에서 오는 비협조 또는 참여기피 現象으로 險山峻嶺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새마을精神이 그 定義야 어떤 形態로 받아지던간에 온 國民이 「하면된다」는 굳은 信念과 새것을 찾아가는 合理的인 도전의 연속으로 先進社會를 向하여 달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未來속에서 무한한 可能性을 發見하기 爲하여 未來와 未定과 未知 이른바 「三未」에 積極 도전하는 意志와 勞力과 확산을 뚜렷이 해주었다.

이러한 기반위에서 우리는 내마을 내地域 내 祖國의 運命을 改善하기 爲하여 올바른 생각, 올바른 言語, 그리고 이의 行動化, 生活化, 습관화, 人格化에 힘써 잘살고 福된 내일을 가꾸어 世界속의 韓國으로 成長發展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86 '88의 世界올림픽을 開催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費用이 약 40 억불이라 한다. 이렇게 貴重하고도 막중한 費用을 消費하면서 開催하게 된것은 현시점에서 分析해 볼때 오늘날의 外債問題, 農村經濟問題, 生計保障問題, 福祉問題, 平和的 統一 構想問題等 여러가지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當面問題가 산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올림픽을 유치한 理由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外交, 國防等 國力伸張을 爲한 계기의 마련과 온 國民에게 希望과 勇氣를 鼓吹 시키므로써 國民和合을 가져온다는 점, 그리고 五千年의 우리의 傳統과 美風良俗 및 國民의 勤勉性和 誠實성을 보이므로써 우리의 지위를 向上시킬 수 있다는 점등 많은 要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온 國民이 念願하는 가장 重要하고도 根本적인 原因

은 '88 올림픽을 계기로 잘사는 先進 祖國創造를 爲한 전환점이 되고자 하는데 있다.

現在 先進祖國을 創造하는데 改善하지 않으면 안될 事項은 秩序意識, 예의바른 國民, 正直性, 親切, 奉仕의인 입장에서 先驅者的 役割 正義社會具現等이다. 이를 爲하여 우리는 이를 國民運動으로 改善 向上시켜 祖國의 均衡發展을 새마을運動으로 展開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展開는 먼데있는 것도 아니요 또 큰 것도 아닌 가까운 나 自身과 내 周邊에 있는 작은데서 부터 實現해 나가야 한다. 다시말해서 어린이들에게 공부한후의 정리 정돈과 신을 벗은후의 정리 정돈같은 작은데서 부터 하나 하나 實現해 나가는 意識을 심어 주어야 한다.

우리는 韓國의 참다운 主人이 되기 위해 내 가슴에 불을 붙여 내가 먼저 展開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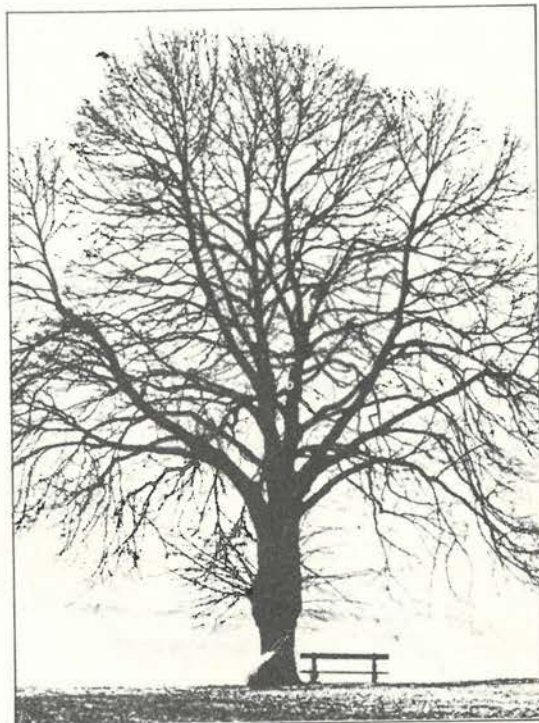
우리 韓民族은 어떠한 民族이며 어떻게 살아오면서 歷史를 創造해 왔는가? 歷史를 通해 들어난 民族의 意志와 念願은 무엇이었으며 國民性的의 長點과 脆弱性이 무엇인가? 그동안 배양된 民族의 潛在力은 어떠한가 등의 歷史的 事實들을 銳意 검토하고 앞으로 우리 民族의 번영과 先進祖國 創造를 위해 우리 國民들은 어떻게 살

아가야 할 것인가의 歷史意識을 바탕으로 해서 方向이 模索되어야 하며 우리 民族이 살아온 過去의 傳統성과 지금 살고 있는 現在의 利益 그리고 未來의 前進이라고하는 세가지 側面에서 國民의 위치와 役割認識의 토대위에서 國民精神 統合과 提高에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80年代에 위대한 先進祖國을 創造하기 爲해서, 우리는 첫째 韓國人으로서의 民族的 正體感이 定立되어야 하며, 둘째는 愛國愛族하고 精神과 國民性이 함양되어야 하고, 세째는 民主福祉國家建設과 世界人類平和의 幸福에 기여할 수 있는 國民育성과 行動方向으로 實踐해 가는 새마을 意識이 이룩되어야 한다.

새마을 意識이란 새마을運動에 關聯된 일에 對한 認知狀態라고 할 수 있으며 새마을運動에 對한 確固한 觀念과 透徹한 信念의 表現이며 새마을意識이 確固하게 形成되므로써 새마을運動 實踐에 自身の 위치와 役割이 무엇인가를 認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勤勉精神, 自助精神, 協同精神이 高揚됨으로서 새마을運動은 成功할 것이다.

위대한 民族은 위대한 思想을 갖는다는 말과 같이 人間은 강한 意志력과 信念이 있어야 하며 소신과 自信감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우리는 世界속의 韓國으로 부상시킬 수 있으며 世界에서 가장 잘 사는 福祉國家建設로 先進祖國을 創造하여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던 平和統一大業을 앞당겨 성취시켜 後孫들에게 統一의 遺産을 넘겨주어 福된 文化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우리 온 國民은 強認한 意志로 統一과 번영을 위한 國運개척의 大行進에 선봉이 되어 國家보위와 國力배양에 총 매진하여야 될 現實일 뿐이다.

靜庵 조광조先生의 生涯와 政治思想

「平沢郡誌」第9篇 古蹟, 民俗, 伝説, 第2章 遺蹟(P.920)을 보면 靜庵 先生의 忠節기록을 볼 수 있다. 先生은 幼年時 지금의 松炭市 二忠里 盤芝山 동쪽에서 生長하였다 하나 현재 남은 것은 없고 다만 발로 경작되고 있을 뿐이다.

그는 性理學者 김좌필의 문하에서 수학했고 大司憲 등을 지냈으며, 己卯 士禍로 賜死 되었으나 후에 英의정에 追贈되었다. 울곡은 靜庵등을 가리켜 東方四賢으로 숭배해왔다. (편집자. 註)

韓國 文化院 聯合會
會長 姜 周 鎭

1. 性理學者의 道學政治思想

靜庵先生의 政治思想은 곧 天性에 따르는 治道를 말한다. 모든 性理學者들의 政治思想이 그러하듯이, 靜庵先生도 그 政治思想에 있어서는 天道天理에 따르는 道學政治思想을 가졌다.

요즈음 政治思想과 같이 經濟的 問題가 主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 世上에 天道가 實踐되는 社會를 目標로 삼은 것이 性理學者들의 政治思想이므로, 靜庵先生도 이러한 道學政治思想을 가졌다. 이 道學政治思想은 곧 天命思想에서 오는 것이다.

政治는 원래 인간이 하는 것이나 인간의 恣意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天命에 따라서 하는 政治를 天命政治思想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天命에 의해서 선정된 政治的 指導者가 天命에 따라, 天命에 의해 행해지는 政治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天命政治思想은 孔孟이래로 唱道된 것이다. 이러한 儒敎政治思想이 크게 발전한 것은 程朱이후에 속한다.

程子·朱子思想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이 高麗중기 이후이며, 朱子政治哲學이 처음 主論된 것이 高麗末 圃隱 鄭夢周 이후에 속한다. 그리하여 高麗末, 朝鮮初에 새로운 理念下에 易姓革命이 이루어져서 高麗는 망하고 朝鮮이 들어서게 된다.

이무렵부터 儒敎政治思想에 劃期的인 기록이 생기기 시작했다. 鄭道傳의 法治主義思想이 그것이요, 大司憲 閔開의 國家의 基本方策에 대한 10개조의 疏文이 이러한 것이고 또 尹紹宗의 理論이 이러한 것들이다. 三峯 鄭道傳은 李太祖에게 〈唐人之用法5條〉를 올렸는데 여기보면 다음과 같다.

- 一曰 教養 成 其才德
- 一曰 選舉 取 其秀出
- 一曰 銓注 當 其職任
- 一曰 考課 覈 其功過
- 一曰 黜陟 示 其懲勸

이러한 政治思想은 물론 唐나라 《貞觀政要》라는 儒敎政治誦本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겠지만, 이러한 政治思想이 기본이 되어 朝鮮時代의 儒敎政治가 개막되게 된 것이다. 이어서 大司憲으로 있던 閔開는 다음과 같은 10개조의 進言을 李太祖에게 올렸던 것이다. 즉,

- 一曰 立紀綱
- 二曰 明賞罰
- 三曰 親君子 遠小人
- 四曰 納諫諍
- 五曰 杜讒言
- 六曰 戒逸欲
- 七曰 崇節儉
- 八曰 斥宦臣
- 九曰 汰僧尼
- 十曰 嚴宮闈

閔開의 思想이나 鄭道傳의 思想도 儒敎政治思想의 代表的 理論의 하나이지만, 이보다 積極的인 理論을 우리는 尹紹宗의 思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尹紹宗은 時事를 陳疏하는 글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皇天生民而不能使之 各得其所必命聖人爲之·君以代治之故 位曰 天位 民曰 天民而 設官 分職 別代天工也 本朝之制 中書則 有 令侍中 平章參政 政堂 五者法 天之五星也 樞密則 天之北斗也 至於百官 莫不皆然 雖即官之微亦皆上應列宿故名 器官爵非人君之 自有乃天之所有 而人君代設之 者也 人君不可以名器爲己之私有而 妄與之即人臣亦不可不量其才德而敢居之也」

라고 말하여 政治는 天政이고 人事도 天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어서 주장하기를,

「養天民者興 殘天民者亡 是以人主愛天命而主

天位則必上順天心以養天民如父母之愛 赤子然後 民心附而天命固焉」

또 말하기를,

「秦 以忠諫者爲妖言而禁之 至有指鹿爲馬而莫有言者 故得天下 二世而亡 自漢迄元 言路開則治 言路閉則亂 且亡」

이라고 해서, 言論의 自由도 이미 國初에서부터 강조했던 것이다.

이러한 思想이 朝鮮時代가 들어서면서부터 주장되었기에 朝鮮朝가 儒敎國家가 된 것이고, 또 建國理念이 확고해진 것이었다. 이 思想은 世宗朝에 와서 크게 伸張되었으며, 集賢殿도 이러한 理念下에서 設立되었고 集賢殿學者들은 이러한 儒敎政治가 더욱 發展되도록 하는 中心勢力이었다. 國初 性理學者의 政治思想이나 集賢殿學士들의 政治思想은 그대로 靜庵 趙光祖先生에게로 이어졌다.

諫言을 容納하고 言路를 열어야 한다는 것은 즉 公論으로 政事를 決定해야 된다는 것이니 公論政治야말로 朝鮮時代의 士林政治의 특색이다.

靜庵先生은 公論政治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言路之通塞 最關於國 通則治安 塞則亂亡 故人君務廣言路 上自公卿執百事下至閭巷市井之民俾 皆得言然 無言責則不得自盡 故 溪諫官以主之 其所言 雖或過當而皆虛懷容者 恐 言路之或塞也」

靜庵先生의 思想은 그대로 鄭道傳, 閔開, 尹紹宗의 思想을 계승했던 것이다.

이러한 靜庵先生의 公論政治思想은 그대로 高峰 奇大升先生에게도 傳授된 듯 高峰先生의 《論思錄》에 보면 다음과 같은 理論이 展開되고 있다. 즉

「言路於國家大矣 言路開則國家安 言路塞則國家危」라고 했다. 이 道學政治思想의 公論政治論은 性理學者의 共通된 政治理論이다. 그리하여 公論政治는 士林政治이며 士林政治는 士流政治이며 士流政治는 士氣를 길러서 士論을 일으키어 그 士論에 따르는 政治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

2. 静庵의 道学政治思想

朝鮮時代의 時代思想이라고 하면 역시 性理學이요 儒敎思想이다. 儒敎는 朝鮮時代의 國敎로서 王道政治를 펴는데 儒敎思想이 그 統治理念이었다. 이와 같이 性理學의 系統上 静庵先生은 매우 重要한 位置에 있다. 즉, 朝鮮時代의 性理學은 圃隱 鄭夢周를 起點으로 해서 治隱 吉再, 江湖 金叔滋, 佔畢齋 金宗直, 寒喧堂 金宏弼을 통해서 静庵先生에게로 이어졌고, 静庵先生은 다시 退溪 李滉, 休庵 白仁傑, 聽松 成守琛, 服齋 奇遵 등을 거쳐서 牛溪 成渾, 栗谷 李珥, 高峰 奇大升 등을 통해서 李朝士林과 性理學의 大宗·大海를 이루었으니, 참으로 重要位置에 있는 분이며 性理學을 道學思想으로 轉換시킨 張本人이 바로 静庵先生이다.

宋代性理學이 우리나라에 傳授된 이후 高麗末, 朝鮮初에는 辭章學으로 기울어졌고, 寒喧堂先生의 小學研究로 해서 비로소 性理學이 道學思想으로 轉換되는 契機가 되었으며, 静庵先生을 통해서 爲己學과 修己學이 至治主義思想으로 發展하였으니 静庵先生이야말로 朝鮮朝의 道學中興之祖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静庵先生의 道學思想이 잘 表現되고 있는 것이 바로 先生의 〈謁聖試策〉이라는 글이다. 즉,

「所以 治國者 道而已 所謂 道者 率性之謂也 蓋性無不有故 道無不在 大而禮樂刑政 小而制度文爲不假 人力之爲 而莫不各有 當然之理 是乃古今帝王所共由爲 治而充塞 大地貫徹 古今而實未嘗 外乎吾心之內循之則 國治失之則國亂 不可須臾之可離也 是以使 其此道之休慝 然於心目之間 不敢有 須臾之 不明也」

이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政治 즉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道 뿐이라고 한 것이며, 이 道는 天性에 따르는 것을 말한 것이다. 天性이 없는 곳이 없으니 道는 따라서 있게 되는 것이다. 이 道는 크게는 禮樂刑政에도 있고, 작게는 制度和 文物에 있는 것이므로 모든 政治는 반드시 性에 따르는 道에 立脚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道學政治를 해야 하지만, 모든

政治는 반드시 사람의 힘을 빌어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아무리 天理나 天性이 道가 있다 하더라도 그 道는 사람의 힘과 마음을 통해서, 사람에게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政治를 하는 사람이 항상 道에 立脚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静庵先生은 같은 〈謁聖試策〉에서 또 말씀하기를,

「夫道也者本乎 天而依之於人行之於事爲之間以爲治國方也라.」

이를 풀어서 말하면, 道라는 것은 天性에 根本하였으되, 사람에게 의지하고 事物을 처리하는 사이에 행해지면 그것이 곧 治國의 方法 즉 政治가 된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의지해서 天道가 행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天性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静庵先生은 또 말하기를,

「…然而所謂心 所謂道者未嘗不一於 其間而千萬人事之雖殊而其道心之所 以爲一者天本一理而已 故以其天下之道導 與我爲一之人以 共天下之心 感與我爲一之心感之而化其心則天下之心化於吾心之正莫敢不一於正導之而導於吾道則天下之人善於吾道之大莫敢不歸於善顧吾之道與心試未誠如何而治亂分矣…」라고 하였다.

이를 풀어서 말하면,

“마음과 道는 처음부터 하나가 아닌 것이 없으며 그 사이에 있는 천만가지 일과 사람이 비록 다르나, 모두 그 道나 그 마음은 하나가 되는 것이니, 이는 天理는 根本의으로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天下之道와 같이 갈 수 있는 道로 나를 인도하여 하나로 삼고, 天下之心과 같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로 삼아서, 이러한 마음으로 感動시키고 感化시키면 天下의 마음도 내마음의 정당함에 感化되어서 감히 그 정당함에 같이 아니할 수가 없을 것이며, 이를 인도하여 내 道에 인도하면 天下의 사람들은 내 道의 큼을 옳하게 여겨 감히 옳한 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돌아보면, 나의 道와 마음이 誠實하나 誠實치 못하느냐에

따라서 政治의 잘 다스려짐과 어지러워짐이 구별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靜庵先生은 天下之道와 인간의 마음을 일치되게 하여 道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사람의 마음이 道에 합치되도록 되어야 하며, 道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천하 백성들을 감화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감동·감화 시키는데 있어서는 성심·성의로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대략 이와 같은 것이 靜庵先生의 政治思想이요, 또 道學政治思想의 요점이다. 여기서 다시 靜庵先生의 道學政治思想의 기본을 말하자면,

1. 道學을 崇尚한 것이고
2. 人心을 天性에 맞도록 바로잡는 것이며
3. 聖賢의 法을 따라서 행동하고 法을 제정하고
4. 至治政治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至治政治가 이룩되면 堯舜時代와 같은 道義國家 내지 德治政治가 이룩된다는 것이 靜庵先生의 政治의 理想이요 目標였다. 즉,

崇 道學
正 人心
法 聖賢
興 至治

이 四大基本目標가 곧 靜庵先生의 至治의 目標요 人生의 使命이요 出仕의 實務였다.

3. 道學의 至治主義思想

靜庵先生이 侍講官으로 있을 때 進啓를 여러 번 올렸는데, 그 第6次啓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이것은 先生의 政治의 理想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學者以聖賢爲期未必卽至聖賢之域 人主以唐虞三代爲期未必卽致唐虞三代之治然立志如此而用功於格致誠正則漸至於聖賢之域堯舜之治矣若徒驚高遠而不下実功則日趨浮虛之地而已…」

“學者가 聖賢의 경지에 도달되는 것은 아니며, 君主가 唐虞三代(堯舜禹)의 政治를 목표로 한다고 해도 반드시 唐虞三代之 政治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뜻을 이러한데 세우고 格物致知와 誠意正心에 專念한다면, 점점

聖賢의 경지에 이르고 堯의 政治가 이루어지겠지만, 만약 헛되이 뜻을 高遠한데 두고 實質의 인 공부를 착실히 하지 않는다면 날로 虛妄한 곳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면, 靜庵先生은 政治의 理想을 至治主義政治에 두었고, 그 理想鄉을 堯舜禹三代之 聖賢政治에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至治主義思想이 곧 道學思想이요, 이 理想을 달성하는 方法論이 곧 道學이니 先生의 政治思想은 곧 道學政治思想이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서 靜庵先生은 君德을 논하고 賢君政治論을 주장했다. 당시의 政治狀況이나 時代的 思潮가 君主政治였기 때문에 당면과제로 君主政治를 否認하는 政治理論을 내세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君主政治를 인정하되 賢君政治와 文化政治를 원칙으로 하는 思想을 전개하였다. 君主의 德을 주장한 것이 이것이다.

君主의 德이 이루어지면,

「人主於義利公私辨不可不明審也苟能知義利公私之辨而不惑焉則内外修而心地清是非好惡皆得其正而至於處事接物無不當矣」

라고 했다.

이 말은 <參贊官時啓四>의 글인데 이 글을 풀이하면,

“君主는 義利公私를 분명히 살필 수가 있어야 하는데 君德이 닦아지면 이것을 능히 할 수가 있으며 이렇게 되면 모든 일에 현혹됨이 없다. 그리하여 内外가 잘 닦아지고 心地가 맑아지면 是非好惡이 모두 그 정당함을 얻을 것이라고 했으며, 事物을 처리하고 接함에 정당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고 했다.

이렇게 靜庵先生은 中宗大王의 君德을 닦게 하려고 晝夜로 講論하고 啓言을 올려서 賢君政治를 펴서 堯舜時代의 理想鄉을 성취하려다가 그만 간신배의 모함으로 禍를 당한 것이었다.

이렇게 賢君政治와 文化政治를 주장하였지만, 靜庵先生은 또한 君主가 賢君이 아닌 경우도 생각하였다.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先生은 大抵 政治는 大臣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參

贊官으로 있으면서 三次啓言을 올릴 때 한 말이다. 「...大抵國事須大臣爲之也」라는 말이 이것이다.

그러나, 主權이 君王에 있고 政治는 大臣들이 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게 된다. 여기에 輔弼이란 문제가 생기고 君主에 賢君·愚君·暴君 등의 문제가 생기고, 大臣中에도 君子와 小人의 문제가 생기고 賢君奸臣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여기서 다 논할 수는 없지만, 靜庵先生의 政治思想에는

① 天·君·人의 一致思想을 가졌으니 이는 현대의 人權思想과 相通하는 사상을 가졌고

② 民本思想을 가졌으니 近代民主主義思想도 先生의 思想에 이미 뿌리가 박혀 있으며

③ 近代民主政治思想의 기본이 되는 立憲民主國家思想을 그 당시에 主張하였으니 先生의 思想은 고루한 專制君主主義思想이 아닌 賢人政治思想을 가졌고

④ 立法, 糾察, 執行의 三權分立思想을 가졌으니 얼마나 合理的인 思想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다.

영진약국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 46-7

전화 : 52-2331~3

民世 · 安在鴻先生

本郡 古德面 杜陵里 611-3番地에는 일제때 민족운동가, 언론인, 사학자로 또 8.15 해방 후에는 정치인으로 현대 한국사에 잊지 못할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民世 安在鴻(1891~1965)의 생가가 있다. 이 집은 행랑이 잘 갖추지고 규모있는 사랑채와 기와로 고친 기둥과 석가래가 견실한 안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民世는 1891년 12월 30일 순흥안씨 윤섭공과 남양홍씨 간의 8남매중 2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이곳에서 1907년 평택의 사립「진흥의숙」에 입학했다가 다시 수원외기독교계 사립학교로 옮기게 되는 17세까지 한문수학을 했다. 현재는 두째 자제 民用씨(작고)의 부인 박갑인(청북면 어연국교) 여사가 1남2녀를 출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으며, 친족으로 안건용(서울대 농대) 교수가 있다.

(편집자.註)

民世 安在鴻은 1947년 2월 10일 미군정의 행정권 이양을 전제로 한, 남조선 과도정부의 수반인 민정장관에 취임했다. 파란과 혼돈의 해방정국에서 한국인으로서의 미군정의 으뜸가는 자리를 차지하기까지 그의 정치적 역정은 방황과 암중모색, 그리고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呂運亨과 더불어 建國準備委의 제 2인자로 참여 했으나 건준이 좌경화되자 울분을 터뜨리며 곧 탈퇴했다. 이어 李承晩과의 협력을 모색했으나 좌절, 독자적인 민족통합의 중간노선을 지향하고 국민당을 결성했다. 한때 임정의 金九와 손을 잡고 한독당과 합당 했으나 그후 미군정의 적극적인 뒷받침 아래 左右合作에의 참여를 계기로 시국관을 달리하는 金九와도 결별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정부의 군정지침이 급선회, 金九, 李承晩등 老혁명가를 제거하고 일제하에 서도 변절하지 않았던 국내 민족지도자로 하여금 점진적인 행정권의 이양을 전제로 완전독립을 위한 과도정부를 구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 적임자로서 安在鴻이 민정장관에 발탁된 것이다.

그러나 安在鴻은 명실공히 그가 수임했던 권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극우

와 극좌세력을 배제하고, 통일민주정부 수립을 성취하려던 그의 노력은 도로에 그치고 말았다.

民世의 민정장관 취임 이후에도 미군정의 실질적 권력은 경찰권을 독점하다시피 한 趙炳玉 경무부장등 한민당 세력의 수중에 쥐어져 있었다. 좌우합작을 추진하는 김규식, 안재홍 등은 趙炳玉 경무부장을 갈아치우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하지중장의 趙炳玉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 앞에 번번히 허사에 그치고 말았다.

李承晚, 金九 등을 제거하려던 미군정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겉으로 중립을 표방하는 김성수, 조병옥 등이 주도하던 한민당으로 하여금 이승만에게 집권의 길을 터주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안재홍이 이처럼 무력하고 우유부단했던 것은 그가 강직온후한 인품과 탁월한 식견의 소유자이면서도 권모의 책략과는 담을 쌓은 선비적 기질 때문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는 1891년 경기도 평택에서 양반계층에 속하는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린시절부터 총명함과 착한 성품으로 주위의 촉망을 모았던 그는 일찌기 신문에 뜻을 두어 일본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경학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귀국 후 중앙중학교 학감 등을 역임하는 한편, 기독교 청년회 교육부 간사로서 청소년들에게 애국사상을 고취하고 신학문을 보급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한편 탁월한 신문인으로서 『時代日報』 주필, 『조선일보』 주필, 발행인 등을 역임하면서 독립운동에 헌신, 전후 아홉번에 걸쳐 7년 3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그처럼 해방 전까지의 안재홍은 국내에서 일제의 탄압과 회유를 끝내 거부하고 교육자로서, 또 신문인이요.

사학자로서,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으로 일관한 으뜸가는 민족지도자의 한분이었다. 그는 평소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고 온후한 성격에 근면과 성실 일변도의 고지식한 개성이 철저했다는 것이 정평이다. 다만 해방정국에서는 권모술수에 능한 정치인만이 살아 남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안재홍의 비극은 어찌면 그의 독특한 개성이 빛어낸 것이 아니었는가 여겨진다.

그러나 비록 그는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격동하는 과도기의 희생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그가 남긴 정치적 발자취와 업적은 팔목할 만한 일면도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그의 정치적 이념은 그가 집필, 간행

한 『新民族主義와 新民主義』라는 소책자에 담겨져 있다. 그가 끊임없이 주장한 신민족주의란 '민족자존의 생활협동체요, 국제협조의 선의의 분담자로서 민족국가의 全국제사의 行程과 全국제정치의 연관에서 創成行進해야 한다'는 표현속에 집약되어 있다.

간단히 풀이하면 신민족주의는 국수주의적 고립과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아닌, 국제적인 유대와 우방국가와의 제휴속에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한다는 데 있었다.

그는 해방 후에 국제정치가 제국주의시대를 청산하고 국제협조와 제휴의 조류에 따라 흐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우리의 독립을 성취케하려는 책임감과 열의에 찬 우방이라고 확신했다. 그가 좌우합작 노선의 주역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미군정의 민정장관직을 수락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특히 신탁통치안에 대해서는 일단 美·蘇 협조하에 통일임시과도정부를 수립한 후에 신탁문제는 민족자결원칙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극우와 극좌를 배제하고, 온건파, 민족진영의 주도하에 통일과도정부를 세우지 않으면 분단의 비극을 막을 수 없다고 부르짖어 왔다.

한편 그의 신민주주의란 계급을 초월해서 어떠한 형태의 억압·착취·독재도 배제하는 사회기반 위에 민족통합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소박한 민주사회주의적인 이념이라고 해석된다. 그것은 그것은 親美·反共·保守의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는 이념 체계였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그의 정치적 주장은 이른바 중간파 중간노선이라는 낙인이 찍혀 극좌·극우의 양쪽으로부터 가차없는 몰매를 맞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지는 결과를 낳게 했다.

그가 혼돈의 해방정국에서 국제정세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선경지명이 뚜렷한 극소수 정치인의 하나였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안재홍은 해방 후 오늘날까지 중간파나 중간노선이란 언제나 발붙일 터전이 없다는 단순 흑백논리가 판을 치는 한국적 정치현실을 실감케 하는 선례로서, 광복 이후의 정치사에 餘限의 章을 남기고 말았다.

한편 그가 1946년 좌익계 신문이 독무대를 이루다시피 했던 당시에 『漢城日報』를 창간하여 그가 남북되기 직 전까지 민족진영이 단결과 대한민국의

민주발전을 촉구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의 필요를 휘둘렀던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김구 등의 남북협상 배경과 민정장관 재직시 가차없는 좌익소탕 정책의 추진등 그의 반공에의 기여는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다.

마침내 그는 1950년 제2대 국회에 진출하여 2년만에 정계 재진출을 실현한 직후 6.25의 참변을 맞아 남북을 당하고 14년간의 적하 불모생활의 고초 끝에 1965년 3월 1일 타계하고 말았다.

그가 교육가요, 언론가요, 또 독립지사로서 다채로운 경력을 통하여 온갖 간난신고를 겪었고 신념의 정치가로 추앙을 받기도 했지만, 것처럼 시대적 희생자로 참혹한 비극의 생애를 마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적 정치풍토

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모와 책략을 구사할 줄을 몰랐다는 데에 근본원인이 있었다는 것은 다시 말할 나위가 없다.

[관계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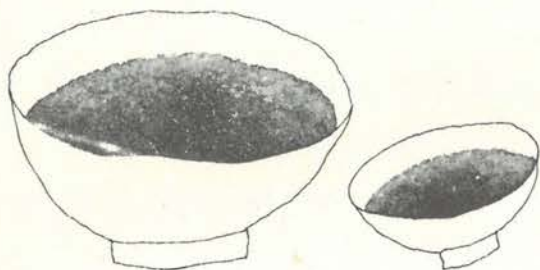
- 柳光烈 「安在鴻」 『東光』 1932년 7월호
 任洪彬 「安在鴻論」 『정경연구』 1976년 11월호
 李庭植 「구성 : 민세 安在鴻의 자서전」 『신동아』 1976년 11월호
 千寬宇 「민세 安在鴻 연보」 『창작과 비평』 1978년 겨울호
 安在鴻선집간행위원회 『민세 安在鴻선집』 I, II권 지식산업사
 宋建鎬 「安在鴻」 『한국현대인물사론』 한길사 1984
 鄭允在 『安在鴻의 정치사상연구 : 그의 신민족주의론을 중심으로』 서울대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1

동 구 상 사

전화 ② 5700

조 중 환

敬老孝親과 靑少年의 善導



金 鍾 華

前 平澤郡誌編纂委員會
執 筆 委 員

우리 祖國은 東方의 禮儀之國이라고 稱하였다. 그 中에서도 忠孝의 思想은 國民精神의 基盤이 되었던 것이다. 勿論 그 時代에는 農耕生活로 因한 家族制度가 이루어져서 自然的으로 家庭生活自體에서 父慈子孝하고 兄友弟恭하는 上下間의 禮節이 重要視되였던 것이다. 儒敎와 佛敎文化의 影響을 받아 國民倫理인 五倫의 精神은 全 國民의 敎育의 根本이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祖上님들은 國民倫理가 確立되었고 그것을 皆國民的으로 敎育을 시켰으며 家庭에서는 父母님들이 率先垂範 孝道의 生活을 實踐하여 왔으며 國家 社會에서는 孝子, 孝婦, 烈女들에게 旌表와 旌門 等の 表彰과 아울러 祿을 주었고 儒林에서는 主로 敬老孝親 思想의 昂揚을 爲하여 많은 努力을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雰圍氣속에서 孝道의 生活이 全 國民的으로 이루어졌으리라고 思料되는 것이다.

오늘에 있어서는 國家理念이 明確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며 敬老孝親에 對한 敎育도 微弱한 편이며

“孝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孔子는 第一 잘사는 길이 효도하는 것이며 孝는 自行의 根本이라고 하였다.”

産業의 發展으로 因한 核家族制度로 變遷되면서 또한 物質萬能의 個人主義 思想으로 敬老孝親의 家庭示範이 實踐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며 國家社會에서도 孝子나 그 家門에 對한 表彰이나 褒償制度도 微弱한 것이라 하겠다. 敬老孝親에 對한 國家的으로 具體的인 制度와 實踐方案이 絶實히 要請되는 것이다.

孝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孔子는 第一 잘사는 길이 孝道하는 것이며 孝는 百行의 根本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孝道하는 것이 가장 福을 받는 길이며 모든 行動이 家庭에서나 學校나 職場에서나 惡을 모르는 善한 人間으로서 萬民에게서 稱讚을 받는 立場에서 恒常 父母님을 기쁘게 해 들이는 것이 孝道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 百行之本人 孝道を 함에 있어 強調되어야 할 몇가지가 있는 것이다.

1. 우선 孝道에 對한 價値觀을 確立한다는 것이다. 孝道하면 가장 큰 福

을 받고 不孝하면 가장 무서운 刑罰을 받는다는 것을 認識시켜야 하는 것이다. 儒敎에서는 三千刑屬中에 不孝의 罪가 가장 무겁다고 했으며 基督教에서는 십계명에 「孝道하라」고 하였으며 「孝道하는 자가 가장 많은 祝福을 받으리라」하였으며 「父母를 저주하고」「치는者는 죽으리라」하였다. 이와 같이 幸福感和 罪意識을 強調하여 各自가 確固한 孝道の 뜻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다.

2. 品行이 正直 誠實하고 和合하는 人格의 所有者로서 自己의 本分을 다하며 他人과 相扶相助하는 品位있는 人間이 되도록 努力하는 것이다. 自己自身의 人間性이 좋지 않고서야 孝道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3. 父母님께 恒常 感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孝經에는 「신체 발부는 父母에게서 받았으니 身體를 상하지 않게 함은 孝의 처음이요 善을 行하고 立身揚名하여 後世에 父母를 빛내게 하는 것은 孝의 마지막이라」하였다. 佛敎의 父母恩重經에는 「끊임없이 베푸시

“내 아들이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यो 네 목의 금사슬 이니라”

는 어버이 恩惠는 갚지도 못하고 돌
아가시니 슬프기만 하다」고 하였다.
석가모니는 「父母를 王位에 오르게 하
여도 그 恩惠를 갚았다고 할 수 없
다」고 하였다. 父母님께서 태어나서 나
를 기르시고 가르쳐 주시며 世上을 떠
나시는 날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높고
도 넓은 父母님의 恩德을 恒時 想起
시켜 感謝를 드리는 것이다.

4. 孝는 理論이나 形式이 아니요 父
母가 率先垂範하는 生活모습으로 子息
이 보고 들을 수 있는 生活環境을 助
成하며 子息을 따뜻한 愛情으로 對하
는 家庭生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5. 父母는 누구나가 完全無缺한 人格
의 所有者가 아닌 것이니 舜임금이
완고한 자기 아버지와 미련하기 짝이
없는 자기 어머니에게 한결같이 孝道
를 베풀어 원만한 家庭을 이룩한 것
을 본받아서 自己의 父母님들이 財産
이나 學識이나 地位나 性格에 결함이
있더라도 他父母와의 比較評價하며 不
平不滿을 말지며 自己父母님의 恩德에
無條件 感謝하며 孝道하는 것이다. 聖

經에는 「내 아들이 네 아버지의 훈계
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
요 네 목의 금사슬이니라」하였다.

6. 敬老孝親의 倫理와 禮節이 現實에
알맞게 制定되어 啓蒙實踐케 할 것이
다. 儒敎에서는 父母님에 對하는 言行
에 있어서 言行은 恭遜하며, 父母님께
서 善하게 하신것은 恒常 記憶하고
不忘하며, 미워해도 원망치 않으며,
過誤가 있어도 諫하되 逆하지 않으며,
매질을 하여도 원망치 않으며, 함께 거
처함에는 恭敬하고, 奉養함에는 즐겁게
해들이고, 病이 들면 至極히 걱정하여
治療에 努力하며, 死함에 哀痛하며, 葬
地는 誠意를 다하며, 祭祀는 엄숙하게
하라,고 하였다.(童蒙必習)

7. 내 父母와 같이 남의 父母도 尊
敬하는 慈悲 無我的 心性으로 生活化
하는 것이다. 聖經에 「며느리들이여
시부모님을 잘 섬기라. 내 어머니도 남
이 섬기지 않는가」하였다. 시부모도
親父母와 같이 잘 모시라는 며느리
의 立場을 強調한 것이다.

“財産이나 學識이나 地位나 性格에 결함이
있더라도 他父母와 比較評價하며 不平不滿을
말지며 自己父母님의 思德에 無條件 感謝하며...”

8. 孝는 成人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고 孝는 곧 現實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때 그때의 瞬間을 眞實하게 生活하여 父母님을 기쁘게 해 들이는 것이다. 父母가 健全하실 때는 뜻을 받들어 立身 揚名할지며 父母가 老後 衰弱하면 同居하며 奉養하는 風潮를 기르는 것이다.

9. 敬老孝親은 靑少年에 局限된 것이 아니고 누구나가 父母가 되고 老人이 되는 것이니 舉國民的으로 關心을 갖어야 한다는 것이다.

10. 敬老孝親思想은 家庭에서는 父母님들이 子女에게 早期教育을 通하여 實踐케 하고 學校에서는 段階的으로 合利的인 教材가 이루어져서 幼稚園, 初中, 高, 大學에 이르기까지 徹底한 教

育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特히 女性教育은 더욱 強調되어야 할 것이다.

11. 敬老孝親의 思想을 勸獎하는 意圖에서 學校, 社會團體, 國家에서는 孝道가 篤實한 者에 對하여 格別한 遇待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學校進學이나 職場 就業 等에도 孝道하는 者가 優先權을 갖어야 하는 制度가 있어야 한다고 思料되는 것이다. 그리고 儒林團體나 國家에서는 孝道하는 者에게 淸眞한 褒償이 있어야 하며 不孝子에 對한 應分의 措處도 考慮되어야 된다고 思料된다.

敬老孝親의 精神은 現在 成人들의 示範이 없고 具體的인 倫理가 없이 全國家的인 教育이 없이는 뜻을 꾀울 수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신 윤 수 (申崙秀)

대한석탄광지원협회 청북면 어연리 (사무국장 신윤수 향우)의 복지기관 지원사업 일환으로서 평택소재 「동방아동복지회」에 매월 금일봉식의 지원금을 기탁하는데 서명하였습니다.



金銀寶貨만이 貴重한 장식품은 아니다. 불품없는 엽전을 손을 보아 만든 것이 우리 조상들의 숨씨이며 이것이 바로 別錢인 것이다.

別錢은 대부분 文字로 되어 있거나 기화, 요초로 構成되어 있다. 朝鮮時代의 엽전에는 通錢과 別錢의 두 種類가 있었으며 通錢은 소위 엽전이라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常平通寶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別錢은 常平通寶를 본따 만든 것으로 그 모양과 種類가 많아 수백종에 이르고 있다.

別錢은 中國에서 전해져 제작된 듯하다. 高句麗 古墳에서도 出土된 六朝時代의 五銖錢과 新羅·百濟時代의 古墳에서도 隋五銖錢이 出土된 바 있다. 또 高麗時代 松都부근에서 宋元代의 別錢이 出土되는 것으로 보아 이미 中國에서는 일찍부터 別錢이 鑄造된 것으로 짐작된다.

朝鮮時代 別錢은 仁祖時代 이후에 製作되다가 常平通寶가 鑄造된 肅宗年代

이후에 더욱 본격적으로 製作된 듯하다. 別錢은 常平通寶를 본따 만들었으며 그 原形은 常平通寶가 주가 된다.

別錢은 이러한 常平通寶의 모양을 따서 別錢으로 서의 必要한 글귀 즉 日月星辰등을 새겨 넣고 그 이면에는 圖形을 새겨 넣기도 하고 더러는 民牌라 하여 이면에 아무 것도 새겨 넣지 않은 민짜도 있다. 別錢은 이와 같이 엽전의 모양을 판것이 있는가 하면 엽전의 모양과는 아주 다른 別錢도 있다.

왜 別錢은 만들어 졌는가? 그것을 무엇에다 사용하였는가에 대하여서는 사람마다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첫째로 通貨로서 사용하지 않았다.

둘째로 평소 希求, 念願 등을 別錢에 나타내어 그것을 지니고 다님으로써 소원을 이룩하려 하였다.

셋째로 당시의 우리民族 鑄造技術 감각과 조형감각을 엿볼 수 있다.

네째로 別錢의 글귀, 도형을 통하여 우리民族의 宗教思想과 時代性을 엿볼 수 있다.

別錢에 담겨진 글귀와 吉祥을 意味하는 圖形을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宇宙自然：七星，天三甲木地八乙木，山川，天地 日月星辰

儒教 및 忠孝思想：仁義禮智，星辰，仁義禮智兩曜重明，禮儀廉恥山川，月下仙人 太極圖，八卦圖，四神八卦圖，二十八宿十二支將圖，忠孝德家，衣冠維世，孝悌忠信日月，東宮萬歲，嬪宮萬歲，聖壽萬歲

萬壽無疆壽富多男，富貴忠孝，

佛教：卍字，四手佛圖，

吉祥：雙鹿圖，李花圖，竹圖，雙鳥雙蝶圖，雙鯉圖，老松

念願：壽福康寧，富貴多男，子孫昌盛山川，子孫昌盛，萬壽如意 吾子登科 吉祥，壽福多男，太平安樂，壽富榮貴，長宜子孫，多男，富海，太平始意，壽山富海 鶴壽龜年，壽福多男，性戲圖，등을 아로새겨 넣었으며 그 모양도 다종다양 하다. 둥근모양，八角，四角，사각중첩형과 꽃잎，표주박，당초문(唐草文)，식물모양，붕어，나비，부엉이，龍鳳형 등의 동물모양과 부채，주머니 등의 人工物 齣자 모양이 있다.

文字는 楷書와 篆書의 두 種類를 이루며 비록 文字의 字數는 몇자 안 되지만 글씨 모양이 아름답고 重要한 느낌을 주고 있다.

別錢에 새겨진 各種 圖形은 傳統的인 무늬를 아로새겨 創意性 있게 凸線刻으로 나타내어 지루함이 없고 圖形과 文字가 어울려 別錢으로서의 彫形性을 加一層 높여주고 있다.

특히 別錢에 表現된 童子像을 위시하여 人物들의 彫刻은 살이 두터운 浮彫로서 큰덩어리 만을 表現한 것이지만 세부의 모양까지 연상케 하는 아주 水準높은 작품들 이다.

또한 彫刻의 본질인 量感은 물론 運動도 가볍고 유연하게 表現되어 있다. [事務局]

내 고 장 傳 說

第 1 節 概 說

우리 고장의 傳說是 참으로 많은데 역사적 고증과 그렇다 할 記錄物이 없고 다만 희미한 口傳만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郡誌가 約 50 年만 앞서 發刊되었다면 口傳만 아닌 確實한 考證이 많았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한 관계로 部落名의 由來로부터 古刹의 創建이라든지 古城址에 서린 사연이라든지 各種 戰亂으로 인한 史實이라든지 老樹, 怪岩에 對한 由來라든지 孝子·孝婦·烈女에 對한 行蹟들이 때로는 어렴풋이 傳說과 같이 傳해 지는 것이 遺憾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一例를 들면 靑北面一帶에서 林慶業將軍의 傳說이 내려 온 것은 뚜렷한 考證은 없으나 무엇인가 그 당시 林將軍과 인연이 깊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돌부처에 영긴 傳說과 女子들의 바람나는 傳說이 여러곳에서 傳하여 오고 있는 데 그 공통된 傳說의 내면을 파헤쳐 보고 싶은 궁금증이 많다.

이러한 傳說들중 民話속에 잠겨 있는 것을 이번에 캐내어 記錄하여 둔다.

第 2 節 傳 說

(1) 民 話

「아산이 무너지나, 평택이 깨지나」

이 說話는 <朴鍾和지음 回顧錄>에 “歷史는 흐르는 데, 靑山은 없네”(三慶出版社)에 따르면 淸日戰爭을 치르면서 생명의 불안과 나라를 걱정하는 불행의 절규에서 유래되었다 한다.

1894 년부터 1895 년까지 청나라와 일본사이에 벌어진 戰爭 때 1894 年(甲午年) 7 月 15 日 새벽에 日本海軍과 淸國水軍은 牙山灣에서 서로 충돌하여 접전을 하다가 청군이 패했다. 淸軍은 牙山 백사포에 진을 치고, 日軍은 平澤에 진을 쳤다.

1894 年 7 月 19 일에는 청군과 일본육전대가 소사벌에서 격전을 하다가 淸兵이 또 대패했다. 그리하여 7 月 21 일에는 淸日 두나라가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淸日戰爭이 터지자 양반계급들은 붓짐을 싸고 금은보화를 말에 싣고 十勝之地를 찾아 가는

피난길에 급급하였으나 權力도 돈도 없는 농민과 서민들은 나라가 어지러워진 꼴을 보고 기가 막혔다.

전쟁의 공포와 悲歎 속에 하늘을 쳐다보고 곁곁 웃으며 막걸리 추렴을 해가며 절망속에서 고향을 치며 울부짖었다.

“아산이 무너지나, 평택이 깨지나” 이 고장 백성들의 기막힌 원망스런 푸념에서 나왔다고 했다.

아산이란 아산에 진을 치고 있는 淸軍을 말함이고 평택이란 평택에 진을 치고있는 日軍을 말함이다.

牙山の 백사포에는 원세개가 인솔하는 淸軍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어느모로 보나 淸國軍隊에게 마음속으로 후원을 하였다. 그런데 淸軍은 그 부근의 부락민에게 많은 被害를 주었다. 부녀자를 희롱하고 가축을 약탈하는 등으로 오히려 부락민에게 배신을 당했다. 그렇다고 오랜동안 적개심에 쌓인 日軍을 두둔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보편적으로 兩國이 戰爭을 할 때에는 한편은 이기고 한편은 지라고 마음속으로라도 원하는 것이 人之常情이거늘 그 當時의 우리 國民의 心情으로는 어느편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산이 무너져서 망하던지 평택이 깨져서 망하던지 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나온 원망스럽고 처량한 귀절이라고 생각한다.

둘이다 망하던지 말던지 될대로 되 보라는 뜻이다.

(3) 은행나무

所在地：平澤郡 梧城面 鶴峴 2里

鶴峴리에 있는 郡나무인 은행나무는 높이가 29 m, 둘레가 8.5 m로서 다음과 같은 傳說이 내려 오고 있다.

때는 고려 明宗 때로서 유난히도 조정이 문란했다.

民心이 흉흉하고, 농민들이 탐관오리의 수탈을 견디다 못해 대지주의 소작 농노로 전락하거나 유랑민이 되어 도처로 방황할 시기였다.

이때 한 젊은 스님이 이 학현리 成氏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다 한다.

三面이 바다로 둘러 싸인 이 마을은 바깥의 정세와는 달리 대 여섯채의 초가가 옹기종기 모여서 풍악이 없어도 춤을 추는 듯한 아늑한 자연속에 순박한 사람들이 사는 조그마한 마을이었다.

삿갓으로 얼굴을 가린 이 흥안의 스님은 世俗의 슬픔을 지닌 듯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 보

다가 학의 모양을 지닌 신비스런 이 마을의 地勢를 바라보면서, 두 손 모아 합장을 하여 「이 곳이 바로 부처님께서 나의 苦行을 시험하시는 곳이라」 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학의 머리 되는 곳을 응시하는 것이 었다.

그날 밤 스님은 이 마을에 홀로 사는 과부의 집에서 우연히도 하루밤을 쉬어 가게 되었다. 이 과부는 젊은 나이에 홀로 된 烈女였다.

주위에서는 여인의 얼굴이 너무 고아서 팔자가 세다는 등 뒷 이야기도 있지만 지조가 있고 정숙한 女人으로서 굳굳히 숙명을 이겨 나가는 정숙한 女人이 었다.

그날 밤 단칸 방에서 치마로 칸막이를 하고 기나긴 밤을 지내게 되자 젊은 스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번민속에 자신을 극기해야만 하던중 급기야는 칸막이로 해 놓은 치마선을 넘어 고히 잠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뵈없이 바라보다가 순간 뚫어 오르는 욕정을 참으려고 佛陀의 세계를 그려보려 애썼고, 百八번뇌의 상징이기도한 염주알을 급히 굴리며 눈을 감고 부처님을 그려 보려고도 안간힘을 다해 보았으나 스님은 끝내 염주알을 굴리지 못하고 고이 잠든 여인의 몸에 손을 대게 되었는데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 앉으며 의연히 꾸짖어 이르되 「뚱바로 앉으시오」, 「내가 10여년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면서도 일찌기 이런 부도덕한 일이 없었거늘………」 하며 크게 꾸짖었다고 한다.

그 순간 스님은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하며 「내가 이 학교개를 넘어 오며 이 마을에 凡人이 아닌 인물이 있음을 알았거늘………」 그 이후 스님은 학마을 복판에서 목욕·재배하고 苦行을 하였으나 끝내 마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스님을 측은히 여겨 죽은 자리에 은행나무를 심어 주었고, 「純潔, 優雅」를 뜻하는 학교개에서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女人이 男便을 그리워 하며 조용히 그리고 참되게 일생을 살아 갔다고 한다.

지금은 수백년이나 묵은 고목이 되어 이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로서 사랑받고 있으며 마을 한 가운데에 우뚝 솟아 학교개의 교훈을 되새기고 있다.

(4) 흥풍을 점치는 은행나무

所在地：平澤郡 振城面 東泉里 536

振城面 東泉里에 살기 좋고 인심후한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 있는 신비의 老巨樹인 은행나무는 많은 전설이 전해 지고 있다.

이 은행나무의 수령은 약 500내지 600년 정도의 것으로 나무가지의 넓이는 20m이며 둘레는 9m이고 나무의 높이는 25m로서 천연기념물로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은행나무

이다.

이 은행나무는 약 100년전부터 희귀종이며 天然記念物인 백로와 왜가리가 날아와 서식하고 있는 데 이상하게도 매년 음력 정월 보름이면 100여마리가 날아와 서식하고 가을이면 그 동안 낳은 새끼와 합하여 약 300마리의 백로떼가 되어 돌아 간다.

특히, 이상한 일의 하나는 백로가 이곳 東泉里 은행나무에 찾아 오는날과 가을이 되어 돌아 가는 날이 틀림없이 毎年 정확하다는 사실이다.

또 한가지는 이곳 동천리에 백로가 서식한 후로는 백로 식구가 느는만큼 이 마을이 부촌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며 이 마을에는 좋은 경사만이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은행나무는 신비의 은행나무로 추앙되고 사랑받고 있다.

또 이 은행나무가 전하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음해 농사의 흥풍을 신묘하게 점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인즉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때 나무 전체가 하루 이틀 사이에 노랗게 물들면은 그 다음해의 농사는 풍년이들고 그렇지 않고 단풍드는 일자가 한달 정도 걸쳐서 들게 되면 그 다음해의 농사는 가뭄이나 천재지변으로 흉년이 든다는 전설이 있으며 이 전설은 잘 적중된다고 한다.

그런데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은행나무의 생육상태가 최근에는 전과 같지 않아 마을 주민과 군인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어서빨리 생육상태가 호전되기를 두 손 모아 빌고 있다.

(5) 全義李氏와 伏巢穴

平澤郡 浦升面 新榮里 沙角洞(색각골)에는 全義 李氏와의 墓地에 따르는 風水說이 열킨 傳說이 오늘날까지 傳해오고 있다.

只今으로부터 約 320年前에 李朝 顯宗 5年甲辰(서기 1664年) 李瑾(全義人)이 67세를 一期로 世上을 떠나 그의 아들 3兄弟 長男先天 2男明天 3男後天이라 했다. 父親의 忠告를 당한 아들 3兄弟는 隣近의 有名한 地師(知官)를 모시고 墓地를 選擇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地師의 말인즉 이곳이 有名한 伏巢穴로 大地盤이다. 이곳에 先親의 萬年幽宅의 吉地로 하되 이곳을 파면 岩盤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 岩石을 그대로 두고 屍身을 安葬케 하라! 그리고 下官時間은 쇠갓을 쓴 사람이 지나간 다음이 바로 定時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두 아들, 즉 큰아들 先天과 2男인 明天 등은 어찌 父親의 屍身을 차가운 岩盤에다 埋葬할 수 있는가 하고 더 파서 그 岩石을 除去하여 埋葬토록 하자 固執하며 더 파 내려갈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3男인 後天은 地師의 말대로 따르자는 등 욕심각심하다가 기여히 두兄의 意見에

지고 말았는데, 岩盤을 깨트리고 더 파기 始作할 무렵 果然 오색안개가 솟아나더니 한 마리의 鶴이 날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상주는 勿論, 山役꾼들도 地官의 有名함을 感嘆하였다 한다.

그러나 道理없이 葬禮를 모시는 데 青天한 날씨가 무슨 造化인지 갑자기 天地를 分別할 수 없이 짙은 안개가 덮여와서 모였던 사람들이 슬렁이고 있을 때, 때마침 늦가을 벼베는 논으로 밭을 내가는 아낙네가 국 그릇이 식을 것을 念慮하여 솥뚜껑을 덮고 下棺하는 곳을 지나가는 지라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했다. 과연 地官의 主見이 하나도 틀림없어 맞았다 한다. 그리고 날씨도 도로 清明하여 젖고 하니 下棺時는 定時로 보나 岩石을 깨트린 것은 3兄弟 모두 크게 후회하였다고 한다.

그 후 그의 長男과 2男 등은 子孫들이 없고 다만 3男인 後天만이 子孫을 두어 그의 孫等이 지금도 이고장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며, 이곳을 평이 알을 품은 伏巢穴이라 하는 風水說이 있다. 그 山勢는 癸坐向이라고 하며 西海바다를 向한 位置에 있다.

(6) 七兄弟 바위

位置：平澤郡 浦升面 遠井里(虎岩부락)

平平하게 丘陵진 山麓에 마치 사람의 形狀을 한 怪石 7個가 나란히 整立하고 있는데 이곳을 7兄弟를 낳은 바위라고 한다.

只今으로부터 約 120 餘年前 卽 李朝時代인 哲宗末期에 膝下에 子孫이 없어 매우 고민하던 忠淸道 瑞山땅 讓寧大君 16代孫인 承照公에게 현몽하기를 “네가 子孫이 없어 매우 서러워하는 데 지금으로부터 내가 啓示하는 곳으로 가서 百日致誠을 하면 곧 子孫을 얻으리라” 하고 그곳 虎岩山麓의 7個바위를 가르쳐 줌으로 그는 꿈대로 그 곳에 致誠을 드렸다. 그후 婦人에게서는 바로 胎氣가 있게되어 果然 아들 7兄弟를 차례로 두었다 한다.

그런데 그아들 모두가 氣骨이 壯大하고 또한 그 힘이 項羽壯士로 이름을 떨쳤다고 하며 承照公은 아들들의 至極한 孝心으로 80의 壽를 누리고 世上을 떠났다. 그는 아들에게 遺言하기를 내가 世上을 하직하거던 바로 이곳 7兄弟바위 上端에 물어달라 하였다 한다.

只今도 그의 무덤이 7兄弟바위 上端에 있으며 그후 子孫一家들이 30 餘戶나 繁昌하여 이 고장에 傳說을 實存으로 證言하고 있다.

(7) 아홉 무더기

所在地：松炭邑 西井 5 里, 店村部落에서 東北쪽으로 약 500 m쯤 가면 一名 아리랑고개가 있다. 이 고개에는 돈 많은 富者가 살고 있었다.

그中 子孫이 없는 30代 夫婦가 살고 있었고 집 앞에는 現在 農水로 利用하는 샘이 있는데 이 부자집은 이 샘물을 사용하였다.(깊이 1.3m 3坪)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죽고 젊은 여자만 남게 되었다.

이 젊은 여자가 개가를 하여 남편을 맞아 들었다.

그런데 맞아 들인 남자는 죽고 무슨 곡절인지 맞아들이면 죽고 하여 아홉 남자가 죽었다.

이 팔자사나운 여자는 다시 열 번째 남편을 맞아 들었다. 이번에는 이 여자가 죽고 열번째 남편은 죽은 여자의 財産을 상속 받아서 큰 富者가 되었다고 한다.

10번째 남편은 죽은 여자를 위하여 극진히 장례식을 거행하고 아홉 남편의 아홉 무덤의 아래쪽에 묻어 주었다.

그 후에 財産과 집을 팔아서 다른 고장으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지금도 아리랑고개에는 집 터가 있고 샘이 있고, 9개의 남자의 무덤이 있고 한 여자의 무덤이 있다.

상석도 있었으나 日帝時代에 日本人이 사용하고 나서 해방직후에 주민이 깨어 버렸다.

복 없는 女子 때문에 생긴 9 무덤은 아홉무더기라 불리우며 이 애절한 傳説은 지금도 전해 내려 오고 있다.

(8) 엄나무와 돌부처

所在地: 平澤邑 芝制 3里, 마을 뒤로 20m쯤 올라 가면 4그루의 엄나무가 있다. 약 100여년생으로 불만한 것 3그루와 50년생 1그루가 있다.

이 나무들 2m 앞에는 높이 1m의 돌부처가 1개 있는데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 앞에는 무덤이 하나 있는데, 누구의 무덤인지 확실히 모른다. 「약 몇 10년전까지만 해도 이 엄나무 혹은 돌 부처를 건드리면 아랫 마을의 여자들이 옷을 벗고 춤을 추며 이 산을 향해 올라 온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이 여자들을 바람난 여자라고 부른다.

바람난 여자들 때문에 속을 썩여온 사람들이 엄나무와 돌부처를 건드리지 않기로 약속하고 지냈다. 몇 10년전에 어떤 대사가 이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돌부처 앞의 무덤을 파헤쳐 보았다. 무엇인가 기대를 하였으나 시체밖에 나온 것이 없었다. 대사는 부처와 나무에게 정성을 드린후에 돌아갔는데 돌아가면서 “이 나무와 돌 부처를 건드리지 마시오”하였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엄나무와 돌 부처는 존재하고 모든 나무를 벌목하여 팔았으나 바람나는 여자들을 걱정하여 이 엄나무는 보존하고 있다.

(9) 색시구비 웅덩이

所在地：平澤郡 西炭面 檜花里 (해정마을)

檜花里 하단부 하천에 색시구비란 웅덩이가 있다. 현재는 제방이 축조되고 하천정비가 되어 있어 그 흔적은 없어 졌으나 10여년 전만 해도 냇물의 깊이가 장정의 길반(2.5 m) 정도 깊었으며 내 곁에 웅덩이가 있는 데 이 웅덩이는 아무리 한발이 계속되어도 물이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이 냉기가 있어 삼복더위에도 물속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찼다. 15년 전만 해도 나룻배가 있어 오가는 길손을 건너 주었다고 한다.

색시구비란 전설은 옛날 조혼하던 시절 9살의 신랑에게 16살의 처녀가 시집을 오게 되었다.

신방을 꾸민 첫날밤 9살의 신랑이 오줌을 싸고 신부가 오줌을 싼다고 부모에게 고해 바쳤다. 시어머니의 꾸중을 크게 듣고 억울하고 동리가 창피한 가운데 오일째 새벽에 신랑이 오줌을 또 싸고 새색씨가 오줌을 싼다고 부모에게 고해 바쳤다.

시부모는 새색시가 야뇨증이 있는 환자로 단정하고 내일 친정집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였다.

새색시는 억울하다고 시부모에게 신랑이 오줌을 싼다고 변명하였으나 새색시의 억울함은 시부모에게 반영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신랑이 오줌을 싼다고 하면 자식이 바보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이다.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신부는 죽음으로 결백을 보여주리라 생각하고 새벽 색시구비웅덩이에 투신자살하였다.

이후 매년 색시구비웅덩이나 냇물에서 8, 9세의 어린아이들이 익사하여 주민들은 새 색시의 원혼이 잡아 갔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며 익사자가 있을 때마다 전설의 이야기를 하곤 한다.

(10) 龍우물의 傳說

古德面 餘染里에 있던 이 샘은至今은 韓獨牧場이 들어서면서 그 흔적이 희미하다. 直徑 約 3 m에 깊이 約 3 m가 되는 이 우물에는 李适의 아버지 墓를 파헤치는 데 龍이 나왔다는 傳說이 담겨져 있다.

宣祖, 仁祖를 거쳐 武臣으로서 平安道兵馬節度使 兼 副元帥까지 지낸 李适은 朝政에 不滿을 품고 反亂을 일으켜 都城을 유린하고 南進하다가 張晩이 거느린 官軍과 길마재에서 決戰하다가 참패 당하고 利川으로 도망하던 中에 部下 李益猷 李守伯 等에게 참살되었다. 이리하여 3日天下를 한 李适의 亂이라 이른다.

口傳된 바에 의하면 李适이 蕉童時節에 방개울 李進士宅에 使童으로 있었다. 忠直하고 영

민했던 李 适은 李進士의 귀여움을 받았었다. 老境에 든 李進士는 어느날 來訪한 地官과 對話를 하는 것을 엿들었는데 餘染里에 名堂이 있어 그곳에 닭알을 묻으면 닭이 해를 치며 울 정도로 영험이 있다. 그러니 그곳을 試驗하여 보자는 데 合意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이제 李适은 잦싸게 삶은 닭알을 준비 하고 있었다. 李進士는 李 适의 所行은 알길없이 생 닭알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며 1行은 名堂자리를 찾아가게 되었고 李進士가 시키는 대로 닭알을 묻으라고 할 때 李 适은 생닭알 대신 삶은 닭알을 묻었으니 닭소리가 날리가 없다. 허탕을 친 1行은 허전하게 돌아가고 말았다.

영특한 李适은 밤에 몰래 그곳을 찾아가 생 닭알을 파묻어 보니 과연 닭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일이 있은 후 李 适은 出世街道를 달리게 되었고 自己父親의 墓所를 그곳에 썼다고 한다.

反亂을 일으켜 3日天下를 누리던 李 适은 죽으니 역적의 父親墓를 그냥둘리 없다. 墓를 파헤치니 이때 샘으로 통한 물이 나왔고 龍이 나왔는데 만일 成足이 다된 龍이었다면 李 适이 3日天下가 아닌 大權을 잡았을 것이라고 傳하여 내려오고 있다.

(11) 풍구곡 (풍무굴)

松炭邑 芝山 5里에는 李朝 때 이 마을에는 蘇氏가 많이 살고 있었다. 蘇氏가 나라를 뒤엎기 위하여 여기서 무기를 몰래 만들었다는 유래가 있다.

蘇氏 家門에 有名한 며느리가 있었는데 소씨들이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計劃을 꾸미자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벼 3말을 찢어 쌀 3말 3되가 나오면 반란을 일으키라고 말했으나 벼 3말을 찢어 쌀 3말 3되가 나오지 않아 반란에 실패했다는 전설이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12) 총 각 돌

平澤郡 梧城面 宿城里 (大潮頭)에는 옷우물 (옷이 오른 사람이 목욕을 하면 옷이 낫는 다는 우물)이 있다. 현재는 없지만 거기에는 돌이 매장되었다고 한다.

50여년 전에 어떤 부인의 꿈에 계속해서 어떤 돌이 나타나 우물 밖으로 나오고 싶다고 하여 이 부인은 꿈 이야기를 마을 사람에게 얘기해서 이 돌을 꺼내어 청룡뿔에 세워 두었다. 이 돌은 사람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이 돌의 전면 방향에 있는 마을의 처녀들이 바람이 많이 나 이 돌로 인하여 부락끼리 분쟁이 나기도 하였다. 때문에 총각돌이라고 이름 부쳤다고 한다.(現在는 당거리 방향이다)

(13) 한봉산 민담

平澤郡 梧城面 金谷里에는 한봉산이 있다. 한봉산 아래마을 쇠누리에는 조씨집안에 벼슬을 하던 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한봉산을 지나가려면 말에서 내려 지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발굽이 떨어지지않아 못 지나갔다는 전설이 내려 오고 있다.

(14) 청룡뿌리산

소재지 : 평택군 포승면 만호리

천년 묵은 이무기가 도를 닦고 청룡이되려 하지만 천지신명은 이무기에게 어려운 수련과정을 겪게 한다. 그것은 인간에게 세번 도전하여 한번이라도 참다운 신의와 믿음을 얻어야 청룡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을 준 것이다. 이무기는 준수한 도령으로 변신하여 어여쁜 부인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지만 끝내 실패하고 부인은 다른 남자와 눈이맞아 도망을 친다. 그래도 이무기는 실망하지 않고 이번에는 미모의 각시로 변신하여 방랑하는 개평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헌신하지만 개평꾼 역시 각시의 청을 묵살하여 버린다. 마지막으로 이무기는 부자가되어 함께 장사할 동업자를 구하는데 마침 풀한포기도 밟지 않으며 옷속의 이도 얹잡는 노승을 만난다. 간절히 동업자가되길 청하여 마침내는 동업자가 된다. 그러나 가장 믿을 만한 노스님도 재물 앞에선 못믿을 인간이었다. 이처럼 세번씩이나 인간에게서 비정함을 받은 이무기는 끝끝내 청룡이 되어 승천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한스럽게 죽어 가는데 그 이무기가 죽은 자리는 그의 형상대로 산의 모습이 되어 오늘까지 남아있는데 후세사람들은 이무기가 묻힌 산이름을 청룡뿌리라 부르고 있다.

(15) 느티나무에 얹힌 전설

平澤郡 玄德面 德睦4里에는 600년전 이 마을 孔氏가 여러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나 지금은 오직 한 그루만 남아 있다. 일제시대 왜병이 무기제작을 하려고 절단하려 하자 별안간에 천둥과 번개가 쳐서 중단하였다고 한다.

(16) 팽 나 무

彭城邑 近乃里 87番地에 위치하고 있는 이 老樹 팽나무는 수령 100年이고 樹高가 12m 둘레 2.4m로 면적 10坪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정춘근씨가 소유하고 있다.

口傳에 依하면 이 나무를 잘 위하면 부락인이 편하고 소원성취를 한다는 말이 전해 내려

온다.

역시 이 동리에 있는 또 하나의 팽나무는 樹令 150년, 樹高 15m, 둘레 2.9m로 면적 8坪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정 운섭씨 所有로 되어 있다.

이 나무로 인하여 근내리에 열녀가 나왔다는 말이 口傳되어 온다.

老樹에 서린 전설은 비단 近乃里 팽나무만은 아니다. 각 부락에서 성황나무로 모시는 나무들은 대부분 그 부락의 안정과 흥망을 가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17) 성 황 당

平澤郡 古德面 堂峴 1리에는 당집이 있는데 원 당집은 세종대왕 아들 덕원군 묘를 모실 때 그 자리가 당자리였었는데 당을 옮길 때 백마가 그 자리를 떠나 현 당자리에 와서 울어 멈추며 발을 굴렀다 하여 그 자리를 당자리로 잡았고 현재까지 당현리에서 존배하고 있다.

(18) 沒倭湫와 淸亡坪의 유래

平澤郡 上柳川里 上端部와 安城川을 中心으로 忠南 原郡 成歡邑에는 沒倭湫(몰왜보)와 淸亡坪(청망평)이라는 들이 있다. 이 두 곳의 다음과 같은 역사적 由來가 간직되어 있다.

國立地理院이 提供한 資料에 의하면 朝鮮 高宗 31년(1894) 6월 湖南 湖西의 東學교도에 의하여 東學亂이 일어나자 天津條約에 의해 淸나라의 군대와 日本군대가 각각 우리나라에 上陸케 되었고 7월 하순에는 淸日戰爭이 일어 나게 되었다.

沒倭湫는 일명 群頭湫라고도 하는 데 安城川을 막아 평야에 물을 대기 위한 것으로 淸日戰爭 당시 日本軍 大尉 松崎가 일개 중대를 이끌고 淸나라 군대와 싸우다가 이 보에서 몰살되어 沒倭湫라 부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倭軍이 沒殺한 湫라는 뜻이다.

淸亡坪은 일명 청망잇뜰이라고도 하는 큰 들판으로 淸나라 제독 葉志超가 沒倭湫에서 日本군대를 섬멸한 후 月峰山에 진을 치는 데 日本軍이 적은 군대로 북쪽 소사들판에 진을 쳐서 淸軍에게 허약한 모습을 보이게 하여 놓고 몰래 밤을 타서 대군을 몰아 淸軍을 포위한 뒤 새벽밥을 먹는 淸軍을 들이쳐서 淸軍이 크게 패하였으므로 淸軍이 亡한 坪野라 하여 淸亡坪이라 한다.

(19) 彌勒像(미륵상)

所在地: 平澤軍 彭城面 南山 1리, 어떤 時代에 建立하였는지는 未詳이다. 어느 農夫가 農牛

● 전 설

를 도둑맞고 이 彌勒^{彌勒}한테 가서 소를 찾게 해 달라고 치성을 드리니 미륵은 도둑이 끌고 간 곳을 계시하여 주어서 소는 찾았으나 도둑이 이에 앙심을 품고 彌勒像^{彌勒像}의 목을 잘라 땅에 떨어트렸는데 住民들이 목을 올려 놓으면 송화리에서 變^變이 생겼다 하며, 누가 내려 놓지 않아도 저절로 목이 떨어져 붙어 있지를 앓았다 한다.

그곳이 현재의 龍華寺인데 現在는 龍化寺에서 彌勒을 모시고 있으며 過去에는 彌勒寺 또는 彌勒谷으로 불리었다.

(20) 호랑이 비석

所在地: 平澤郡 彭城邑 南山里山 58-1, 年代 未詳으로 약 100 년 전에 세워졌다 하며 호랑이 얼굴 모습을 하고 있다. 도로변에 위치하여 원상으로 보존되어 있다.

비석이 하부가 묻혀 있어 완전확인은 불가능하다. 옛날에는 남산리 일대가 모두 숲이었고 호랑이가 많아서 국가에서 호랑이를 모두 잡은 다음 묘를 만들어주고 비석을 세웠다 한다.

그 이후 사람들이 길을 지나다 돌을 던져 호랑이의 눈을 맞추면 재수가 좋다 하여 얼마전까지만 해도 길손이 돌을 던지고 지나갔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는 눈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

(21) 총 각 상

所在地: 平澤郡 彭城邑 石峰里, 傳說에 의하면 石像을 세워두면 맞은편에 보이는 동네 娘子들이 야밤도주하여 강을건너 석봉리로 왔다 하여 그곳(현재 오성면)靑年들이 와서 석상을 파괴하였다 한다. 석상을 파괴한 사람은 즉석에서 사망하였다 한다.

해방 이전까지는 이 석상이 頭部가 제거된 채 서있었으나 경지정리 당시 흙속에 파묻혀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다.

(22) 大興堂

所在地: 平澤郡 彭城邑 石峰里, 부락에서 당제를 지내는 곳인데 傳說에 의하면 당제를 소홀이 지내면 부락이 편치 못하였다 한다. 제사가 소홀할 때는 호랑이가 나왔다 한다. 당제는 음 10월 14일 밤이다.

(23) 왜 끌동굴

所在地: 平澤郡 振威面 鳳南里瓦谷 동쪽 800 m지점

: 폭 3 m, 길이 1.5 m (현재는 붕괴되어 있음)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는 모르며 태고 때의 지진으로 생긴 굴 같이 추측되어지며 약 1.5 m 북방의 봉남리 鄉校 동쪽 500 m 옆에 있는 황새바위 밑에도 동굴이 맞닿려 있어 불을 피면 그 곳으로 연기가 나왔다는 전설이 있다. 옛날에 놀음꾼이 이곳에서 놀음을 하는 데 그들을 체포하기가 어려워 불을 피서 연기를 켜넣어 놀음꾼들이 연기로 인하여 전디다 못해 나오면 모두 체포해 갔다는 말도 들려 진다.

(24) 怪 岩 여흥바위 (장독바위)

所在地：平澤郡 彭城邑 老陽里, 장독바위라고도 불리우며 옛날에 객이 소금집을 받쳐놓고 낮잠을 자는데 아산만이 터져서 물이 들어 올 때에 그곳까지만 들어 오고 소금집은 감쪽같았다고 한다.

(25) 돌방구지

所在地：平澤郡 彭城邑 內里 128, 높이 10 m·주위 50 m 옛날에 등대로 사용하였다 한다.

(26) 붉은 부리 금광

所在地：平澤郡 浦升面 遠井7里, 길이 약 150 m 금광동굴이 있다.

(27) 퇴 봉 산

所在地：平澤郡 振威面 馬山4리에 위치한 다락산이라고 하는 이곳은 원 이름이 학이 많은 형국을 이루고있다 하여 다학산이며 제일 높은 봉을 가리켜 퇴봉산이라고 하는 데 산 위를 보면 몇 군데 데를 두른것 같이 보이며 올라가 보면 산허리를 돌아가기 쉽게 길이 나 있다. 본 부락 72세된 안 병천씨의 말에 의하면 年代는 알 수 없으나 예전에 전쟁을 할 때 지금의 하북리를 성뒤라 하였고 가곡리를 뒤성뒤라 하여 전산리 뒷성이 있었는 데 그곳과 서로 진을 치고 싸울 때 병력이 많은 것같이 보이기 위하여 산허리에 길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빙빙돌아가며 힘을 과시하였던 곳이라 한다.

(28) 墓자리 오룡

所在地：平澤郡 振威面 馬山4里 瓦谷, 안 덕상씨의 말에 의하면 마산리의 제일 장산은 마산4리에 있는 다학산인데 산의 힘이 마산1리(오룡동)쪽으로 많이 쏠려 그쪽으로 산의 명기가 뭉쳐 있고 제일 좋은 묘자리 다섯이 있다 하여 오룡굴이라 부르며, 그 중 한 자리는 마

● 전 설

산 2 리에 있는 오성대감의 증조부산소로서 현재까지도 거먹비산소라 부르고 있다.

내력은 오성대감이 어렸을 때 아버지께에 有名한 地官을 데리고 좋은 墓자리를 찾아 다니는데 현재 거먹비 산소자리를 잡아주며 이 곳에 묘를 쓰면 증손代에 가서 유명한 인물이 나올 것이라 하여 그 곳을 파보니 땅속에서 검은 비석이 나와 이 산소를 거먹비 산소라 부르게 되었고 비석의 글귀가 틀림없는 오성의 증조부였다고 한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산소를 찾았고 그 후에 이 산소의 증손인 오성이 지관의 말대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한다. 또 한자리에 한음대감의 증조부자리이며 장소는 마산 1 리인테 자리를 잘못잡은 탓인지 호랑이혈이라 하여 자손이 성묘만 오면 죽기 때문에 다른곳으로 이장하여 갔다고 한다. 또 한곳은 오좌동 최씨네 산소자리고 나머지 두곳은 서로가 여기다 저기다 하여 확실치 않다.

(29) 봉남목교

所在地：平澤郡 振威面 鳳南里，李朝 때李도령이 쉬어간 다리라 한다. 지금의 심 재후씨 조부가 공사하였다고 한다.

(30) 셋뚝거리

所在地：平澤郡 振威面 馬山里(수촌)，옛날에는 바닷물이 진위면 마산리 수촌까지 들어와 뱃사공들이 배에서 이곳에다 물건을 내려 놓고 물물교환을 했다고 한다.

(31) 옥 거 리

所在地：平澤郡 振威面 鳳南里，現 振威面 事務所 전방 200 m 지점에 縣監이 죄수들을 가두기 위하여 옥거리(지금의 작은 교도소)를 건축하였던 곳이다. 현재 부락중앙 느티나무 있는 곳이다.

(32) 마 방 집

所在地：平澤郡 振威面 鳳南里(서부)，옛날 이조말엽에 서울과 호남지방을 오가는 마부들이 이곳에 말을 매여 놓고 숙박을 했던 곳이다. (40 칸 큰집 심 우균 소유)

(33) 서문거리

所在地：平澤郡 振威面 鳳南里(동방)，옛날 유명한 무당집 이름이다. 무당들이 한곳에 집을 여러채 짓고 살았다고 하여 신방풀이라고 하였다.

◎ 북 바 위

西炭面 金岩 1里 금암동쪽에 높이 8m 둘레 15m의 「북바위」가 있다. 어느 장수가 공기 돌로 사용했다고 傳한다.

서탄면 오산천 연안에 높이 솟은 바위로서 이중으로 덮여 있으며 옛날 부근일대가 바다였을 당시, 밤중에 큰 장마로 물난리가 있을 때 이 바위에서 피하라는 신호로 북을 울렸다고 한다.

◎ 장수바위

梧城面 梁橋 5里 동네서편에 높이 3m, 둘레 5m가 되는 「장수바위」가 있다. 5兄弟峰의 둘째 봉우리 위에 林慶業장군이 앉았던 자리가 남아있다고 한다.

◎ 怪 岩

靑北面 土津 1里와 3里앞에 「怪岩」이 있는데 높이는 1.5m, 둘레는 3m이다. 土津 1리가 배의 형국이니 돛대가 있어야 한다 해서 쌓은 바위돌이다.

◎ 장수바위

靑北面 土津 2리에 높이 2.7m, 둘레 1.5m가 되는 「장수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빛이 검은데 이는 林慶業장군이 저다놓은 바위라 하며, 머리로 인 자국이 패어 있고 林將軍이 밟았다는 발자국이 두어개 나타나 있다.

◎ 개추바위

靑北面 土津 2리 개추바위가 있는데 도로변에 눈에 박힌 이 바위는 마을로 향하고 있는 데 그 방향에 따라 마을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전설이 있다.

◎ 금광동굴

浦升面 遠井 7리에 높이 2m, 둘레 6m 길이 약 150m의 「금광동굴」이 있다. 금광을 위하여 파놓은 것이라고 한다.

◎ 칠성바위

玄德面 華陽 4리 부락내에 「칠성바위」가 있는데 높이는 0.5m, 둘레 3m가 된다.

● 전 설

◎ 청 석

玄徳面 新旺里에 높이 15 m, 둘레 10 m가 되는 「청석」이 있다.

◎ 돈 두 압

所在地: 彭城邑 掉頭里 洞里入口, 處士 禹南陽은 學識과 德望이 높으신 분으로 陰陽 五行의 常識도 出衆하였다 한다. 洪翼漢이 瀋陽에서 갓은 흑독한 고문을 당하여 기진맥진하였을 때, 그의 生死가 궁금하여 禹 處士 南陽은 故鄉인 掉頭里에서 日辰을 짚어 보니 洪翼漢은 이미 死亡한 것으로 점괘가 나온지라, 禹南陽은 平素에 思慕하던 愛國者 洪翼漢을 잃은 心情은 悲痛하고 絶憤하여 掉頭里洞口 벼람 바위에 머리를 부딪쳐 자결한 곳이라고 이 바위를 掉頭岩이라 칭한다.

(34) 老樹에 서린 傳説

◎ 은행나무

平澤郡 平澤邑 碑前 6 里, 天主敎會堂뒤에 높이 15 m, 둘레 4 m, 樹齡 1250 年이되는 은행나무가 있다.

碑前 6 里에 사는 金學喆의 高증에 의하면 50 年전 日本植物學者의 判定結果 1200 年 이상 된 수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 當時의 나무는 30 m 이상이었는데 음 5월 단오날에 그네를 매고 그네놀이를 하다가 화재가 나서 나무의 상단부분이 훼손 되었다. 그전에는 벼락을 맞아 탄적도 있다고 한다.

◎ 해나무

平澤邑 芝制 3 里, 부락 중앙에 높이 20 m, 둘레 4 m, 樹齡 300 年의 「해나무」가 있는데 예전에 이 해나무가 꽃이 활짝 피고 아래에 꽃이 얹지면 물이 귀해서 아래 마을은 물을 못 대었다고 한다.

◎ 얼 나무

松炭邑 道日 3 里 하리입구에 높이 7 m, 둘레 1 m, 樹齡 500 年의 얼나무는 성황나무로서 길손들이 정성을 드리고 또 一說에는 이 도령이 이 고개를 넘어 한양을 갔다고 하며 지나는 사람들은 정성의 표시로 돌 3 개를 주어서 나무에 던졌다고 한다.

◎ 은행나무

振威面 馬山里 속 안골에 높이 25 m, 둘레 35 m, 樹齡 200 년이 되는 은행나무는 안 명치씨의 고조부 安錫中씨가 심었다고 한다.

◎ 왕소나무

彭城邑 頭1里 산7번지에 높이 11 m, 둘레 2 m, 樹齡 250 년이 되는 왕소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부락의 제일 높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부락의 수목으로 지킨나무이며 이 나무에 백 일기도를 드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傳說이다.

◎ 느티나무

朝鮮 宣祖 때 方氏 윗 어른께서 정문앞에 이 느티나무를 심어서 정문을 어울리게 했다고 한다. 나무가 잘 자라고 方氏子孫이 잘되기 위하여 나무를 심기전에 밑에다 보리씨 서말을 넣고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방 모요의 소유이며 1927 년 이 재창 군수가 25 만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현재는 어린이 놀이터와 노인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 엄 나무

松炭邑 障堂里에 높이 30 m, 둘레 10 m, 樹齡 500 년이 되는 엄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베는 사람은 벌을 받아서 죽는다는 전설이 있고 지금도 나무를 베다가 만 흔적이 있다.

◎ 향 나무

松炭邑 茅谷里 마을 중심지에 높이 15 m, 둘레 2 m, 樹齡 430 년이 되는 향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본 부락에 처음 낙향한 李憲邦이 심었다고 한다.

◎ 느티나무

松炭邑 道日里 사창이 골에 있는 높이 20 m, 둘레 2 m, 樹齡 700 년의 느티나무는 옛날 바닷물이 들어 왔을 때 이 느티나무에다 뱃줄을 묶었다 한다. 이곳의 흙은 갯벌흙이다.

◎ 향 나무

松炭邑 道日3里 하리부락에 높이 20 m, 둘레 2 m, 樹齡 200 년되는 팽나무가 있는데 部

◎ 은행나무

振威面 馬山里 속 안골에 높이 25 m, 둘레 35 m, 樹齡 200 년이 되는 은행나무는 안 명치씨의 고조부 安錫中씨가 심었다고 한다.

◎ 왕소나무

彭城邑 頭1里 산7번지에 높이 11 m, 둘레 2 m, 樹齡 250 년이되는 왕소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부락의 제일 높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부락의 수목으로 지킨나무이며 이 나무에 백 일기도를 드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傳說이다.

◎ 느티나무

朝鮮 宣祖 때 方氏 윗 어른께서 정문앞에 이 느티나무를 심어서 정문을 어울리게 했다고 한다. 나무가 잘 자라고 方氏子孫이 잘되기 위하여 나무를 심기전에 밑에다 보리씨 서말을 넣고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방 모요의 소유이며 1927 년 이 재창 군수가 25 만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현재는 어린이 놀이터와 노인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 엄 나무

松炭邑 障堂里에 높이 30 m, 둘레 10 m, 樹齡 500 년이되는 엄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베는 사람은 벌을 받아서 죽는다는 전설이 있고 지금도 나무를 베다가 만 흔적이 있다.

◎ 향 나무

松炭邑 茅谷里 마을 중심지에 높이 15 m, 둘레 2 m, 樹齡 430 년이 되는 향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본 부락에 처음 낙향한 李憲邦이 심었다고 한다.

◎ 느티나무

松炭邑 道日里 사창이 골에 있는 높이 20 m, 둘레 2 m, 樹齡 700 년의 느티나무는 옛날 바닷물이 들어 왔을 때 이 느티나무에다 뱃줄을 묶었다 한다. 이곳의 흙은 갯벌흙이다.

◎ 향 나무

松炭邑 道日3里 하리부락에 높이 20 m, 둘레 2 m, 樹齡 200 년되는 팽나무가 있는데 部

落民들이 고사떡을 가져다 놓고 소원을 기도 한다.

◎ 느티나무

古德郡 防築里에 높이 15 m, 둘레 25 m, 樹齡 150 년이 되는 느티나무가 있는 데 110 년 전 금강산에 3 인이 여행을 갔는 데 나무 3 그루를 가져다 靑北面 玉吉里에 세 나무를 다 심고 세명이 말하기를 “이 나무가 살면 우리 문중이 살고 나무가 죽으면 신변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몇 년 키우다가 2 그루는 죽고 한 그루만 살아 이곳에 옮겨 심었다.

◎ 향 나 무

古德面 坐橋 3 里 남쪽 200 m에 있는 높이 20 m, 둘레 2 m에, 樹齡 90 년이 되는 향나무가 있는 데 部落에서는 이 나무를 堂나무로 定하고 每年 堂祭를 지내고 있다 한다.

◎ 해 나 무

梧城面 宿城 2 里 마을入口에 높이 15 m, 둘레 1.5 m, 樹齡 500 년이 되는 해나무가 있는 데 옛날에 이곳에 海水가 들어오고 어업중심일때에 어선들이 출입하였을 때에 배를 매어 두는 데 이나무를 이용하였다 한다.

◎ 업 나 무

梧城面 安仲 2 里 부락 뒤편에 높이 15 m, 둘레 3 m, 樹齡 300 년이 되는 업나무가 있는 데 部落에서 定해진 堂나무인 것이다. 이 업나무 옆에는 당집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지고 이를 없었던 사람들은 벌을 받아 즉시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 참 나 무

浦升面 石井 5 里 협석중앙에 높이 25 m, 둘레 3 m가 되는 참나무가 있는 데 전에는 이 나무에게 재배하고 다니면 가정이 무사하다 하여 마을사람들은 이 나무를 지날 때면 재배하였다고 한다.

◎ 정자나무

玄德面 仁光 4 里 부락 남쪽에 높이 20 m, 둘레 3 m, 樹齡 100 년이 되는 참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성황당나무라 칭하고 매년 堂祭를 지내고 있다 한다.

霍忠祠



霍忠祠는 平澤郡 浦升面 希谷里 85의 5番地에 位置하고 있으며 京畿道 地方文化財 5號로 指定되어 있다.

忠臣水使公 李大源將軍은 高麗 神義大將軍의 5大孫이며 平澤郡 浦升面 內基里 194番地 정문동(當時 陽城懸升良洞)에서 1566年(李朝 明宗 21年) 3月 7日 出生하였다. 父親은 春芳의 長男으로 字는 浩然 本貫은 咸平이다. 태어날 때부터 크고 인상이 험상스러웠으나 부모님께 孝誠이 지극하였다. 5살 때부터 10살까지 한문공부는 물론 “대곡”이라는 산골짜기에서 매일 같이 활쏘기 칼쓰는 법등 무술을 익히는 이외에 兵法공부에 남달리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 指血詩原文

日暮轅門渡來海
兵孤勢乏此生哀

君親恩義俱無報
恨入愁雲結不開

“해 전문 진중에 바다 건너와 외로운 군사힘 다하여 끝나는 일생 슬프다. 나라와 어버이께 은혜 못 갚아 원한이 구름에 얼켜 풀릴 길 없네.”

李將軍집은 文人의 집이었는데 國亂이 있을 때에 武人으로서 忠誠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그당시 지방순회하던 李栗谷先生의 권고에 따라 武를 擇한 것이다. 그후 1583年(宣祖 16)公의 나이 18세 되던 해에 武科에 及第하여 가장 젊은 나이로 鹿島萬戶가 되었다.

그의 나이 22세 되던 1587年(선조 20 -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5년전) 2월에 호남지방에 왜구가 수시로 나타나 양민을 괴롭히자 이를 무찌르고자 상감께 出兵을 상소하여 그해 2月 10日頃에 선조대왕이 승락하게 되어 어느 宰相이 주선했던 말을 타고 현지에 부임하였다.

1587年 2月 10日 지금의 고흥 앞바다 손죽도 해상에 倭船 20여척이 침공하자 이를 大破하였으며, 왜적 두목급 목을 무수히 베어 1차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개선하였다. 그때 직속 상관으로 있던 水使 沈岩은 그의 戰功을 빼앗으려다 李將軍이 듣지 않아 창피만 당하게 되어 원한을 품게 되었다. 그 후 며칠 뒤인 2月 17日頃에 또다시 왜적이 大部隊를 결성하여 다시 쳐들어 왔다. 그때 沈岩은 국가의 위기를 당하여 방비할 계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선 公에게 보복할 계획을 한 것이다. 그러한 야비한 목적을 가졌던 沈岩은 무조건 出戰命을 내리자 李將軍은 청하기를 “날이 저물고 준비가 불충분하니 明日에 진격하자” 하였으나 피로한 병졸 백여명을 李將軍에게 주며 끝내 독촉하여 적과

싸우게 하니 李將軍은 할 수 없이 명령에 의하여 적과 맹렬히 싸웠으나 兵力數字로도 衆寡不敵으로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 旗를 들어 本營에 구원병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만 클뿐 당할 도리가 없어 대세를 각오한 李將軍은 속적삼을 벗어 손가락을 끊어 絶命詩를 指血로 써서 집안 종에게 부탁하여 고향 本家로 전하게 한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 指血詩原文

日暮轅門渡來海 君親恩義俱無報
兵孤勢乏此生哀 恨入愁雲結不開
“해 저문 진중에 바다 건너와 외로운 힘다하여 끝나는 일생 슬프다. 나라와 어버이께 은혜 못 갚아 원한이 구름에 얼켜 풀릴 길 없네”

李公은 최후까지 力戰 분투하여 화상도 입고 기진맥진하자 적들이 역습하여 사로불잡아 항복 받으려 했으나 오히려 꾸짖으며 굴하지 않고 호령만 추상갈아 마침내 그를 선교배 돛대에 매달아 참혹하게 칼로 찢어 절명케 했는데 끝까지 그의 호령소리는 바다위를 날카롭게 울렸다고 한다.

그 후 선조실록 권 22에는 그 때의 좌수영 진부 김계동과 이연세 두 사람이 포로로 잡혔다가 천신만고로 탈출해 왔다고 적혀있고 (隱峰野史別錄)에는 그 싸움에서 오직 鹿島營兵卒의 한사람인 손대남이 살아 돌아 왔다고 했으며 李將軍의 마지막 絶命詩를 가지고 전해 준 사람이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 한다.

文化財 소개...

이같은 비장한 죽음을 듣고 고흥 연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슬픈 노래인 (鹿島歌)를 지어 불렀다 한다.

『양성현 대덕산에 혈의서를 매 장함이며, 옛 무덤 완연하고 순군충절 빛나도다. 묻노니, 누구시오 이공대원 영령일세.

손죽도 해상에서 장점을 휘두르며 왜적을 무찌르고 승전고를 올리니 오랑케는 호남에서 영원히 사라지노라.

하늘에 사무치는 유서한구 귀중하다. 충효가 겸전하신 호소인가 자애인가, 비석에 길이 새겨 영세토록 전하도다.』

그 후 가족들은 속저고리에 피로서 써 보낸 絶命詩 28자를 받아 고향 대덕산 밑에 장사지냈다.

그리고 이공을 죽게한 좌수사 沈岩은 곧 투옥되어 처형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전일 이대원장군이 승전한 사실을 관찰사가 왕에게 상소하여 왕께서는 수사 沈岩의 직을 거두고 李將軍에게 水使職을 除授하셨으나 教旨가 전달되기 전에 장군은 이미 순국하시었다고 한다.

그 후 李將軍에 대한 표창은 무척 더디고 분분하였다.

공은 선조 21년에 병조참판으로 추증되고 旌門이 세워졌으며 興陽의 雙忠祠에 모셨던 것인데 나중에 소실되었고, 그 후 80년이 지난 현조대에 와서 다시 고향 양성현에 兵曹參判으로 贈職을 받게 되어 旌門이 세워졌다. 후세 사람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정언신 宰相의 아들인 한천 정협의 손죽도 조사가 있다.

“충신이라 나라에 죽었고, 불사라 머리를 잃었거니, 네 무엇이 슬프리오, 그대는 만족하리라”라고 불렀다.

李將軍의 祭日은 말이 血書의 속적삼을 물고온 날인 1587년 2월 20일이다. 그날을 祭日로 정하고 祭享을 지내고 있으며, 제사날 자정이 되면 말굽소리와 말울음 소리가 들려 더욱 엄숙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血書의 속적삼과 말을 끌고 온 사람이 집에 다 와서 말에 속적삼을 물려보내고 본인은 집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후 임진왜란 6년째인 정유년에 왜군이 전라도로 물러와 이장군의 사당에 불을 지르자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불이 꺼졌기에, 나라에서 霽(소나기확)자를 써서 霽忠祠라고 賜額을 내린 것이다.

現在 李將軍의 神道碑는 平澤郡 浦升面 希谷里 山 85의 5에 위치하고 있으며 神道碑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높이가 80cm 두께 40cm로 비문은 南九萬이 撰하고, 金鎮圭가 전하였으며, 趙相愚가 글씨를 썼다. 이 비를 쓴 年代는 1675년으로 추정된다.

教旨

折衝將軍 全羅左道 水軍節度使李大源 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使者 康熙 7年8月初2日 丁亥倭亂力戰 凶進事承

백중날과 백중놀이

이날에 노는 놀이는 강원도를 경계로 이남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전래의 세시풍속이다. 옛날 불교가 성했던 신라, 고려때의 우란분회(盂蘭盆會)와 같은 유품이 뒤섞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우란분회(盂蘭盆會)의 기원은 목련(目捷連)이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는 일을 말한 경문(經文) 즉 목련경을 음력 7월 보름에 읽고 기념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조에 와서는 승려들만의 행사가 되었으며 일반 가정에서는 새로나온 갖가지 과일과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에게 천신(薦新)을 드려 여름동안의 안거(安居)를 빌고 참회를 구하였고 절에서는 제를 올린 날이다. 이로 인하여 머슴을 둔 집에서는 머슴을 하루 쉬게하고 돈을 주어 물건을 사거나 취흥에 젖게 하였다. 이날 서는 장

을 백중장 이라고 하였다.

이날 마을에서는 두레놀이라고 하여 농사 잘된 집의 머슴을 두레장원이란 하여 황소등에 태우고 농악을 울리며 마을을 돌고 주인집에 가서 술과 음식을 마음껏 들고 즐기었으며 곳곳에 씨름판과 난장을 벌여 농악과 술, 음악으로 흥겨워했다.

이날은 농사를 다 짓고 호미를 씻어 둔다고 하여 호미씻기날 또는 백가지 종자를 갖추어 둔다고 백종일(百種日) 또는 여름동안의 안거와 조상에 천신하고 참회를 구한다 하여 망혼일(忘魂日) 중원(中元)등으로 불려 오다가 백중날로 되었다. 1945년 해방이후에도 그 명맥을 이어 이 고장 평택읍, 오성면, 안중리 등에 백중장이 섰으며 씨름과 남사당패놀이, 난장판을 벌여 왔으나 1950년 이후에는 그 자취를 감추어 찾아 볼 수가 없다.〔事務局〕

본원에서는 지난 8.31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교정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세시 풍속의 하나인 백중놀이를 재현하기 위하여 제 1회 소사별 백중놀이, 씨름, 농악경연대회를 평택군, 평택군교육청 후원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 농악경연부문

1 위 : 팽성농악단, 2 위 : 포승농악단, 3 위 : 오성농악단

○ 씨름 단체전 부문

- 초등부대항전 : 1 위 성동국민학교, 2 위 중앙국민학교, 3 위 오성국민학교
- 중등부대항전 : 1 위 포승중학교, 2 위 안중중학교, 3 위 평택중학교
- 고등부대항전 : 1 위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2 위 동일공업고등학교
3 위 동고등학교
- 읍면대항전 : 1 위 포승면, 2 위 진위면, 3 위 서탄면

한 광 학 원

소재지 : 평택군 평택읍 비전리 산 111번지

재단 현황

○ 수익용 기본재산

대지 577㎡, 답 6,661㎡, 전 11,241㎡,
임야 385,321㎡, 건물 620㎡, 현금 30,726,000원

○ 교육용 기본재산

교지 42,211㎡, 체육장 33,684㎡, 교사건물연건평 18,437㎡



이사장 신영희

설립 동기

6.25 동란이 끝난 1950년대초 이 고장 평택은 전쟁중에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 중에 하나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어려운 생계와 전쟁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었으며 모두 가난과 고달픔속에 살아 가고 있었다. 이런 때에 중학교 진학을 못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또

한편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참된 삶의 의미를 찾고, 하느님께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함으로써 내 고장을 재건하고 발전시키는 역군을 기르고자 기독교 정신을 이념으로 하는 중등 교육 기관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설립당시의 상황

6.25 동란 전후한 무렵 이 고장 평택에는 특히 교육 분야에는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다. 의무 교육을 마치고는 중등교육을 받기 위해 수원이나 서울 등지로 가야 했고, 그나마 극소수의 학생이었을 뿐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 무렵 공립중학교가 하나 설립은 되었으나 역시 빈한한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취학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때 (1953년) 평택 장노교회 (현재 철도 건너 구 신흥 제제소 자리)에서 취학 못하는 불우 청소년들을 모아 요셉고등 공민학교 (1953.2.2 인가, 후에 한광고등 공민학교로 개칭)를 개교하였는데 이 학교가 오늘의 한광 전신이었다.

요셉 고등 공민학교는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정규 중학교인 한광중학교 (1955, 4.9 인가)의 인가를 받고 흑벽돌 9개교실의 교사를 신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수도 적고 극심한 재정난으로 교사 신축도 중단되었고 학교는 더 이상 유지정영이 어렵게 되었다. 학교가 이렇게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 현 한광학원장이며, 한광 고등 학교장인 홍성걸 선생님이 이 학교를 맡아, 중단되었던 교사 신축도 완공을 보았고 학교 교육도 정상화 시켰다. 그후 꾸준한 노력과 정성으로 현재 2만평 대지위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남·여 4개 학교로서 성장하여 이 고장의 명문 사학으로 발전하여 온 것이다.



학 원 연 혁

1955. 3. 22 학교법인 한광학원 설립인가
 1955. 4. 9 한광중학교 6학급 설립인가
 1956. 1. 7 홍 성 영 교장 취임
 1963. 1. 5 한광고등학교 3학급 설립인가
 1963. 3. 1 한광고등학교 초대 홍 성 영 교장 취임
 1967. 9. 8 한광여자중학교 9학급 설립인가
 1968. 1. 9 한광여자고등학교 3학급 설립인가
 1968. 3. 1 한광여자고등학교 초대 홍성결 교장 취임 (설립자)
 1968. 3. 1 한광중학교 제 3대 김 기 주 교장 취임
 1970. 1. 23 한광중학교 24학급 증설인가
 1973. 1. 6 한광여자중학교 21학급 증설

인 가

1974. 3. 1 한광여자중학교 제 2대 홍 만길 교장 취임
 1976. 3. 29 한광고등학교 홍 성 영 교장 순직
 1976. 5. 18 한광중학교 제 4대 홍성결 교장 취임
 1976. 5. 18 한광여자고등학교 제 2대 김 기 주 교장 취임
 1976. 5. 18 한광고등학교 제 2대 홍성결 교장 취임 (설립자교장)
 1978. 4. 24 한광중학교 제 5대 홍 준 기 교장 취임
 1979. 10. 30 한광여자고등학교 30학급 증설인가
 1980. 10. 30 한광고등학교 30학급 증설인가
 1983. 3. 1 한광여자중학교 제 3대 김 기주 교장 취임
 1983. 3. 1 한광여자고등학교 제 3대 홍 만길 교장 취임

한 광 중 학 교

○ 교훈 : 큰 뜻을 품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

○ 교육 목표

1. 투철한 반공정신과 국가관을 바탕으로 애국애족 할수 있는 학생을 기른다.
2.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여 자주적으로 공부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학생을 기른다.
3. 기초체력을 단련하여 건전한 몸과 정신을 갖춘 학생을 기른다.
4. 자율적인 생활능력을 갖춘 학생을 기른다.
5. 모든 규칙을 준수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을 기른다.
6. 자기의 소질을 계발하고 1인 1기를 갖춘 학생을 기른다.

○ 경영역점

- 국민정신교육의 심화
- 통일안보 의식의 고양
- 면학기풍의 확립
- 기초 과학기술의 충실
- 보건위생 및 안전지도



홍 준 기 교장

- 자아실현의 의지 고양
- 여가선용의 배양
- 준법성 지도 강화
- 학도애향대 운영의 발전
- 학교 새마을 교육의 내실
- 평생교육의 기반조성

○ 특색 사업

- 전교생 즐기기 대회
- 매주 1인 1권이상 독서하기
- 시청각실 운영
- 학생회 활동의 활성화
- 펜글씨 쓰기
- 학부모와의 교실 유대

한광여자 중 학교

○ 교훈 : 아름답고 성실한 여성이 되라

○ 교육 목표

1.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기른다.
2. 주체 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으로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기른다.
3. 기초학력을 쌓아 합리적인 생활태도를 갖는 사람을 기른다.
4. 아름다운 마음과 고상한 취미 활동으로 명랑하고 윤택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기른다.
5. 시간을 잘 지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여 몸과 마음이 튼튼한 사람을 기른다.

○ 경영역점

- 국민정신 함양
- 충효사상 고취
- 주인의식 함양
- 바른생활 태도의 확립



김 기 주 교장

- 기초학력의 신장
- 과학기술 교육의 충실
- 전인교육의 충실
- 예절교육의 충실
- 보건체육 교육의 충실
- 질서의 생활화

○ 특색 사업

- 생활예절실 운영을 통한 전통 다례 및 예절교육
- 예능교육 (현악, 합창, 서예, 미술)
- 육상 선수 양성
- 독서반 운영

한광고등학교

○ 교훈 : 큰 뜻을 품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

○ 교육 목표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여 민족과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전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높은 사랑과 인격의 소유자로서 생애에 진지한 사람
2. 민족의 긍지를 지니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명감에 불타며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사람
3. 학문을 사랑하며 일하기를 좋아하여 부지런하고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
4. 몸이 튼튼하고 민활하며 용기와 인내력을 갖춘 진취성이 있는 사람
5.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알아 생을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폭이 넓은 사람
6. 창의성과 자주성이 있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발전해 가는 사람
7.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며 협조와 봉사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



홍성길 교장

○ 경영역점

- 기초학력 향상 목표치 설정
- 학급별 개인 목표치 설정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진단 평가 실시
- 학력 지도안 작성
- 반복 학습 지도
- 학력 부진아 및 우수자 보충지도
- 평가결과 활용

○ 특색사업

- 수준높은 취주악부 운영
- 조정부 운영
- 어학실 운영
- 도서관 운영
- 학습실 운영

한광여자고등학교

교훈 : 아름답고 성실한 여성이 되라

교육 목표

1.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사람을 기른다.
2. 멸공 정신이 투철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고장과 모교를 아끼는 사람을 기른다.
3. 올바른 생활관을 가지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기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특기를 발전 시키는 사람을 기른다.
4. 검소하고 품위있는 생활태도를 갖추어 남에게 실망을 받는 사람을 기른다.
5. 체력을 연마하여 세련된 건강미를 지닌 사람을 기른다.
6. 자주, 자립 정신으로 진로를 개척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기른다.

경영역점

- 불우이웃, 학우돕기 운동 전개
- 경노효친 교육



홍만길 교장

- 국민정신 교육 강화
- 학도 애향대 활동 강화
- 전인교육 충실
- 학력향상
- 생활관을 통한 예절 교육
- 기본생활습관 지도
- 체력신장
- 88 올림픽 대비 체육 교육
- 새마을 교육의 충실
- 직업과정 운영의 내실화
 - 특색 사업
- 생활예절실 운영
- 조정선수 육성
- 육상부 활동 ○ 직업반 운영

제 21 회 경기도 대전
본군출신 미술인 입상작품

▲ 일시 : '85.7.16 ~ 23
▲ 장소 : 경기도 시민회관

紅 上 秋 示

초 대 작 품



〈孤 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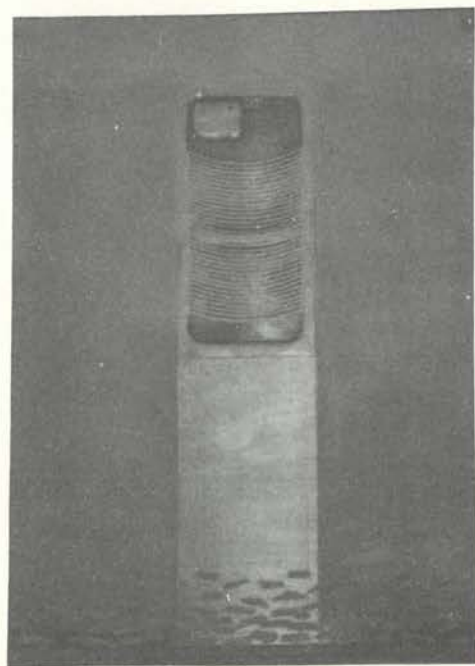
도운영위원 초 대 작 가 趙 成 洛 作

조각부분



〈모녀〉 박용각작

서양화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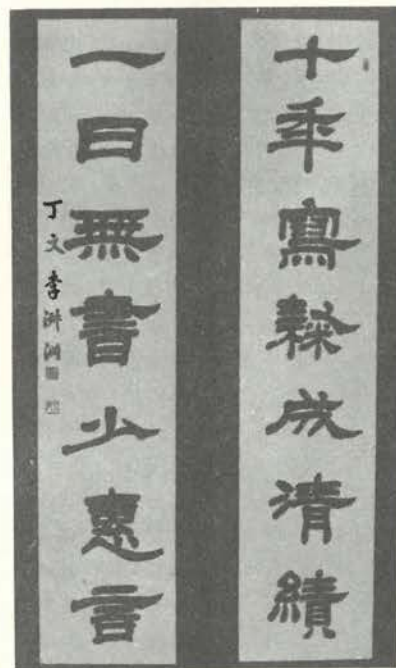


〈無題〉 최창수작

서예부분



〈문엄사랑〉 백남희작



〈십년사예〉 이숙연작

'85 文化行事競演

平澤文化院의 指標인 地域社會의 啓蒙과 文化藝術의 振興을 爲하여 國家的 次元의 地方文化藝術 活性化 計劃에 힘입어 85 文化行事競演을 郡民의 날 行事와 祝祭行事로 85.10.12 並行 實施하고 10.30 郡民의 날 行事場에서 平澤郡民의 날 行事推進委員長(平澤郡守)이 施賞하였다.

行事種目は 한글白日場 美術實技競演, 揮毫競演, 時調競唱 등을 實施하였고 이날 각 種目の 入賞者는 다음과 같다.

각 부문별 수상자 명단

◎ 운 문 부

초등부	최우수	성 동 국민 학교	5	김진영	할머니
	우 수	진 위 국민 학교	6	이인희	하 늘
	"	평 일 국민 학교	5	이범구	하 늘
	장 려	금 각 국민 학교	5	한상정	하 늘
	"	안 중 국민 학교	5	민미선	코스모스
중등부	최우수	평택여자중학교	2	신혜연	코스모스
	우 수	평 택 중 학 교	3	임현수	가로수
	"	청 답 중 학 교	3	이현옥	소사벌
	장 려	진 위 중 학 교	2	방병국	부 모
	"	한광여자중학교	2	김애숙	코스모스
고등부	최우수	한광여자고등학교	2	정인화	하 늘
	우 수	한 광 고 등 학 교	2	김인철	코스모스
	"	청담종합고등학교	1	이은선	코스모스
	장 려	한광여자고등학교	2	류휘주	들 길
	"	한 광 고 등 학 교	2	추왕덕	들 길
	총				15명

◎ 산 문 부

초등부	최우수	현 덕 국민 학교	6	이은옥	들 길
	우 수	성 동 국민 학교	6	이은희	경로석
	"	중 앙 국민 학교	6	류혜정	경로석
	장 려	죽 백 국민 학교	6	구본희	할머니
	"	안 중 국민 학교	6	김옥연	내 고 장 평택
	"	산 대 국민 학교	6	정경숙	코스모스
중등부	최우수	평택여자중학교	3	김수진	들 길

중등부	우 수	평택 중 학 교	2	강관석	들 길
	"	한광여자중학교	1	김희연	내 고 장 평택
	장 려	평택여자중학교	3	박은정	할머니
	"	오 성 중 학 교	2	최미라	코스모스
	"	진 위 중 학 교	3	김학란	부 모
고등부	최우수	평택 고등학교	1	김형기	코스모스
	우 수	한광여자고등학교	3	홍전영	할아버지
	우 수	평택고등학교	1	고영일	부 모
	장 려	한광고등학교	2	배인철	하 늘
	총				16명

◎ 미술 실 기

초등부	최우수	평택국민학교	5	윤종수	
	특 선	평일국민학교	2	홍그림	
	"	안중국민학교	3	홍경옥	
	"	중앙국민학교	4	이혜진	
	"	부용국민학교	1	지용휘	
	"	죽백국민학교	6	조제자	
	입 선	부용국민학교	3	김병모	
	"	현덕국민학교	6	황지연	
	"	평택국민학교	5	차광래	
	"	제성국민학교	5	전일현	
	"	금각국민학교	6	정은희	
중등부	최우수	평택 중 학 교	2	신상철	수채화
	특 선	한광 중 학 교	3	원경도	"
	"	오 성 중 학 교	3	김수연	"

중등부	특 선	한광여자중학교	3	남해정	수채화
	가 작	오 성 중 학 교	2	박희영	"
	"	청 담 중 학 교	2	박민호	"
	"	진 위 중 학 교	2	권혁미	"
	"	평택중학교	1	차광명	"
	"	평택여자중학교	2	김인화	"
최우수	오 성 중 학 교	1	김기옥	동양화	
특 선	한광여자중학교	2	구경옥	"	
	"	청 담 중 학 교	3	이진희	"
	"	평택여자중학교	1	염은주	"
가 작	오 성 중 학 교	1	정연옥	"	
	"	오 성 중 학 교	3	정완구	"
	"	청 담 중 학 교	3	신미경	"
	"	청 담 중 학 교	2	강재숙	"
	"	청 북 중 학 교	2	예규채	"
최우수	평택여자중학교	2	장정은	유 화	
특 선	평택중학교	1	김언영	"	
	"	한광여자중학교	2	백운실	"
	"	청 담 중 학 교	3	박주현	"
가 작	한광여자중학교	2	김용자	"	
	"	한광여자중학교	1	선미덕	"
	"	한광여자중학교	3	김정희	"
	"	청 담 중 학 교	2	김진영	"
	"	청 북 중 학 교	2	권창식	"
고등부	최우수	청담종합고등학교	3	박성훈	수채화
	특 선	한광여자고등학교	3	정남용	"
	"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2	신현지	"
	"	청담종합고등학교	2	이상기	"
가 작	평택고등학교	3	유재윤	"	
	"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3	강윤진	"
	"	진위상업고등학교	2	신종석	"
	"	평택고등학교	2	이병하	"
	"	청담종합고등학교	2	심정문	"
최우수	한광여자고등학교	3	함수경	동양화	
특 선	한광여자고등학교	2	이혜진	"	
	"	진위상업고등학교	2	윤미순	"
	"	한광여자고등학교	2	윤경화	"
가 작	청담종합고등학교	1	최미규	"	
	"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1	김광명	"
	"	한 광 고 등 학 교		한상운	"
최우수	한광여자고등학교	2	김태은	유 화	
특 선	한광여자고등학교	2	권순면	"	
	"	한 광 고 등 학 교	2	강원준	"
	"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2	임종석	"
가 작	청담종합고등학교	1	조은정	"	
	"	한 광 고 등 학 교		엄태동	"
	"	청담종합고등학교	1	권순자	"

고등부	가 작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2	임종호	유 화
	"	진위상업고등학교	1	한인숙	"
	총			6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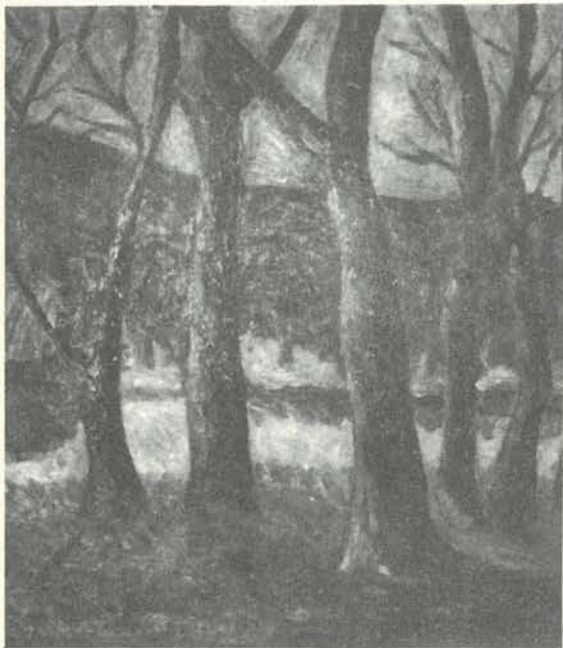
◎ 휘 호 경 연

초등부	최우수	평택중앙국민학교	6	한윤정
	우 수	평택 국민 학교	5	이일호
	"	안 중 국 민 학 교	5	문영옥
	특 선	현 덕 국 민 학 교	6	이재경
	"	평택 국민 학교		이은숙
	"	안 중 국 민 학 교	6	이소영
	입 선	현 덕 국 민 학 교	6	김정옥
	"	중앙 국민 학교	5	김오환
	"	안 중 국 민 학 교	6	엄선희
중등부	최우수	한 광 여 자 중 교	2	장정인
	우 수	평택 여 자 중 교	3	한미령
	"	평택 여 자 중 교	3	노명이
	특 선	평택 중 학 교	3	황돈영
	"	청 담 중 학 교	2	이주은
	"	한광여자중학교	3	한선미
	입 선	청 담 중 학 교	1	박지영
	"	한광여자중학교	3	김문정
	"	한광여자중학교	1	오순희
	"	청 담 중 학 교	3	심수진
	"	한 광 중 학 교	1	한세기
고등부	최우수	해 당 없 음		
	우 수	해 당 없 음		
	특 선	평택 고 등 학 교	2	조상우
	"	한 광 고 등 학 교	1	김윤상
	총			2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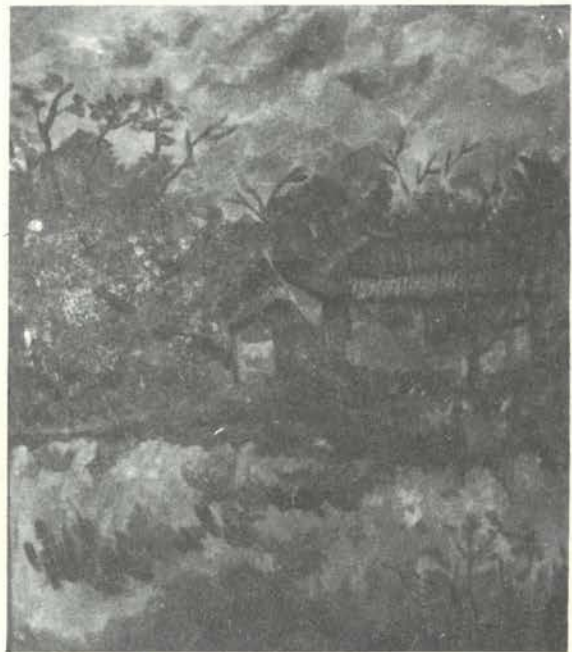
◎ 시 조 경 창

갑 부	1 위	조석준
	2 위	윤석연
	3 위	견신흥
	장려	성탁원
	"	김석희
을 부	1 위	이순호
	2 위	김영희
	3 위	임재식
	장려	이문기
	"	조지연
총		10명

유 화 <금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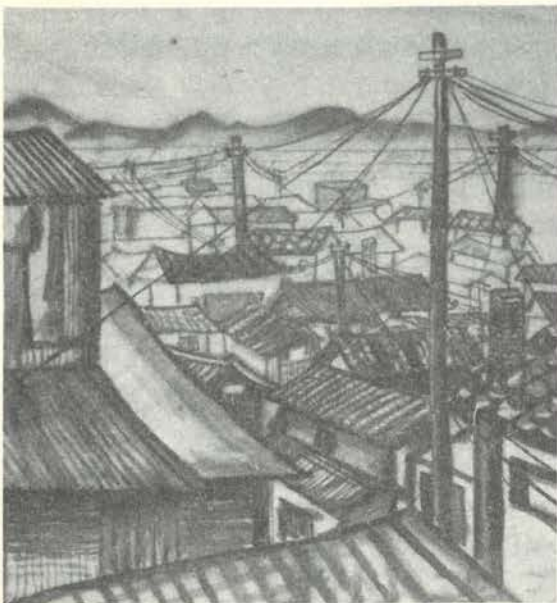


평택여중 2학년 장정은



한광여고 2학년 김태은

동 양 화



오성중 1학년 김계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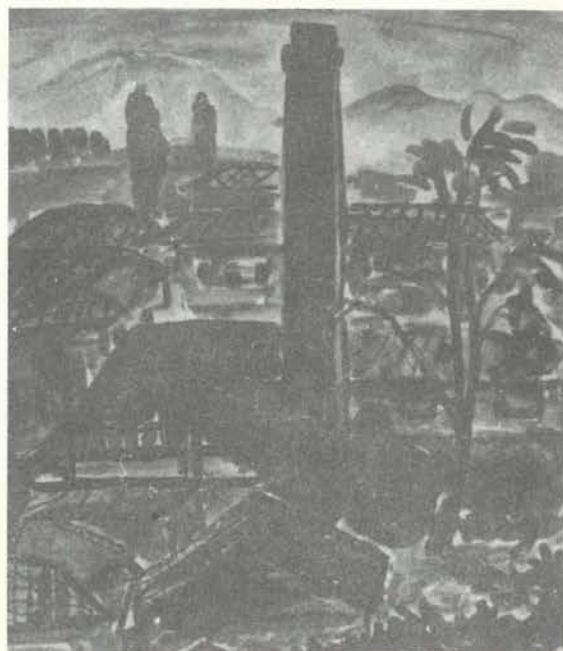


한광여고 3학년 함수경

수 채 화 <금 상>



평택국교 5학년 윤종수



평택중 1학년 신상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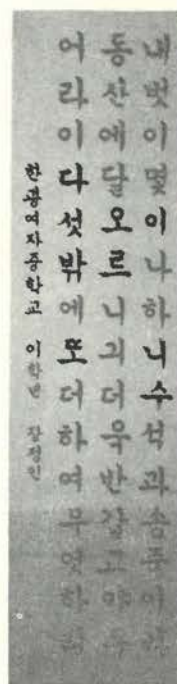
회 호 경 연 <금 상>



청담고 3학년 박성훈



중앙국교 6학년
한윤정



한광여중 2학년
장정인



● 운문부 최우수 ●

할 머 니

평택성동국민학교
5학년 김 진영

할머니 등에 업혀

잠을 청 하면

어디선지 모르게

꿀이 흐른다.

입 안에선 사르르

군침 돌아도

눈을 뜨면 더 진한

할머니의 등

● 운문부 최우수 ●

코스모스

평택여자중학교
2학년 신 혜연

청록 계절은
상큼한 바람에 밀려
단풍진 산 너머로 사라지고
연분홍 코스모스
가을 길에 곱게 피었네.

코스모스 한 잎 따다
단발머리 위에 꽂아 보고,
또 한 잎 따다가
책갈피에 끼워넣고,
짐도 없이 책 한 권
손에 들고 나선 길.....

걸다가 뒤돌아보면
한길가 흰 손이
바람에 손목 잡혀
가냘픈 고개 저으며
마냥 떨고 있네.

● 운문부 최우수 ●

● 산문부 최우수 ●

하늘들길

한광여자고등학교
2학년 정 인화

현 덕 국 민 학 교
6 학년 이 은옥

살며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이얀 별빛이 빛나는
까아만 밤이었습니다.
거짓된 웃음과 말이 필요치않고,
허황된 교어가 무의미한,
오직 진실만이 숨쉴수 있습니다.
나만이 간직 하고픈
희디흰 그윽한 향기의 하늘,
어둠을 흔들며 지나가는 바람이
해묵은 기억을 더듬어 헤집고,
검은 공간중에 떠다니며 순간을
남기기 위해 몸부림의 빛깔로
허공중에 날으니,
이미 퇴색해 버린 별하나가
하나의 의미를 남긴채 사라졌습니다.
어두운 밤이었기에
찬란한 아침의 뜻을 알았고,
좁은 험한 땅에서 갇혀 있었기에,
넓은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펴는
높은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늘 기어 오르는
생명의 소리에,
높은 하늘을 향한 발돋움에서
행복을 키우며 고개를 숙인다.

높고, 푸른 하늘을 보면 마음이 맑아지고, 가을의 상징 코스모스를 보면 마음이 밝아진다. 잔잔하게 바람과 이야기 하는 누런 벼들은 아름답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시골은 나의 추억을 가득 담아주는 곳이다. 공부를 하다 잠깐 창너머로 들판을 바라보면 저 멀리 보이는 산을 오르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 얼른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뛰어나간다. 풀줄기 하나 입에 물고 흥얼흥얼 콧노래 부르며 뭉게구름 피어 오르는 산을 향한다. 건다보면 나를 반겨주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좁다란 들길이다. 좁은 들길이라 하여 보잘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옆 논에는 누런 벼들이 잔잔한 호수처럼 넘실거리고, 길 양가에는 길다란 몸매를 가진 코스모스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가냘픈 몸을 곧게 세우고 방긋이 미소짓는 코스모스가 나를 유혹한다. 코스모스를 보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어떻게 저런 가늘한 줄기에서 꽃

이 피고 잎이 돌아날 수 있지?’
하고 생각에 잠긴 때도 많이있다. 그럴때 나는 어여쁜 공주가 되어 꽃으로 장식된 길을 걷는 것이다. 이런 저런 생각에 잠기다 풀밭에 도달했다. 풀밭은 나를 잠재울것만 같은 모습으로 바람에 하늘거린다. 풀밭에 팔을 베고 누워 살며시 눈을 감는다. 눈을 감으면 머리속에서는 들길을 걷던, 지나간 일들이 하나, 둘 머리를 스쳐간다.

어느날 나는 엄마께 꾸중을 들었다.

“넌 왜 엄마를 이렇게 슬프게 만드니? 왜, 엄마의 가슴을 이렇게 찢러? 너, 때문에……,”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조르다 그만 엄마가 화가 나셨는지 꾸중을 하셨다.

“그만 뒤,”

나도 화가 났다. 그래서 집을 뛰어나왔다. 집을 뛰어 나올때 나의 마음이 무척 무거웠다. 그렇지만 화가 잔뜩 나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것 같았다. 아주 집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몇 시간동안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들길을 걸었다. 다리도 아팠다. 그래서 풀밭에 앉아 넓은 들판을 바라보았다. 그때 별들이 말했다.

“너는 잘못했어, 어서 집으로 돌아가 빨리”

하며 들길을 가르켰다. 코스모스도 말했다. 풀들도 말했고, 들길이 나를 불렀다.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향했으나 다시 꾸중 들을 생각을 하니 겁이 나기도 했다. 집에 들어가니 나의 예상과는 달리 꾸중은 하지 않았었다. 밖으로 나와 들길이 보이는 곳에 나가

“들길아, 넓은 들아, 고맙다”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하니 ‘흐흐흐’하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눈을 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서산에 햇님이 걸터 앉아 저녁을 말했다.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들에 댔던 염소를 끌어가고 있었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 툭툭 털고 집을 향했다.

‘혹시 저 들길이 지나갔던 일들을 돌이켜 나를 비웃지 않을까? 그러면……, 아이 창피해’

잘못된 마음을 고쳐준 들길이 고맙기는 했지만, 나의 마음은 창피하기만 했다. 들이 비웃을까봐.

● 산문부 최우수 ●

들 길

평택여자중학교

3학년 김수진

열려진 창문을 통해 느껴지는 스산한 바람과 한껏 목청을 돋는 귀뚜라미의 울음 소리에 문득, 이젠 가을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가을……,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은 흔히 말하는 결실의 계절이라는 말이다. 넓은 들판에는 누런 벼들이 굽이치고 온갖 과일들이 열매 맺어, 농부님네들의 가슴에 수확의 기쁨을 하나 가득 안겨다 주는 그런 계절이다.

어제는 우리 아저씨 댁에서 추수를 하는 날이었다. 엄마와 함께 오랫동안 아저씨 댁에 갔다가, 추수한다는 말에 나까지도 괜히 마음이 들뜨는 것을 느꼈다. 아저씨 댁에 도착해 보니 온 집안이 떠들썩하고 모두들 분주해 보였다. 들로 나가 보아도 하나같이 다 벼 베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 이따금씩 여기 저기서 흘러 나오는 아저씨들의 콧노래 소리가 마냥 흥겹기만 했다. 저쪽에서 내게 손을 흔드는 아저씨의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을 보고, 나는 농사일이 무척 힘들고 고달팠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새벽에 일

찍 일어나 논을 돌보며 피약별 아래 부지런히 일을 하셨을 아저씨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러나, 아저씨의 얼굴에는 누구보다도 더 환히 웃음이 가득 차 있었다.

“아저씨 좋겠다. 추수도 했으니 인제는 부자 됐네.”

“그래, 그래, 네 말이 맞다. 부자가 되고 나니까 힘이 마구 쏟아져 나오구나. 허허.”

즐겁게 웃는 아저씨를 보니 내 맘도 환해지고, 아저씨의 굽직한 팔뚝을 보고는 믿음직스럽기만 했다.

시간이 되어 엄마와 함께 논길을 걸어 나오는 동안, 나는 추수의 기쁨에 들떠 있는 아저씨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그 기쁨은 정작 우리 아저씨의 것만은 아니리라. 그것은 기름진 팔도강산 곳곳의 모든 농부들의 한결같은 기쁨이리라. 논길 위에서의 저녁 바람은 한층 더 시원하고, 흙 냄새는 풀 냄새와 함께 어울려 싱싱한 자연의 냄새를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이 아저씨에게, 일찌감치 출세 못하고 왜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사는냐고 물을 때마다, 그저 씩 웃기만 하시던 아저씨의 모습이 생각났다. 내

가 이 넓은 들의 냄새를 맡고 보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묵묵히 살아가시는 아저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저씨는 자연 속에서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신 것이다.

씨는 뿌린대로 거둔다는 아저씨의 말씀에 되새겨 보며, 나는 농부들의 구슬땀을 생각해 본다. 일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벼를 수확하는 아저씨를 보니, 역시 자연은 거짓이 없는가 보다.

그런데, 결실의 계절을 맞아 모두들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에 출렁이는 이때, 나는 대체 어떤 값진 것을 수확한 것일까? 뿌린 것이 없으니 수확이 있을 리 없다. 모든 일에 임할 때마다, 노력할 생각은 뒷전으로 미루고서, 자신감을 잃고 핑계만 잔뜩 늘어놓으며 아까운 시간을 흘려 보냈던 것이다. 1분 1초라도 놓쳐서는 안 될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은 채…….

거짓없이 싱싱하고 넓은 들길 위에서 진정한 땀의 결실을 거둔 한 농부의 웃음을 대하던 날, 나는 결심했다. 나도 그 농부처럼, 고된 땀 한 방울 한방울로 삶의 의미를 찾아 보자

고…….

어떤 사람들은 가을을, 고독의 계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찬바람이 횡하니 불어오며 텅구는 낙엽을 보게 되는 날까지도, 나는 결코 그런 말은 하지 않겠다. 바쁜 끝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바쁘게 일하며 노력하는 사람에게 고독이란 있을 수 없다. 괜스레 고독을 즐길 시간의 여유가 없는 이상 고독이 찾아올 리 없다. 가을이 되면, 쌀쌀한 바람이 마음까지도 춥고 허전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이 가을은 단지 쓸쓸하지만은 않은가 보다. 가을은 여러 사람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안겨다 줌과 동시에, 내게도 알찬 내일의 희망을 주었다.

나는 들길을 걸으면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일을 해서, 열심히 거둬들이는 힘찬 농부들처럼, 나도 알찬 인생의 결실을 맺기 위해 더욱 용기를 내어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산문부 최우수 ●

코스모스

평택고등학교
김형기

물질 세계의 메마른 도시 공간 속에서 우리들은 무디어 가는 생활을 한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황금 만능 주의가 팽창되어 가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는 도리어 그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대도시의 인구 집중과 수많은 갈등과 경쟁으로 말미암아 무미건조한 사람들이 되어 가고 있다.

우리들은 흔히 고향을 말할 때에 우리네의 전통적인 농촌의 생활을 생각한다. 앞산에는 진달래가 피어나고 냇가에는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치며 송아지는 한가로이 풀을 뜯고, 초가지붕의 새하얀 박꽃들이 피어서 옹기종기 모여 살아가는 것을 이른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한 유유자적하는 생활을 동경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고향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또한, 고향을 생각할 때에 꾸불꾸불한 시골길을 생각한다. 코스모스가 길 옆에 만발한 길을 따라서, 오누이들이 걸어가는 것을 생각할

때 누구나 다정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수수하면서도 귀엽고 예쁜 이들은 우리에게 잊혀져 가는 고향의 의미와 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다.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지도 않고, 외로운 산속에서 나그네를 위로하며, 현대의 여러 공간에도 피어나서 새로운 감동을 주는 이들은 우리네의 소박하고 순수한 생활을 표현해 준다.

추석을 맞아 귀향하는 사람들이 가슴 설레이며, 바쁜 걸음으로 고향의 집으로 향해서 달려 올 때, 이들은 고향길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생각한다. 고향의 의미를 지닌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다. 머언 발치에 고향의 산천과 집들이 보이기 시작하여 먼 길도 힘들이지 않고 뛰어 오는 그들을 제일 먼저 기쁘고 반갑게 맞이하여 주는 것은 고향 길가에 피어난 키 작은 코스모스 들이다.

고향을 찾는 그들의 즐거운 마음을 더욱 더 즐겁게 하여 주고, 슬픈 마음과 심신의 걱정과 괴로움을 안고 고향을 찾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해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향에 그리운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안 계셔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고

향길가의 코스모스 보다도 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생각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옛날 정다웠던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 벌판에도 함께 달맞이를 하며 소원을 빌 때에도 코스모스는 그들의 말없는 벗이었던 것이다.

또한, 코스모스는 풍성하고 평화로운 가을 들판의 멋을 한층 더해 주며, 수확을 기쁨으로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잠시 쉬는 동안에 그들의 한 해에 노력을 했던 것에 대하여 치하하며 함께 무르익어 가는 수확과 결실의 계절을 함께 기뻐해 준다.

그러나, 도시 문명과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산물인 오염이 우리의 친구인 코스모스에게도 다가와서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던 코스모스가 도시의 빌딩숲과 먼지 그리고 무관심 속에서 그 수효가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 한 길가 수북히 피어서 마음을 포근하고 따뜻하게 해주던 코스모스가 이제는 농촌으로 가야만 볼 수 있는 날도 이제는 가까와 졌는지도 모르겠다. 사라져 가는 우리의 멋이 너무나도 많고, 이제 코스모스도 다른 화려한 꽃들에게 밀리어 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이제 가을도 깊어 가고 머지 않아 흰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이 다가온다. 우리에게 아늑함과 따뜻함을 안겨 주었던 코스모스들도 훗날을 기약하면서 사라져 가야 한다. 깊어 가는 가을날에 나는 떨어져 가는 코스모스를 생각하며 우리들의 세상을 돌아다 본다. 우리는 얼마나 따뜻한 인정을 가지고서 삶을 해나가고 있는 것일까? 알 수 없는 일이다. 메말라 가는 세월 속에서 나도 메말라 가고 있는지…….

문 화 동 정

- 서부 4개면 청년연합회에서는 지난 2.26 12:00에 안중·종합고등학교 강당(명제당)에서 창립총회 및 결단식을 갖었다. 설립취지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솔선수범하며 새청년상을 정립하자는 등이며 본 설립취지를 '다져' 나아가는데 결의를 보였다.
- 평택청소년 지도자연합회(회장: 김진영)에서는 한국 청소년 연맹 평택지역 초·중·고 연합 발단식을 지난 4.10 11:00에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강당에서 거행하였다. 이 자리에는 군내 각기관장, 학부형들이 다수 참석하여 이 자리를 지켜보았으며 이들의 장래를 격려했다.
- 평택지구 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명호)에서는 지난 4.17 11:00 평택군 오성면 안중리 281-1에 안중지소를 개점하고 신용업무를 개시하였다.
- 대한노인회 평택군지부(지부장: 이규현)에서는 지난 5.1 11:00 노인회관을 증축하여 각계 유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 평택문화원에서는 지난 4.9 17시 문화원 전시실에서 4년여의 각고 끝에 군지편찬을 끝내고 군지발간 축하회를 갖었다. 이날 축하회에는 군내 각기관장, 사회단체장 및 군지편찬 위원 등이 참석하여 군지발간을 축하하였으며 군지편찬을 위하여 집필위원을 맡아온 金鍾華씨, 禹箕鍾씨, 車寬榮씨 李基哲씨에게 평택군수가 감사패와 기념품을 전달하고 그 간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 평택군 교육청에서는 미래의 조국을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품성을 다듬고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를 다짐하는 '85 학도애향대 실천 결의대회를 지난 5.1 14:00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강당에서 거행하였다.

- 안중로타리 클럽 (회장 : 李啓錫)에서는 지난 4.29 15:00에 아산만 국민 관광지 아산 레저타운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 진위중 · 상업고등학교 (교장 : 권오겸)에서는 지난 5.7 11:00 어버이날을 기하여 경로효친 사상고취를 위한 제 7회 경로잔치를 본교 강당에서 베풀었다.
초청대상을 진위 · 서탄면 거주자 66세 이상의 노인 989명이며 이날 군내 각 기관장을 초빙하여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다.
- 동방 아동복지회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지난 5.21 14:00에 불우한 아동들에게 밝은 삶의 등불을 비치고자 평택읍 소사리에 동방어린이 동산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 한전 평택지점 (지점장 : 윤정로)는 지난 5.31 10:00 지점 사옥을 신축하고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 한국전기통신 평택전신전화국 (국장 강필구)에서는 지난 7.1 14:00 전자교환시설 13,500회선 증설개통 기념식을 각계 각층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거행하였다.
- 한국 보이스카우트 경기연맹 송탄 · 평택지구연합회 위원회 (평택군 교육장 : 박한동)에서는 지난 7.22 17:00 국제 청소년의 해 기념 85년 평택 · 송탄 하계 야영대회 및 전진대회를 안성군 대덕면 대림동산에서 거행하였다.
- 학교새마을 어머니회에서는 지난 7.24 14:00에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학교 새마을 어머니회 660명과 학교장 54명 담당교사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새마을 어머니회 활성화를 위한 전진대회를 평택군 교육청 후원으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전경환 새마을중앙회장을 비롯해서 황철수 경기도 교육감과 군내 유관기관장이 참석하여 전진대회의 결의를 굳게 하였다.
- 한국 청년운동협의회에서는 지난 7.24 10:00 새시장 광장에서 건국초기 평택 청년운동에 가담하여 대한청년단평택군당장

을 역임한 고차관영 선생과 대한 독립촉성 평택군 위원장을 역임한 고 최춘화선생의 위령제를 거행하였다.

장위원장은 유정완씨이며 집행위원장은 유천형씨가 맡아 보았고 이날 위령제에는 고인과 뜻을 같이 하였던 동지다수와 군내 각기관장 및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엄수되었다.

- 평택 하수꽃꽃이 목련회 (회장 : 강영진) 지난 4.27 부터 5.1 까지 5일간 평택군 농협지부 회의실에서 회원작품 전시를 갖었다.

- 한국미협 평택지부 (지부장 : 조성락)에서 지난 4.27 부터 5.1 까지 5일간 회원 작품전을 갖었다. 이날 출품내용은 동양화 30점, 서양화 15점 조각등을 출품하였다.

- 청담중종합고등학교에서는 지난 5.24부터 5.28 (5일간) 불탄 4.8행사 학생작품 전시회를 갖었다. 전시작품은 카-드, 박공예, 포스타, 탕화등 500여점에 달하였다.

- 평택분재 동호인회 (회장 : 민병국)에서는 지난 6.27 부터 6.29 까지 3일간 회원작품 (분재)을 전시하여 이채를 띄었다.

- 한국기타협회 평택지부 (지부장 : 최현구)에서는 지난 4.13 19:30 평택읍 복지관에서 허병훈 초청 귀국 기타 연주회를 갖었다. 허병훈씨는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 음악원 기타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였으며 클래식 기타의 정통주법을 구사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었다.

- 본군 관내 미술인들은 지난 7. 16 ~ 23 (8일간) 수원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제 21회 경기도 미술대전에 작품을 출품하여 동양화에 조문희씨작품 촌로가, 서양화에 최창수씨 작품 무제, 조각부분에 박용각씨 작품 모여, 서예부분에 백남희씨 작품 문엄사랑, 이선희씨 작품 한시가 각각 입선되었으며 특선작품에는 이숙연씨의 십년사예가 입상이 되었다.

도전 운영위원 초대작가인 조성락씨는 동양화 孤獨을 출품하였다.

(80 쪽 화보 참조)

鄉友會消息

在京 平澤郡 鄉友會

所在地: 서울 성동구 성수동

電話番號: 463-5551~4

任 員:

會 長: 金 泰 鄉

副 會 長: 申 崙 秀

方 孝 善

히 남 훈

白 承 浩

金 濟 亮

總 務: 金 千 壽

會 員 數: 170 名

在京 西炭 鄉友會

所在地: 서울 중구 태평로 명지빌딩705호

電話番號: 752-5545~6

任 員:

會 長: 趙 鏞 樂

副 會 長: 한 상 일

이 원 의

우 창 규

김 봉 열

김 병 수

監 事: 한 명 희

// : 김 범 열

事務局長: 조 성 기

會 員 數: 205 名

在京 平澤郡 鄉志會

所在地: 서울 종로2가 종로빌딩 25 호

電話番號: 735-3712

任 員:

顧 問: 梁 在 顯

會 長: 崔 應 均

副 會 長: 李 百 憲

監 事: 白 南 秀

總 務: 吳 世 俊

在京 平澤郡 同友會

所在地: 서울 마포구 망원동414-73

電話番號: 324-7555

任 員:

會 長: 李炳默(324-7555)

副會長: 崔承元(863-4753)

總 務: 李鍾元(813-6140)

財 務: 黃聖元(833-2546)

監 事: 鄭 榮(0341-2-3093)

會 員 數: 20 名

在水 平友會(수원, 화성, 용인)

所在地: 수원시 팔달로2가47-1

電話番號: 5-8957 (上一가구4층)

任 員:

顧 問: 徐 丙 吉

俞 爽 濬

會 長: 李 秉 稷

副 會 長: 金 鎮 斗

尹 石 漢

鄭 圭 煥

李 淵

總 務: 李 元 鎬

監 事: 金 德 仲

徐 廷 萬

會 員 數: 250 名

〔註〕 上記 한 바 諸愛鄉親睦會는 本院에서 蒐集. 要約한 것이며, 余他의 諸親睦會等 자료가 있으시면 本院 事務局으로 連絡바랍니다.

※ 連 絡 處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 63

전화(0333) 2-2184, 2-3750

독자원고모집

향토문화 창간을 위한 계도잡지로서 본지는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내 고장의 정취 : 고향에 대한 애 향심을 나타내는 산문 또는 에세이 (원고지 9 ~ 12 매)
- 선행 (善行) 추천 : 충·효·경로등 올바른 생활해서 모범된 사례의 추천 (원고지 9매 이내)
- 민속놀이 발굴 : 민속놀이에 대한 알리고 싶은 내용 (원고지 9매 이내)
- 전설민화 : 이 지방의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전설이나 민화 (원고지 9 ~ 10 매 이내)
- 기타 : 시, 콩트, 수필등 (원고 10매 이내)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고 보내신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보내실 곳 :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 63

평택문화원 사무국 전화 : 2-2184
2-3750
— 소사벌 편집담당자 앞 —

편집후기

- 創刊號 보다는 훨씬 紙面을 늘려서 만들게 되었다. 紙面을 늘리는데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래서 有志 몇 분을 찾아서 支援을 要請하였더니 거절하지 않고 應하여 주시었기 때문에 좀 쉬운 편이었다.
本紙를 위하여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보낸다.
- 그리고 本紙 編纂을 위해 案稿하여 주신 각 기관단체에 감사를 드리며 倍前의 指導와 鞭撻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逆境을 딛고서 倍前의 힘을 기우려서 平澤 아니? 소사벌의 소식을 전하는 傳令으로서 힘을 기우릴 작정이다.

【 편집 부 】

평택의  새명소

강원가든호텔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 25-2
TEL. 2-2010 단체예약 2-7583



강원가든갈비의 특징

- ※ 순수한 암소 한우만을 사용
- ※ 천연 조미료만 사용
- ※ 강원 제일농장에서 공해없는 신선한 야채만을 사용
- ※ 갈비전문의 주방장이 펼치는 맛의 파도라마

* 부대시설안내 *

- 지하 : 그릴, 커피숍, 이·미용실
- 1층 : 폭포수와 즉석 숯불갈비
(갈비탕, 냉면, 비빔밥, 한정식)
- 2층 } 현대식 시설을 갖춘 객실
- 3층 } (냉·난방완비)
- 4층 }
- 기타 : 대형주차장 완비